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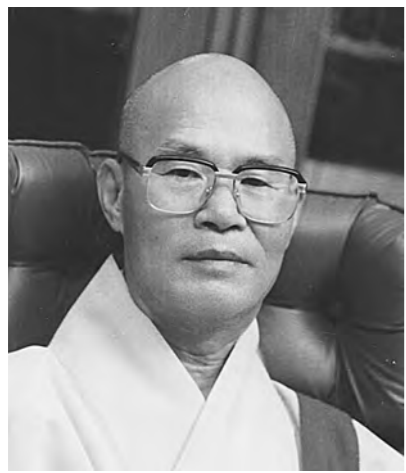


# 새 즈믄해, 함께하는 시작을 위하여

## “화해와 화합으로 희망의 한 세기를 열자”

## “초발심의 순수한 열정으로, 새 천년의 주인공 되자”

## “새로운 출발선에 서서 힘찬 시작을 다짐한다”



친애하는 동국인 여러분!

2,000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경진년과 함께 시작된 대망의 새 세기와 신 천년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로 동국인 여러분 모두가 소망을 이루시고 행복과 보람이 가득한 한해가 되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뜻 깊은 새 출발의 날을 맞아 저는 우리 동국학원의 밝은 앞날에 대한 비전과 꿈을 동국 가족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희망의 한 세기를 여는 오늘 저는 무엇보다도 화해와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인간과 인간 상호간의 불신과 갈등은 신뢰와 믿음이 열여지고 융서하는 마음이 부족한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사분율'에는 "법과 법아닌 것, 할 것과 하지 않을 것, 말할 것과 말하지 않을 것 등을 잘 분별하여 행동하면 시비가 생기지 않고 화합을 깨뜨리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화합하지 못할 때에는 저마다의 행동을 더욱 삼가고 참고 견디어 자비로운 마음으로 마치 물과 젓이 합한 것처럼 화합해야 서로 이익을 얻고 안락하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동국 학원은 어려운 시대 상황에도 불구하고 동국 100년의 화려한 금자탑을 향해 힘차게 전진을 계속해 왔습니다. 서울 캠퍼스에 정보 매체 센터 및 상록원을 준공하였으며, 전 불교계와 대학의 오랜 숙원 사업인 수도권 불교 종합병원 착공식을 갖고 현재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동국학원은 한국인의 정신적 고향이자 한국 불교 상징이며 전 세계가 주시하는 지혜의 아카데미로서, 21세기에도 민족과 세계 인류를 이끌어 갈 희망의 사상을 창조하고 실천하는 큰 지혜와 큰 광명의 중심 도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해에도 우리는 정보 문명 시대에 부응하는 대학, 민족통일의 시대를 대비는 대학, 21세기를 이끌어 갈 세계 중심의 대학 건설을 위해 불퇴의 정진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동국 100년의 과업인 일산 제3 캠퍼스 건설과 불교 종합병원의 건립을 위해 전 동국인은 화합의 마음으로 혼연일체 되어 지혜와 힘을 모아 적극적인 협력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이러한 화합과 결속의 기운이 성숙되고 모든 동국인이 하나로 힘을 모을 때 동국학원의 비약적인 발전은 더욱 가속화하여, 명실 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민족의 명문 사학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새해에는 부처님의 크신 자비와 광명으로 세계 평화와 나라의 풍요가 오고, 우리 동국 학원과 동국인 여러분에게 무궁한 발전과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하면서 신년의 인사에 가를 합니다.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장 오복원



새 천년 첫 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동국대학교는 개교 이래 경장(更張)을 거듭하여 20세기의 대미(大尾)를 어는 대학보다 훌륭하게 장식할 수 있었습니다. 재단과 종단은 물론 동국전체 구성원 여러분의 순수한 성원과 견고한 신심, 그리고 전국의 불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으로 가능한 것이었기에 거듭 경의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지난날의 영광은 역사로 남기고, 21세기가 우리에게 희망이 되게 하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출발을 해야 할 때입니다. 새 천년은 일찍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와 경쟁의 세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세의 변천도 모르고, 낡은 생각만을 고집하여 고치지 않는 부정적인 태도로서는 새 세기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선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동국의 역사를 창조할 첫발을 디뎠고, 이제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새 역사의 창조는 온축된 전통을 바탕으로 자기 반성하는 위에서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할말 어려운 여건 속

에서 불교계 선각자들이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동국대학교를 건립하였던 그 순수한 열정으로 각자가 동국발전의 주체가 될 것을 약속할 때, 우리는 세계 속의 동국, 새 천년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불투명한 미래에 대하여 전망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대학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학이 존립해야 하는 근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각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동국대학교는 미증유의 환란 속에서도 값진 성과를 이루어낸 경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초발심의 순수성을 용기의 바탕으로 삼았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우리 동국대학교가 철저한 교수와 학습, 효율적인 행정으로 창의가 살아 숨쉬어 불변의 가치를 창출하는 마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동국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성원 속에 세계속의 동국, 새 천년의 주인공이 되는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간망합니다. 그리고 '나'와 '남'이 따로 없고, '이것'과 '저것'의 차별이 없는, 그래서 모든 것이 제대로 살려지는 대화해·대생명의 세계관을 창출하는 대학, 자리아타를 실현하는 대학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동국대학교의 무궁한 발전과 동국인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동국대학교 총장 송석구



천년을 보내고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려 합니다. 우리 모두는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그 출발선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분단과 전쟁, 기아와 혼란을 딛고 새로운 희망과 단합, 그리고 통일의 새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천년, 희망의 세기를 맞이하면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학우 여러분들이 남긴 지난 한 해의 자취는 어떤가요?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20대를 살고 있는 청년입니다. 32대 자주적 총학생회는 학우 여러분과 함께 청년다운 양심과 기상으로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출발선에 서려고 합니다. 힘차게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려 합니다.

1만 2천 학우들의 눈빛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가슴에 새기고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출발선에 서서 2000년, 학우들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를 고민합니다. 학우들과 더불어 숨쉬며,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 안고 진정 학우들로부터 신뢰받는, 말 그대로 대중적인 학생회로 학우들 속에서 자리매

김하기 위하여 고민하며 학우들 속에서 발로 뛰는 그런 32대 총학생회로 살 것입니다.

학우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냉철히 판단하고 힘의 논리에 굴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교육발전5개년 계획 철회! 국가교육재정 확보! 교육시장개방 반대! 재단 혁신! 등록금 동결!'의 흐름들을 학우 여러분과 함께 힘있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학우사랑, 조국사랑의 결정체' 자랑찬 민족동국 32대 자주적 총학생회로 살 것입니다. 식민지 한국 사회에 올라보 서서, 우리 부모님의 아픔을 이해하며 아는 대로, 배운 대로 실천하는 당당한 청년학생으로 살아 갈 것입니다.

새로운 새천년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주변의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쉰 정도를 가는 당당한 동국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32대 자주적 총학생회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 갈 것입니다.

1만 2천 동학인 모두가 동학의 주인, 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한마음으로 새천년, 새희망 2000년 한해를 힘차게 비상하는 새처럼 살아갑시다. 그 중심에서 32대 자주적 총학생회는 학우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생활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힘차게 달려갑시다. 학우여러분에게 힘찬 출발을 다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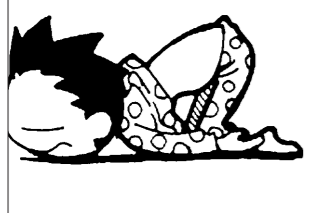
웃으며 맞이하는 자주의 새아침, 그 새아침을 열어가는 32대 자주적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32대 자주적 총학생회 서울캠 총학생회장 이승복



상봉공 <15>

신년인데 아직도 자고있어? 2000년 이다...!! 2000년!



성적은 도대체 이게 뭐니!! 어이구... 도대체 누가 뭐개야?



설마... 여러분들 도...?



## 동학광장

### 목먹기

문과대

새 천년을 희망으로... 한 해가 가고 새 해가 온다는 것. 삶 속에서 늘상 반복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즈믄 해를 접고 새 천년을 연다는 것에 희망의 2천년을 맞이하는 우리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한 세기를 돌아봅니다. 조국의 분단, 기아와 전쟁, 극빈층과 최상층의 엄청난 빈부격차, 환경파괴와 공해, 이기심과 개인주의로 팽배한 사람들, 현재의 식민지적 상황... 우리 민족은 지난 5천년의 역사에서도 일찍이 겪어 보지 못한 시련을 이 한 세기동안 겪었습니다. 그러나 현상에 좌절하고 주저할 수만은 없습니다. 새 천년, 희망의 새 천년을 맞이하기 위해 항상 열심히 살아가는 32대 통일 문과대를 만들 것을 학우 여러분께 다짐합니다. 초발심이 변치 않도록 항상 자신을 채찍질하는 저희가 되었습니다. 학우 여러분의 새 천년이 조국의 새 천년이 희망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32대 통일문과대 자주적 학생회 학생회장 신석철

경상대

다시, 한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새로운계획과 목표들을 세우고 잘해보겠다는 지금까지와는 달라지겠다는 생

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런 약속들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맙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지금, 우리들이 세우는 계획과 목표는 새천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에 정말 지금까지 반성하고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들이라면 분명 그럴수 있고 그렇게 한다면 지키지 못할 계획은, 목표는 없을 겁니다. 저 또한, 우리 경상대 학생회 또한 그런 달라진 모습이 되겠습니다.

32대 애국경상 자주적 학생회 학생회장 김덕기

사범대

저에게 있어서 며칠 후 맞게될 새해는 의미가 더 커다랗습니다. '00년이라서... 4학년이라서... 그리고 무엇보다 사범대 1100 친구들과 함께 한다는 희망에서 그렇습니다. 대학생활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 가고, 사람에 대한 정을 느끼게 하는 공간이 "학생회"라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누구나 와서 얘기하고 그 속에서 뜻과 의지를 모아나가는 우리들의 "터"를 사범대에서 만들고 싶습니다. 사범대 1천1백 학우들! 새해에는 꼭 건강하시구요, 따뜻하고, 푹푹하고, 양심을 실천하는 예비교사들의 일년을 함께 만들어 봅시다. 언제라도 ~ 사범대에 ~ 놀러오세요 ~ 32대 자주적 사범대 학생회장 임은희

야총

올해는 20세기를 마감함과 동시에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새천년을 맞이하는 지금 그 동안의 학생회 모습 속에서 계승할 점과 혁신할 부분을 명확히 진단하고, 학우들

과 함께 하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때 대학사회에서 학생회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16대 야간강좌 총학생회는 노력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게을리지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선거 때 내걸었던 '새천년을 향한 무한질주'라는 구호처럼 학우들과 함께 무한질주하는 학생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6대 불패야총 자주적 학생회 부학생회장 임형준

### 은방길

불교문화대

귀의 삼보 하옵고. 다사다난했던 기묘(己卯)년 한해가 저물고 새천년 경진(庚辰)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천년을 볼 수 있는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는 대중매체를 통해 많은 것을 접하며 많은 것을 얻었지만 또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새천년 또한 하루의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고 내일이 있어야 모레가 있음... 과거에 연연해서는 안되지만 과거 없이 현재의 자신이 존재하지 않음을 망각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경진년 새해는 여러분이 처음 가졌던 마음 그대로 변하지 않고 정진하는 사람이 되길 빌겠습니다.

불교문화대 학생회장 조태영

인문과학대

새천년 우리 청년들은 희망찬 통일 조국을

건설할 훌륭한 일꾼들로 나서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곳의 선두에 일만 민족동국의 청년들이 있을 수 있도록 14대 인문대과학대 학생회가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길에서 이천 인문 학우들은 물론 일만 운방길 학우들의 무사태평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통일 인문대 학생회장 정재훈

관광대

비아호로 금세기가 지나고 새천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천년이 갖는 상징성 만큼이나 학우님들 모두가 새롭고 큰 이상을 갖고, 소중한 결실의 행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듯 처음은 어렵고 힘든 법입니다. 저 또한 초대 관광대 학생회장으로 관광대를 우리학교 최고의 대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학우 여러분 우리 모두 새천년에는 각자의 대학, 학부, 학과에 대한 애정과 사람으로 모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관광대학 학생회장 이교형

의과대

학우 여러분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자기의 몫을 열심히 수행해 나간다면 21세기에는 신비로운 세계가 아닌 희망찬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방학동안 지난 20세기 잘 정리하시고 뜻깊은 방학이 되시길... 그리고 2000학년도 새학기에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납시다. 여러분 새로운 세기 복 많이 받으세요. 의과대학 학생회장 지예성

### 알림

미선출된 경주캠 총학생회장과 단과대학 학생회장의

신년인사는 부득이하게 실지 못함을 알립니다.

# 2000학년도 특차 입학전형 치러져

## 서울캠 수능 상위 6% 유지 ... 경주캠 관광대(야) 10.40대 1

2000학년도 특차모집이 전·후반기 두차례에 걸쳐 치러졌다. 예년과 달리 이번 특차모집은 전반기 특별전형과 일반전형, 후반기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으로, 지난해 보다 좀더 세분화되어 더욱 다양한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서울캠 전반기 전형은 총 7백52명 모집에 3천4백66명이 지원했으며,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후반기 전형은 총 6백91명 모집에 1천6백13명이 지원했다.

4.6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전반기 모집에서는 외국어우수자, 특기자, 추천자 등 특별전형 위주로 학생들을 선발한 반면, 2.3대 1의 경쟁률을 보인 후반기 모집에서는 수능성적을 통한 일반전형 위주로 학생들을 선발했다.

특차모집 결과, 교무처(처장=신재호·전자공학) 학생선발실에서는 당초 모집단위 광역화로 인한 경쟁률의 약화와 합격자 성적 하락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쟁률은 상향되었으며, 합격자 수능성적평균이 상위 6%를 유지했다고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학생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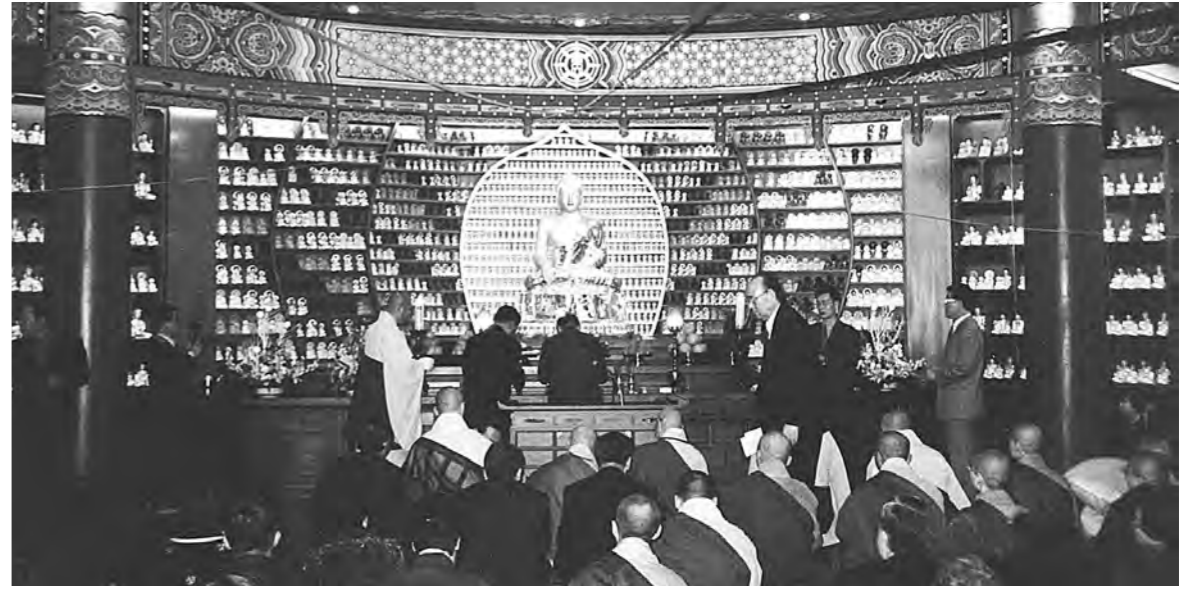
실의 한 관계자는 "지난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무료홈페이지 구축이 분교를 널리 홍보하는 계기가 되어 많은 학생들이 지원한 것 같다"며 "앞으로도 고교 홈페이지 구축작업은 계속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서울캠은 특차모집을 마치고 '나' 군 전형일정에 따라 정시모집이 진행중이다.

경주캠의 경우 특차모집 후반기 전형은 총 4백79명 모집에 9백88명이 지원해 2.0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수능성적 인문·자연계열 전국 상위 2%이내 지원이 가능한 한 의예과의 경우 총 24명 모집에 92

명이 지원해 3.8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의예과의 경우 수능성적 상위 4%이내 총 10명 모집에 32명이 지원해 3.2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한 관광대 야간학과의 경우 10.40대 1이라는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28일부터 30일까지 치러진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부산, 광주, 제주 등 전국 8개 지역에서도 방문 접수가 이루어졌으며, 이들 지역에서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현지에서 응시하는 방문 전형이 실시될 예정이다.

대학부



대각전 만불봉안불사 3차 봉불식

개달음의 법당인 대각전 만불봉안불사 '제 3차 봉불식'이 오목원 이사장, 송석구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및 불자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인이사 배도원 스님의 집전으로 지난 12월 13일 90주년 기념문화관 대각전에서 봉행됐다. 이날 봉불식은 송영방(예술대학장) 화백의 작품인 금강산의 장안사와 표훈사 등을 배경으로 한 보현보살시현도와 문수보살시현도의 대각전 봉안 점안식을 가진 뒤, 이법산 정각원장의 축원, 한보광 대외협력처장의 경과보고, 이사장 오목원 큰스님의 법어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3차 봉불식에서는 모두 3백불상이 새로 봉안되어 대각전 총 봉안불상은 2천 6백불로 늘어났다.

사진부

# 오는 3월부터 조교제도 개선(안) 시행

## 학력 따른 처우차등 폐지·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임용 대상

### 1월중순까지 활발한 의견개진 요망

기획인사처(처장=정용길·정치외교학) 인사팀은 오는 2000학년도부터 조교제도를 개선해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획인사처의 설문조사를 통해 조교의 60%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결과에 따라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들을 보완해 오는 2000년 3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새로운 조교제도 시행의 경과조치로 기존 조교에 대해서는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현행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의 조교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조교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조교 고유의 업무보다 잡무가 많다는 점이다.

이에 앞으로 개선될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교육 조교를 행정

조교와 교육조교로 분리 △연구조교 현행유지 △수업조교 폐지후 파터타임제 운영 등이다.

무엇보다 현행 99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울캠, 경주캠 총 조교 인원이 4백30명인데 반해 앞으로는 7백42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학업지도교수의 원활한 역할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교수1인당 조교 1인을 배정할 수 있는 규모로 광역화된 학부학생들의 효과적인 지도를 돕는다.

조교의 임기는 현행 2년이었던 것을 학년 또는 학기단위로 개인통산 2년 6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연장하며 각 대학장 및 소속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하던 것을 총장이 임명하게 된다.

앞으로 학력에 따른 처우 차등을

폐지하고 업무량에 따라 처우를 차등화해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임용 대상으로 한다.

경주캠의 경우 대학원이 없어 기존에도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들이 조교로 활동하고 있어 현행대로 적용할 경우 수업조교의 역할외에 조교임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조교에게 지급되던 급여와 장학금 등 이중 수혜를 장려할 수해안으로 단일화해 업무량에 따른 장학금 및 보수를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대학원학생회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기존 조교들 사이에는 많은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획인사처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이번 개선 제도를 통해 업무를 원활히 하고 장학수혜 혜택을 많은 사람이 받도록 해 대학원 교육활성화를 기할 예정"이라며 "대학원과 논의를 통해 서울·경주캠의 차이, 인문·자연계의 차이, 석사·박사과정의 차이 등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반영하여 결정할 것이므로 1월중순경까지 활발한 의견개진을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양경인 기자 yangkang@cakra.dongguk.ac.kr

# 학교건물내 금연운동 추진

##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키로

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2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빠르면 오는 3월1일부터 학교건물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강의실과 실험실이 있는 건물과 상록원, 예술극장 등 공공장소를 비롯한 전 건물내에서는 금연을 해야 한다. 하지만 도서관, 학생회관과 교수회관 등은 건물 내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 흡연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학교건물내 금연운동 추진을 위해 학교건물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강의실과 실험실이 있는 건물과 상록원, 예술극장 등 공공장소를 비롯한 전 건물내에서는 금연을 해야 한다. 하지만 도서관, 학생회관과 교수회관 등은 건물 내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 흡연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로써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강의실과 실험실이 있는 건물과 상록원, 예술극장 등 공공장소를 비롯한 전 건물내에서는 금연을 해야 한다. 하지만 도서관, 학생회관과 교수회관 등은 건물 내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 흡연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로써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강의실과 실험실이 있는 건물과 상록원, 예술극장 등 공공장소를 비롯한 전 건물내에서는 금연을 해야 한다. 하지만 도서관, 학생회관과 교수회관 등은 건물 내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 흡연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로써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강의실과 실험실이 있는 건물과 상록원, 예술극장 등 공공장소를 비롯한 전 건물내에서는 금연을 해야 한다. 하지만 도서관, 학생회관과 교수회관 등은 건물 내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 흡연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로써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강의실과 실험실이 있는 건물과 상록원, 예술극장 등 공공장소를 비롯한 전 건물내에서는 금연을 해야 한다. 하지만 도서관, 학생회관과 교수회관 등은 건물 내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 흡연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로써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강의실과 실험실이 있는 건물과 상록원, 예술극장 등 공공장소를 비롯한 전 건물내에서는 금연을 해야 한다. 하지만 도서관, 학생회관과 교수회관 등은 건물 내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 흡연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로써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강의실과 실험실이 있는 건물과 상록원, 예술극장 등 공공장소를 비롯한 전 건물내에서는 금연을 해야 한다. 하지만 도서관, 학생회관과 교수회관 등은 건물 내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 흡연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로써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강의실과 실험실이 있는 건물과 상록원, 예술극장 등 공공장소를 비롯한 전 건물내에서는 금연을 해야 한다. 하지만 도서관, 학생회관과 교수회관 등은 건물 내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 흡연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로써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강의실과 실험실이 있는 건물과 상록원, 예술극장 등 공공장소를 비롯한 전 건물내에서는 금연을 해야 한다. 하지만 도서관, 학생회관과 교수회관 등은 건물 내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 흡연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로써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강의실과 실험실이 있는 건물과 상록원, 예술극장 등 공공장소를 비롯한 전 건물내에서는 금연을 해야 한다. 하지만 도서관, 학생회관과 교수회관 등은 건물 내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 흡연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로써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강의실과 실험실이 있는 건물과 상록원, 예술극장 등 공공장소를 비롯한 전 건물내에서는 금연을 해야 한다. 하지만 도서관, 학생회관과 교수회관 등은 건물 내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 흡연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로써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강의실과 실험실이 있는 건물과 상록원, 예술극장 등 공공장소를 비롯한 전 건물내에서는 금연을 해야 한다. 하지만 도서관, 학생회관과 교수회관 등은 건물 내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 흡연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로써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강의실과 실험실이 있는 건물과 상록원, 예술극장 등 공공장소를 비롯한 전 건물내에서는 금연을 해야 한다. 하지만 도서관, 학생회관과 교수회관 등은 건물 내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 흡연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로써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강의실과 실험실이 있는 건물과 상록원, 예술극장 등 공공장소를 비롯한 전 건물내에서는 금연을 해야 한다. 하지만 도서관, 학생회관과 교수회관 등은 건물 내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 흡연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본교의 경우, 명진관과 학림관은 지난해부터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한 바 있으나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정보문화관은 개관시부터 건물내 금연을 실시한 결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본교의 경우, 명진관과 학림관은 지난해부터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한 바 있으나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정보문화관은 개관시부터 건물내 금연을 실시한 결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본교의 경우, 명진관과 학림관은 지난해부터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한 바 있으나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정보문화관은 개관시부터 건물내 금연을 실시한 결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본교의 경우, 명진관과 학림관은 지난해부터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한 바 있으나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정보문화관은 개관시부터 건물내 금연을 실시한 결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본교의 경우, 명진관과 학림관은 지난해부터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한 바 있으나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정보문화관은 개관시부터 건물내 금연을 실시한 결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본교의 경우, 명진관과 학림관은 지난해부터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한 바 있으나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정보문화관은 개관시부터 건물내 금연을 실시한 결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본교의 경우, 명진관과 학림관은 지난해부터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한 바 있으나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정보문화관은 개관시부터 건물내 금연을 실시한 결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본교의 경우, 명진관과 학림관은 지난해부터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한 바 있으나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정보문화관은 개관시부터 건물내 금연을 실시한 결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본교의 경우, 명진관과 학림관은 지난해부터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한 바 있으나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정보문화관은 개관시부터 건물내 금연을 실시한 결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본교의 경우, 명진관과 학림관은 지난해부터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한 바 있으나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정보문화관은 개관시부터 건물내 금연을 실시한 결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본교의 경우, 명진관과 학림관은 지난해부터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한 바 있으나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정보문화관은 개관시부터 건물내 금연을 실시한 결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본교의 경우, 명진관과 학림관은 지난해부터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한 바 있으나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정보문화관은 개관시부터 건물내 금연을 실시한 결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본교의 경우, 명진관과 학림관은 지난해부터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한 바 있으나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정보문화관은 개관시부터 건물내 금연을 실시한 결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본교의 경우, 명진관과 학림관은 지난해부터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한 바 있으나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정보문화관은 개관시부터 건물내 금연을 실시한 결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본교의 경우, 명진관과 학림관은 지난해부터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한 바 있으나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정보문화관은 개관시부터 건물내 금연을 실시한 결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보리수

## 자신의 일을 찾자

정성본 (불교문화대학 선학과)

언제나 한해가 저물 때면 사람들은 누구나 세월의 빠름과 무수함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또 새로운 한해를 맞이한다. 새해에는 보다 알차고 보람된 한해를 보낼 것을 자신에게 다짐한다. 그리고 금년 한해의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자신과 굳은 약속을 하면서 새해를 출발하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새로운 시절인연을 만나면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고 있다.

사람은 자기 향상과 발전의 길을 추구하기 위해 각자의 일을 통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새해에 아무리 훌륭한 일을 성취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자신과의 약속을 실행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향상을 이루지 못하고 항상 도중에서 타락하고 만다.

새해에 각자가 세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 원리 원칙을 세우고 24시간을 효과적으로 잘 관리하여 자기 향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실천하자.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보내어 인생을 낭비하는 죄인이 되지 말고, 창조적이며 행복하고 자신의 보람된 삶의 시간을 만들도록 하자.

마음을 차분히 순일하게 맑히고, 자신의 참된 모습을 자각하자. 주위에 일어나는 잡다한 문제에 끄달리지 말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여 정념하자. 인생에 승패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매사에 지금 여기서 자기의 일에 완전히 몰입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패배주의나 열등감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자신의 일에 완전히 몰입하여 최선을 다했기에 그는 승리한 것이다. 오로지 무심의 경지에서 매일 매일 자신의 일에 혼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온 정열을 다 쏟았을 때 승패가 있을 수 없다. 사실 인생은 승패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 자신의 인생과 보람찬 삶이 더욱 값지고 빛날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의 일을 통해서 자기 성장을 이루며 가족과 사회에 봉사할 수 있다. 자신의 하는 일이 자기의 참된 존재의미를 만드는 것이다.

새해에는 우리를 모두가 자신이 세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삶의 보람과 기쁨을 얻도록 하자. 자신의 일에 대한 긍지와 최선을 다하는 사명감과 성실성이 자신의 일에 대한 본질적인 보상이며, 보람찬 삶의 즐거움인 것이다.

<b>동대신문</b>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구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편집인 겸 주간 양영진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ac.kr
부주간 심규박	하이텔 ID dgpress 나무누리 ID 동대신문
편집국장 박상관	천리안 ID dgupress
편집장 김미경	구독문의 : (02)2260-3491 · 2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 · 2 팩스 (02)2279-1270 전화 (0661)770-2068 팩스 (0661)770-2067	

# 신입생 등록금 13% 인상 고지

## 교육재정확보 방안제시가 '해법'

지난 2년동안 동결돼온 사립대 등록금이 인상돼 본교도 오는 2000년부터 등록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고려대의 경우 고교장 추천전형 합격자들에게 등록금을 받으면서 올해보다 평균 15%를 인상했으며 본교의 경우 고교장 추천전형 합격자들에게 올해보다 13%인상된 등록금 고지서를 발송했다.

최종적인 등록금 인상률은 이후 등록금 책정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등록금 인상은 기존의 GNP 대비 4.5%의 교육재정이 오는 2000

년부터 4.1%로 삭감되어 국가와 사학재단 모두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난 2년간 동결됐던 임금을 15.6% 인상할 것을 입단협에서 제시한 노동조합의 요구를 감안할 때 등록금의 인상은 이미 예정된 일이다.

이와 관련해 노조의 한 관계자는 "교수와 직원들의 임금인상은 불가피하며 추후 학생회와의 논의를 통해 조정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총학생회의 한 관계자는 "등록금 인상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등록금 납부

거부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등록금 인상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최근 10년간 각 사립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을 놓고 학생회와 심한 갈등을 보여왔다. 교육재정확보에 대한 뚜렷한 대안제시가 없이 등록금 의존율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열악한 대학재정구조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현실이다.

본교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인상문제로 새학기 시작부터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양경인 기자

yangkang@cakra.dongguk.ac.kr



한·일 전통문화 비교연구

'한·일 전통문화 비교연구'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지난 달 10일 본교와 일본 옹곡대학 공동주관으로 본교에서 진행되었다. 송석구 총장의 '한·일 전통문화 비교연구의 의의'라는 주제의 기조발제로 시작된 이번 행사에서는 기타바타게 텐세이 기후성덕학원대학 학장의 특별강연과 '재일 한국·조선인의 종교와 그 배경', '한국불교 정법과 사상' 등 지난 3년간의 공동연구를 총결산하는 한일 전통문화에 관한 다양한 연구 발표가 이어졌다.

## 희전무대

### 아이구 추워라

0...방학중인 요즘 동국관 5층 도서관에는 학생들의 기침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는데.

알아본즉, 도서관 개관시간이 오전 6시부터임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난방은 오전 9시가 되어서 가동 돼, 새벽부터 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이 추위에 떨고 있다고.

이는 공부하러 왔다가 병만 얻어 가는 꼴이니.

이에 도서관에 울리는 냉랭한 음악소리, "살마하고 공부하다 감기 걸렸어. 독한 감기라 하지마!"

### 동국 게임방(?)

0... 온방골 컴퓨터 실습실내에 몇몇 학우들이 개인 흥미용 불법 매트릭스를 설치해 관리요원과 사투를 벌인다는데.

무슨 말이고 하니 불법 소프트웨어 게임이 설치된 컴퓨터는 강의도중 쉽게 다운이 되는가하면 매번 실시되는 관리요원의 재검사는 업무에 지장을 주기도 한다 하니.

이에 한 관계자 왈 "너희들의 존재는 알고 있으나 다량의 매트릭스를 통제하기엔 시간적 여유가 없다!"

### 조교 vs 사환

0... 조교협의회의에서는 조교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일대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는데.

알아본즉 업무시간 단축 및 업무량 축소를 내세워 조교 임금 삭감이라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이로 인해 조교협의회의는 무기한 업무거부 및 사직서를 제출 등을 결의했다는데.

이에 한 조교 왈 "사환과 비교되는 조교 처우 아직도 2%부족해?"

### 장학전선 이상무(?)

0... 2000학년도부터 본교 서울캠퍼스 장학제도가 예년과 달리 크게 바뀌어 희비가 엇갈린다는데.

왜그런고 하니, 모집단위광역화에 따른 장학제도의 획기적 개선과, 고조되는 등록금인상문제에 기성회비와 수업료의 통합이 맞물려 장학금 면제대상인 학생들의 실망이 클 듯, 이를 지켜본 한 학우 왈 "남들학 이유하냐만 대면 안잡아 먹지!!"

## 기관업적평가 시행

# 공정한 평가... 업무효율성 높인다

## 교원연구업적·팀별·기관별 전부분 망라

기획인사처(처장=정용길·정치외교학)는 지난달 8일부터 교내 각 기관의 기관업적평가 계획서를 받고 있으며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LG 컨설팅사에서 내부역량의 극대화 방안으로 제안했던 것을 본교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기관업적평가제란 말 그대로 각 기관들이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가를 평가하여 궁극적으로는

업무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교원연구업적평가제는 본교를 비롯해서 다른 대학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본교는 이를 더욱 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기관업적평가제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모든 평가제도가 그렇듯이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최우선의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업무별로 일괄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각 부서

별로 자기부서 기능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교무위원 중심으로 위촉된 실무평가단을 구성해 각 평가계획서를 점검,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기획인사처의 한 관계자는 "공정성이 항상 모든 평가에서 문제가 되는 만큼 최선을 다해 문제점을 개선해가겠다"고 전했다.

양경인 기자

yangkang@cakra.dongguk.ac.kr

# 인터넷 속도 10배 빨라진다

## 총 15억원 투자...기가비트 통신망으로 확장

오는 3월부터 학내의 인터넷 속도가 지금보다 10배 빨라진다.

정보관리실(실장=이종욱·정보관리학)은 오는 5일부터 총 15억원을 투자하여 3월 초를 목표로 고속 인터넷을 위한 네트워크증설공사를 시작한다.

우선 기존의 각 건물에 1개의 LAN선당 여러 대의 PC가 연결되던 것이 한 선당 한대의 PC 연결로 바뀌고 월 1000만원을 투자하여 외부망의 속도가 예전보다 5배 빨라질다. 또한 내부망에서 중앙도로 역할

을 하던 백본의 속도가 5배 향상되고 설비는 현재 공사중인 다량관으로 이전하게 된다. 따라서 실질적인 공사완료는 다량관 공사마무리에 따라 바뀌게 될 예정이다.

이번 네트워크 증설로 인해 각 건물의 모든 PC의 인터넷 속도가 향상됨은 물론이고 TV를 이용하던 외국어교육원의 어학학습이 VOD(video on demand)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개개인의 선택적 학습이 가능해지는 등 교육에 많이 이용될 전망이다. (중)

한편 이번 설치되는 전국 대학들 중 두번째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는 학생들의 PC사용량의 증가 외에도 본교가 영상정보특성화대학인 점과 국가사업지정을 통한 지원에 의한 것이다. 이와관련해 정보관리실의 이종욱 실장은 "타대학보다 많이 증설된 것으로 더욱 빠른 네트워크가 될 것이며, 앞으로 학생들의 이용에 따라 점차적으로 PC와 네트워크 설비들을 증설하여 속도를 계속해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

# 박물관 새롭게 단장 - 동악미술사학회 창립



박물관 재개관으로 유물관리와 업무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물관(관장=장충식·미술사학)이 시설 보수와 교체 공사가 끝남에 따라 지난달 7일 재개관했다.

이번 재개관으로 △전시실내 시설의 보수, 교체 △국보, 보물 등을 비롯한 새로운 유물로 교체 전시 △장애인출입통로 설치 등 현관과 출입시설이 개선됐으며 △박물관 관장실과 학예실의 이전 △발굴유물정리실과 교사자료실 설치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한편 동악미술사학회 창립총회가 지난 12월 15일 본교 덕암세미나실에서 송석구 총장을 비롯한 한병삼

전 경주박물관장, 황수영 전 총장, 황상주(미술학) 경주캠퍼스 박물관장, 미술사학과 대학원생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동악미술사학회는 선학들이 그동안 이룩한 한국미술사 연구성과를 심화발전시키는 동시에 앞으로 △한국의 미술 및 아시아미술사 관련 학술대회 △한국불교미술 및 세계불교미술사 관련 학술조사·국제 학술교류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동국이 우리나라 미술사학연구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리에서 송석구 총장은 '뉴밀레니엄시대의 불교와 문화'를 주제로 창립총회 특별강연을 하였다. 이날 장충식(미술사학)교수를 초대 화회장으로 선출했다.

## 중앙도서관 단축 운영 개방시간 소폭 조정돼

중앙도서관(관장=조용길·불교학)이 지난달 20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동계방학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1층 멀티미디어실 △2층 과제도서실·불교학자료실 △3층 참고도서실·정기간행물실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각 열람실 개방시간은 방학전과 변동이 없다.

한편 지난 학기와 달리 점심시간인 오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각 자료실의 대출과 반납이 가능하다.

## 발전기금 기부자 VIP 카드 이용혜택

대의 협력처(처장=한보광·불교학) 발전기금팀은 신년계획으로 기부자들에게 VIP카드를 배부할 예정이다.

이 카드는 학교시설 이용과 본교 산하병원의 진료비 감면 등 현실적 예우를 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와 관련해 발전기금팀의 한 관계자는 "기부자 예우를 통해서 일반 기부자 유치를 늘리고 전국 주요사찰 홍보활동으로 불자 중심의 기부자 발굴에도 힘쓸 예정이다"고 전했다.

# 총학생회 선거 투표자 과반수 미달로 무산

## “대행기구구성으로 2000학년도 등투, 학내복지문제에 대비해야”

지난달 1일 제17대 총학생회 선거가 43.94%의 저조한 투표율을 보여 무산된 이후 공식적인 차후대책 논의가 미뤄지던 상황에서 지난달 23일 방중 1차 중앙운영위원회(위원장=이상섭·별교4 이하 중운위)가 총학생회에서 열렸다.

총 10명의 단체 및 자치기구 신·구학생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중운위의 안건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구성 △신·구간부 상견례 등이었으나 명확한 결론을 짓지 못한채 마무리 지어졌다.

이날 중운위에서는 총학생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중에 전개되어야 할 2000학년도 등록금 투

쟁과 학내복지 사업 전개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공동직무대행 기구구성에 중점을 두어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이상섭 총학생회장은 오는 3월로 연기해 가질 총학생회 선거 및 방중 사업전개를 위한 차후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상해(생물4)16대 총대의장은 △비대위 구성 △현 총학생회장 연임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상섭 총학생회장은 “현재 방중 전개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등록금 투쟁이며, 이를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중운위 위원 주축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구성 또는 하나의 단체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방향

이 옳을 것”이라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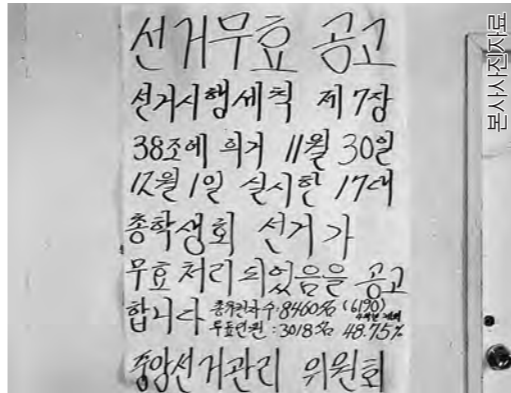
정재훈(사복4)인문대 학생회장은 “공투본 구성시 집행부 개개인의 책임이 커지는데에 대한 한계가 따라 총학의 사업을 대신할 수 있는 공투본과 비대위를 함께 조직화해 나아가 할 것”이라며 “다음해를 이끌 어갈 사업의 주체는 신간부의 몫”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지난달 27일 2차 중운위를 개최해 신·구학생회장이 함께 모인 가운데 공동직무대행기구를 구성해 회의가 무산됐다.

이번 중운위 역시 지난 한해동안 중운위 위원의 불참으로 매번 무산된 중운위 위상과 별반 다를바 없

었다. 이는 발전없는 중운위라는 지적은 물론 대다수 신간부의 불참은 앞으로 운영될 중운위의 모습을 짐작케해준다는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중운위 위원들은 총학생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0학년도 신입학 전형이 치러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불 때 등록금투쟁과 학내복지문제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며 조속히 공동직무대행기구를 구성해



총학생회 선거 무산 이후 명확한 차후 대책이 없었다.

차후 방중사업전개에 보다 신경을 기울여 할 것이다.

김미영 기자  
candy@mail.dongguk.ac.kr

# 국악예술단, ‘한민족 해맞이 축전’ 공연

## 영국 BBC방송국 등 생중계...본교 위상 높아질듯

본교의 동국국악예술단(단장=박상진·국악과)은 지난달 31일부터 오늘(1일)까지 포항시 대보면 호미곶에서 새천년 맞이 ‘한민족 해맞이 축전’ 국가행사 축하공연을 가졌다.

경상북도 포항시 주최로 국내 주요인사 및 전국 20만명의 관광객이 참여한 가운데 치러지는 이번 행사는 △새 천년을 위한 서곡-신을 내리는 소리 △국악·관현악과 민요-밀양이리랑, 경북곡타령, 진도이리랑, 강강수월래 △새 천년을 위한 축원무-신을 부르는 소리 등을 동국국악예술단이 1시간 20여분 동안 단독 공연을 가진다.

또한 이날 행사는 국내 주요 방송국 및 영국 BBC방송국의 생중계

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방영돼 본교 홍보 및 위상 정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본교 국악과는 지난 95년 전통국악을 발전시킨다는 취지로 설립돼 지난 98년 동국국악예술단으로 정식 창단했다.

현재 국악예술단은 △국악관현악단 50명 △무용단 40명 △창극단 30명 △농악단 20명 △실내악단 10명으로 구성돼 지금까지 4회의 정기연주회를 비롯한 △경주 신라문화제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전야제 △대한민국 국악제 △국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일본나라시 초청공연 △MBC청소년 음악제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해맞이 축하 공연과 관련해 박상

진 단장은 “경북지역 경북도립국악단과 대구시립국악단 외에도 많은 국악단이 활동 중인데 반해 창설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 기쁘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 사복, ‘제1기 참사람 봉사학교’ 실시

사회복지학과(학과장=박경일)는 지난 달 27일부터 30일까지 경주지역 중·고등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본교 사회복지학과 실습실에서 ‘제1기 참사람 봉사 학교’를 가졌다.

체계적인 봉사활동과 자원봉사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행사는 △재활용품 수거 △사회복지시설 방문 봉사 △장애인 체험 △수화교실 △레크리에이션 △시청각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됐으며, 이날 방문한 사회복지 시설은

경주 소재 나사렛 요양원, 예티 센터, 천우 장애인 등이다.

또한 참사람 봉사학교에 참가한 모든 학생들에게는 자원봉사 20시간 인정 및 수료증과 뱃지 수여 등의 혜택이 주어졌다.

이와 관련해 사회복지학과와 한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자원봉사 점수 획득만이 목적이 아닌 올바른 봉사 의식을 심어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 사찰조경 연구소, 제3회 정례 학술회의 개최

사찰조경연구소(소장=홍광표·조경학)는 지난달 18일 오후1시부터 6시까지 도서관 3층 교육매체실에서 ‘불교사의 건축과 조경’이라는 주제로 제3회 정례 학술회의를 가졌다.

전통사찰 조경의 연구 및 정체성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 이번 회의에서는 △불교사 조경의 문제-홍광표(동국대 조경

학), 이상윤(사찰조경연구소 객원 연구원) △불교사의 건축적 복원-김봉건(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실장)의 4명의 논문발표가 이어진 후 △동아대 강영조(조경학)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신창수 소장 △이화여대 문재신(건축공학)△순천대 이정(조경학) △밀양대 이호열(건축공학)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 황순구 교수 도서 일만권 기증

송석구 총장이 황순구 교수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다.

황순구 교수(한문학)는 다음달 정년퇴임을 앞두고 본교발전과 후학들의 학문정진을 위해 도서 1만여권을 도서관에 기증했다.

기증된 도서는 시집 3천권, 일 반학술지 3천권, 기타논문 4천권 등으로 이번 새학기부터 본교 재학생 대출이 가능하며,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송석구 총장은 지난 28일 황교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도서관의 한 관계자는 “상당한 양의 알찬 서적을 기증받게 되어 기쁘다”며 “학생들이 많이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관산연,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 제1회 엑스포 단점 보완·개선 및 지역 발전 도모 계획

관광산업연구소(소장=서태양·관광경영학)는 오는 2월 16일 오후 1시 경주힐튼호텔 대 연회장에서 ‘2000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해 제1회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단점 보완·개선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심포지엄의 결과를 활용한 엑스포 준비를 목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행사는 개최식을 시작으로 1부에서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마케팅

전략 및 이벤트 프로그램 개발방안을 2부에서는 △외래 관광객 유치 방안을 논의하며 3부에서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경주시민 참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총합 토론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행사와 관련해 서태양 소장은 “이번 학술심포지엄으로 지역 중심 대학으로 자리매김하며, 지난해에 이어 지역발전이 지속적으로 도모를 주는 것은 큰 의의로 남을 것”이라 말했다.

# 창업보육센터, TBI사업체 최종 선정

## 아이정보 및 대안기술, 정부자금 지원 받을 예정

창업보육센터(소장=황윤식·회계학 이하 창업센터)는 지난해 TBI(신기술보육사업)사업 서류심사에 합격한 5개 업체 가운데 지난달 19일 △아이 정보기술(대표=문태수 교수·정보산업학) △대안기술(대표=손문탁)의 두개 업체가 최종 선정돼 각각 7천 6백만원, 9천 2백20만원의 정부자금을 지원 받을 예정이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안기술의 대표는 “현재 개발중인 축소형 당 분석기는 정부가 원하던 기술 집약적 사

업이라는 것이 장점으로 작용한 듯하다”며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들은 충분한 기술과 산업 현장 참여로 경험을 쌓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16일 마감된 제2차 입주업체 선정 결과 정보통신 분야에서 △아이정보기술(대표=문태수 교수·정보산업학) △INFOCERT(대표=송유진) △HIGHEND(대표=박동현) 기타 분야에서 △ENVIRO21(대표=이정규) 등 총 4개 업체가 새로 입주하게 되었다.

# 생활관, 오는 20일부터 4일간 개방

## 남학생 5백61명, 여학생 3백67명 수용

금강생활관(관장=김복순·국사학)은 2000학년도 정시모집전형 중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4일간 생활관을 개방한다.

접수는 직접방문 및 전화·온라인 접수 등이 가능하며 지난달 28일부터 선착순으로 받고 있다.

접수금액은 1인 기준 △1박2일(2식)=1만9천5백원 △2박3일(5식)=4만1천5백원이며, 침구류는 선착순 2백50명에 한해 5천원의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한편 선착순 2백50명여의 수험생은 침구류를 개인 지참 해야하며 공공시설물 분실 및 훼손이 발생할 시 변상조치 해야한다.

또한 생활관 수용 인원은 남학생 5백61명, 여학생 3백67명이며, 가족 동반시 3인 1실도 가능하다.

생활관 개방과 관련해 한 관계자는 “수험생들의 편의와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실시되는만큼 수험생들의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 경주병원 장례식장 착공

본교 경주병원(원장=정필현·정형외과)은 지방도시의 장례문화 전파를 목적으로 지난달 14일부터 의화관 주차장 뒷편에서 경주병원 장례식장 착공에 들어갔다.

서공건설의 시공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사는 총 건평 8백49평으로 △분향·접객실(7실) △장례용품 전시실 △식당 △장례식장 등으로

장례식장 내부가 구성될 예정이며, 약 1년여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완공된다.

이와 관련해 의료원의 한 관계자는 “기존의 장례식장 보다 10배 이상의 규모를 자랑하는 장례식장이 생겨 경주시민들의 불편함이 보다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 비구 수행관 석림원 도서관 도서기증

1. 기증품 내역 : 모든 도서자료(경전, 단행본, 월간지 등등)
2. 계좌번호 : 제일은행 755-20-353045 예금주 : 김동욱
3. 보낼 곳 : 경주시 석장동 707번지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비구수행관 석림원 우 : 780-714
4. 전화번호 : 0561-779-0563 / 팩스번호 : 0561-779-0570
5. 휴대폰 : 011-9853-1028 / 담당자 : 慧明학인

### 경주캠 석림회

### 금강생활관(기숙사) 신입생 선발

가. 입사자격: 2000학년도 입학전형에 합격 후 등록을 필한 남·여 신입생 나. 선발일정 및 구비서류 안내

1. 입주신청자격

전형구분	원서교부기간	접수기간
특차(전반기, 후반기) 모집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00. 2. 3(목)까지	2000. 2. 1(화)~2. 3(목) 17:00까지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최종 등록 마감일까지	최종 등록 마감일 17:00까지

- (1)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 지원서 교부 안내 및 접수 방법
  - 1) 금강생활관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생활관 지원서 CGI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접수 가능하며 공지사항에서 down load받으신 후, 우편접수 또는 한글문서로 첨부된 전자메일(webmaster)로 접수 가능함. (금강생활관 web site는 http://wwwk.dongguk.ac.kr/~domi)
  - 2) 수신처 Fax번호를 알리면 Fax로 송·수신 가능함. [Fax (0561)779-0107]
  - 3) 본 생활관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함.
- (3) 구비서류
  - 1) 생활관 지원서(별첨 소정양식)
  - 2) 증명사진(3x4cm,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1매

※특기사항 내역 기재자는 반드시 해당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터넷 접수를 제외한 접수시에는 지원서에 반드시 도장 또는 서명을 할 것.

다. 선발일정

- 1) 불교신자를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 2) 각 학부(과)별 배정인원에 따라 성적순으로 남·여 구분하여 선발.
- 3) 신체 장애자는 특기사항에 반드시 기재할 것.

라. 합격자 통보 : 2000학년도 2월중 각 가정으로 우편 또는 유선 통보함. (불합격자 포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강생활관 관리팀 사무실(☎0561-779-0104~6)로 문의 바람.

### 경주캠 금강생활관

### 웹 전문가 대 모집

- 응시자격 : 대학(원)생 누구나
- 전형방법 : 동대신문 홈페이지를 독창성이 돋보이도록 제작, 디스켓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시, 자기소개서 및 연락처를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마감 : 2000년 1월 31일
- 발 표 : 개별통보
- 본사 웹기자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동대신문사

### 컴퓨터 실습실 방중 개방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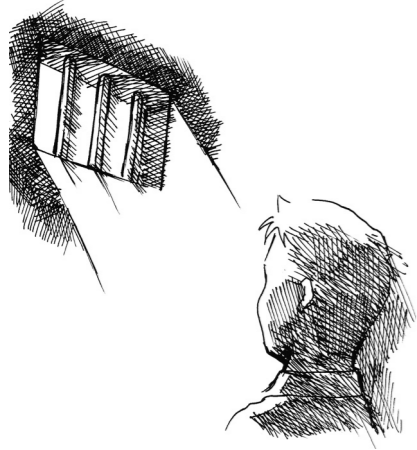
99년도 동계방학 중 단축근무로 인해 컴퓨터 실습실 개방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오니 이용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1. 기간 : 99. 12. 20 ~ 2000. 2. 29
  - 가. 개방시간 : 오전 10:00 ~ 17:00
  - 나. 개방 가능한 실습실 : 도서관 컴퓨터실A, B
2. 기타사항
  - 가 재학생에 한해 실습실 사용가능.(외부인 출입통제)
  - 나. 사용중 실습실에 음식물 반입 및 잡담 금지.
  - 다. 실습실에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금지.

### 경주캠 정보관리실

동약로

밀레니엄 구축



“야 새천년이다.”  
 “우리도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밀레니엄 맞이 대 바겐 세일”  
 이 말은 모든 매체를 통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모든 광고와 주요뉴스에서 등장하고 있다.  
 2000이라는 숫자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해 많은 행사와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정권에서는 정치수배자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고자 함인지 21일까지 자진 출두하면 수배를 해제해 주겠다는 말을 조계사 농성단으로 전했다.  
 “크리스마스는 잘 보냈는지 또 추운데 어떻게 지나나 싶어 잠시 들렀는데 아무도 없네요.”  
 “벌써 3명이 구속됐는데 아마 금방 풀려나시겠죠”  
 이제는 수배자가 지키는 농성단의 모습은 볼 수 없는 것이지.

그동안 농성단의 선두에서 큰 힘을 발휘하던 유병문(불교학 96졸)씨등은 나머지 사람들의 수배해제를 담보로 구속수감 됐다.  
 정권에서 내세운 수배해제가 바로 이런 것인가?  
 국가보안법으로 세기말 마지막 구속자가 탄생한 순간이다.  
 아마 또 다른 누군가가 국가보안법 위반 밀레니엄 구축자로 탄생할지 모른다.  
 새천년을 맞이하고 새세기를 맞이하는 이때 여전히 국가보안법의 쇠사슬아래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구속수감된 상태로, 수배자의 문과 은폐된 생활로 청춘을 보내고 있다.  
 다가오는 밀레니엄시대에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국가보안법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기를 기대해 본다.

양경인 기자  
 yangkang@cakra.dongguk.ac.kr

정권의 폭력으로 얼룩진 2·3차 민중대회

# “민중을 외면하는 정권은 물러가라”

## 민중, 새천년의 11대 요구안 제시 정권, 폭력진압으로 맞서

“새천년에는 민중의 목소리가 하늘에 닿을 수 있을까”

99년 2차 민중대회가 지난해 12월10일 서울역에서 민주노총, 전농, 전국연합, 전빈련 등 사회단체와 노동자·농민·학생 등 2만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사전 행사로 진행된 농민대회에 이어 이번 대회는 △농가부채 완전해결 △WTO수입개방 반대 △민중생존권사수 △노동시간단축 △국가보안법 철폐 등 11개 조항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본행사에서 전농 사무총장 유상옥씨는 WTO협상에 관해 “우리는 지난 94년 UR협상으로 많은 고통을 받은 경험이 있다”며 “현 시기처럼 경제자립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수입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농업을 완전히 포기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IMF이후 도입된 정리해고, 공기업민영화 정책으로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총체적 개혁을 요구했다. 한편 대외장은 농가부채 해결, 민중생존권 보장 등 수많은 개혁과제를 해결하지 않은 정부에 대한 대정부 투쟁 열기로 고조됐다.

마지막으로 결의문을 통해서 단병호 민주노총위원장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지금까지의 국회 입법투쟁을 중단하고 김대중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히며 강한 투쟁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대회의 열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본행사가 끝나고 서울역에서 퇴계로를



서울역에서 열린 2차 민중대회의 모습.

거쳐 명동성당까지 1.9km 가두행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3시간 가량 격렬한 시위와 경찰의 진압이 있었다. 이 중 1백여명의 학생들과 질서유지선을 지키던 여경들이 중·경상을 입었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심한 부상을 입은 한 학생은 오른쪽 안구 파열로 실명 위기에 있다고 전한다. 이에 따라 민중대회 주최측에서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마련해 민중대회 탄압에 대한 규탄대회를 명동성당에서 진행하였고, 과잉폭력진압에 대한 법정 소송을 준비하는 등 이후 대책 마련을 조속히 실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날 12일 한총련 소속 대학생과 농민 등 모두 67명을 연행해 이 가운데 6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이무영 경찰청장은 “평화시위 정찰을 유도하되, 불법 폭력시위자에게는 법에 따라 사후에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날 18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3차 민중대회가 열렸다. 이는 2차 대회의 연장선상으로 △생존권 사수 △국가보안법 철폐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했다.

연대사를 통해 단병호 민주노총위원장은 “임시국회에 국보법 율해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요구를 전면적 수용하라”고 강조했다.

이 날 시위대는 체감온도 영하 15°C의 추위만큼 시민 정부의 외면을 향해 민중의 요구를 소리 높여 외쳤다. 집회 후 민중들의 국회진입시도는 30여분간 지속되었으나 경찰의 저지로 자진해산했다. 이번 3차 민중대회는 2차 대회의 유행사태를 의식한 듯 다소 소극적인 모습이었다. <윤

7기 한총련 윤기진 의장 인터뷰

# “대중화 노력속에 정치투쟁은 소홀”

## 통일조국 그리며 살아야 할 터

- 7기 한총련에 대한 평가를 간략히 말한다면.

= 한총련은 모든 민중들이 요구하는 투쟁을 하고자 했으며, 하반기 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왔다. 그 속에서 학생회 일꾼들이 대중속으로 들어가려는 모습속에서 많은 성과와 과제를 남기게 됐다. 학생회 사업에서 손도장찍기, 마라톤대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과 함께 하려 했지만 지나친 대중화 노력으로 인해 정치 투쟁을 소홀히 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 2천년 학생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 내년으로 선거가 미뤄진 대학도 있지

만 대체적으로 선거가 마무리되었다. 전국의 대학선거 정책을 보면 학생들의 정치적 수준이 매우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두드러진 특징은 비운동권이 대거 당선 되었다는 것이다. 성, 사회, 문화운동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가 자치 학생운동이 담당해야 할 정치투쟁을 소홀히 하게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정치적 투쟁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올바르게 투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8기 한총련에 대한 전망은.  
 = 2천년 학생회선거를 통해 아래로 부터 한총련이 건설되어 가고 있다. 한총련 대의

원들이 선출됐고, 8기 한총련 중앙상임위가 건설되어 가고 있으니 곧 임시체제로 돌입할 것이다.

-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올해는 조국통일을 향한 투쟁을 중심으로 벌어왔다. 이제 조국통일은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막막함에서 ‘통일의 실현’으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백만청춘 모두가 가슴속에 통일된 조국을 그려보며 빠른 시일안에 통일을 이루려고 말겠다는 의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7기 한총련 윤기진 의장

사회부

### 이주의 열사



박종철 (당시 22세)

1984년 3월 서울대에 입학한 박종철 열사는 언어학과 학생회장을 맡으며 학생운동을 전개, 민주화 실천

의지를 굳혔다.

전두환 정권이던 86년 4월 ‘청계피복노조 합법성 쟁취대회’ 가두시위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그는 87년 1월 13일 당시 수배중인 민주위 지도위원 박종운과 몇차례 만났고 이를 주시하던 치안본부 수사관은 열사를 연행했다. 다음날 인 14일 물고문, 전기고문을 받은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검진당시 숨겨져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고문 사실을 부인했고 치안본부는 은폐를 도모했다. 이에 6월 10일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는 ‘박종철 고문은폐조작 및 호헌선언 반대 범국민대회’를 열어 은폐사실을 밝혔고 마침내 전두환정권은 6.29선언으로 끝을 맺었다.

### 사회단신

## 재능교육 노조 조합원 5명부상

### 노조,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빚어진 일”

지난 11월 29일부터 한달 가까이 전면 파업을 실시하고 있던 학습지 교사 노조인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수복)이 27일 오후 3시부터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와 노조탄압에 항의하기 위해 해화동 재능교육 본사에서 집회를 개최한 후, 항의방문을 위해 본사에 들어갔다 경찰측의 폭력진압으로 인해 조합원 다섯명이 큰 부상을 입고 병원에 실러가는 사태가 발생했다.

재능교육 노조는 △위탁계약서 폐지 △관리에계금 폐지 △최저생계비 60만원 보장 △교사 노조 인정 △재능교육노조 인정 및 협상 타결 △해직교사 9명 복직 등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번 경찰과의 충돌과 관련해 노조측은 “경찰의 저지선을 넘지 않았는데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 유가협 지난 12월 30일 해단식 가져

### 특별법 제정에 따른 결정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1년여간 의문사건수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여왔던 유가협 농성단이 지난해 12월 30일 해단식을 가졌다.

이번 농성 해제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2시부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과 의문사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

법안이 모두 통과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번 농성 해제와 관련해 유가협측은 “이제 새로운 상황과 조건에서의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도 자유, 평등, 민주주의를 향한 헌신적인 투쟁의 과정에서 거듭 발전하는 유가협이 될 것”이라며 이번 해단식이 유가협 투쟁의 끝이 아님을 강조했다.

## 장기수 김영태씨 영장 제시없이 강제연행

### 통일농구대회 참가 저지를 위해... 경찰 책임 추궁 이뤄져야

지난해 12월 24일 새벽 3시경 광주 두암동 ‘통일의 집’ 앞에서 장기수인 김영태씨가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형사 10여명에 의해 체포되었다가 이날 오후 2시경 풀려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김영태씨는 서울에서 열리는 통일농구대회를 보려고 새벽기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가고자 했던 길이었으며, 체포당시 형사들은 영장제시도 없이 봉고차를 이용해 강제로 연행된 것이다.

강제연행 후 이날 오전 10시경 민가협을 비롯한 시민·인권단체회원 40여명이 동부경찰서를 항의방문 했고, 방문단과

의 면담자리에서 동부서측은 “미전향장기수 송환대상 0순위인 김씨가 북측 관계자를 만나 송환을 요구하거나, 북한측의 카메라에 찍힐 경우 대회 진행에 차질이 생길 지도 모른다고 판단한 상부의 지시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나무누리 ID ‘이카’를 쓰는 한 네티즌은 “아처구니 없는 경찰의 납치극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며 “해당 형사와 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책임 추궁과 처벌, 그리고 경찰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주적 · 일상적 투쟁위해 정보화 필수

## 자본 · 기술 부족으로 일부 사업장 이용 부진 ... 활성화돼야

### 노동운동에서의 정보통신 활용 현황

노동운동에서 통신이란 매체에 관심을 갖고 활용해 온 기간은 약 4년여에 불과하다. 95년 한국통신 파악시기에 통신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투쟁지침과 소식이 전달되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지켜보았던 노동운동 진영은 정보통신의 위력을 비로소 실감하게 되었고 우후죽순 격으로 통신망에 폐쇄이용자 그룹(Closed Users Group : CUG)을 개설하게 된 것이다.

지난 4년간 노동운동 진영에서 정보통신 이용은 놀라울 정도로 늘어났고, 1998년 독립네트워크인 진보네트워크가 건설되면서 가속도가 붙어 1년의 기간동안 50여 개가 넘는 노동조합, 현장조직, 노동단체들의 CUG가 노동네트워크에 개설되었다.

올해 서울지하철 파업을 위시한 공공연맹 총파업 당시 노동네트워크가 구성한 '고용안정 통신단'은 총파업 상황을 거의

실시간으로 알리고, 현장의 투쟁 모습을 그림파일과 음성파일, 동영상파일 등으로 전국 각지에 생생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또한 노동조합에서 인터넷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어 현재 파악된 것만도 42개 정도가 된다. 홈페이지의 증가는 최근 1·2년 새에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적인 분위기와 더불어 인프라의 구축(전용선의 확장 등)이 큰 역할을 했다. 최근에는 사측의 필요에 의해 인터넷(사내통신망)의 구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동조합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조합의 게시판 구축을 해 나가고 있다. 인터넷은 접근이 훨씬 쉽다는 장점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중이다.

의외노조나 금융결제원노조, 한국통신노조 등은 인터넷을 통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조합의 활동을 알려 내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홈페이지의 구축 또한 자본의 필요에

의해 전용선이 깔리는 회사가 많아지면서 노동조합에서 대응을 서두르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전용선 구축이 필수적인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많은 노조가 홈페이지를 통한 의사소통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운동 내에서도 정보화의 진행은 각 노조나 연맹별로 많은 차이가 있다. 노동조합의 간부들 중에는 아직도 컴퓨터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 노동조합의 CUG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활발하게 조합원들의 의견이 올라오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다. 특히, 연맹이나 큰 노조가 아닌 작은 단위사업장의 정보통신 이용은 매우 부진한 편이다.

### 노동자가 만드는 정보화 세상

사실, 정보화는 자본의 투자를 전제로 한다. 컴퓨터를 구입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과정은 또한 기술을 필요로 한다. 자본과 기술이 모두 부족한 노동운동 진영에



김혜경  
노동정보화사업단

게 정보화는 부담으로 다가온다. 지금도 노조 진입자 임금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우리로서는 과감하게 컴퓨터를 들여놓

으라는 이야기는 매우 비현실적으로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나라 노동조합이 산별을 지향하고 있는 마당에 정보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전국적인 조직에서 소통과 의견수렴의 장으로서 정보통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히 우리 곁으로 다가올 것이다.

노동조합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가 그것 자체로 민주적이며, 조합원의 입장에서 철저히 일상적인 투쟁을 전개하는 프롤레타리아 공동체로 기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참여에 달려있다.

## 사설

###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흔히 세기말이라 불리는 기묘년이 저물고 경년년이 밝았다. 지난 세기동안 우리 민족이 지나왔던 길을 되돌아 보면 그야말로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다. 나라를 빼앗기기도 했고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치르기도 했다. 이후 개발독재를 참았던 대가로 얻었던 얼마간의 경제적 윤택에 대한 열매를 골고루 나누어 보지도 못한 채, IMF 지배 경제라는 재앙 속에서 세기말을 맞았던 것이다.

단군 이래 수천년동안 존재했던 많은 왕조들과 그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흥망성쇠의 역사로 볼 때, 지난 세기의 일들도 흔히 있을 수 있는 역사적 단편들로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수백 년 전의 사실들이 아니라 바로 엇그제의 일들을 생각할 때, 요즈음 우리가 맞고 있는 위기상황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 같다.

지난 세기 동안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은 대부분 내부의 분열과 그것을 외부의 힘을 빌어 해결하려 한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일제의 강점과 6.25통란을 봐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큰 일들이 해결되고 난 후, 우리가 짊어진 짐이 너무나 크다는 데 있다. 외부의 힘에 의해 초래된 결과는 지금 그들조차도 해결할 능력을 상실한 채, 결국 우리 민족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음을 보고 있다.

그러나 세기말 우리가 맞이한 경제적 위기는 자기 중심의 잘못된 의식 구조가 근본 원인이라 생각한다. 경제적 위기는 또다시 열심히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겠지만, '세계라는 하나의 큰 시장 속에서 한국인이라는 불변의 기본 단위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우리가 20세기에 겪었던 어려움들을 볼 때, 그것을 극복하는 힘의 원천은 종래 우리가 가졌던 발상의 큰 전환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이 든다. 개인의 권력욕이 앞서 나라의 장래를 망쳤던 지난 날을 살펴 볼 때, 개인의 물질적 욕망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요즈음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군국주의 사회에서의 '권력욕'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적 욕망'으로 바뀌었을 뿐, 그것이 분수에 넘치면 가정이란 국가든 결국 파탄의 지경에 이를 수 밖에 없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20세기가 지나고 21세기가 시작되었다. 21세기를 살아갈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과거 부모들이 살았던 지난 세기에 비해 다행히 더 희망적임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를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한 세기를 반성하고 새로운 세기에 대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사회의 여러 곳에서 이러한 움직임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21세기의 사회는 경쟁을 통한 적자생존의 논리가 지배하는 구조로 빠르게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벌써 대기업 사이에서는 연공서열식 인사제도가 점차 사라져, 능력에 따라 승진이나 임금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학도 여러 가지 면에서 빠르게 변하고 있다. 학문들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고, 사회의 수요에 따라 학문을 평가되는 시대에 이르게 되었다.

경쟁은 조직의 발전을 촉발하는 지름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무조건적인 경쟁은 인간성의 상실을 초래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패자를 감싸는 아량이 넘달라 부족한 우리로서는 승자와 패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1세기의 주인이고 실제로 세기의 초반을 경영해야 할 우리로서는 지난 세기의 잘못된 역사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또다시 부끄러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21세기 세계 역사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모든 의식을 바로 가다듬는데 있다.

전국사립대학교 등록금 인상

## 교육부, 등록금 인상 기정 사실화

### 특정학교 집중지원 나머지는 '자력갱생'

"빈곤층 1천만 시대 물가상승률은 5% 전국사립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15%"

전국 대학가를 휩쓸고 있는 '등록금 인상'의 바람이 그 어느 때 보다 차갑게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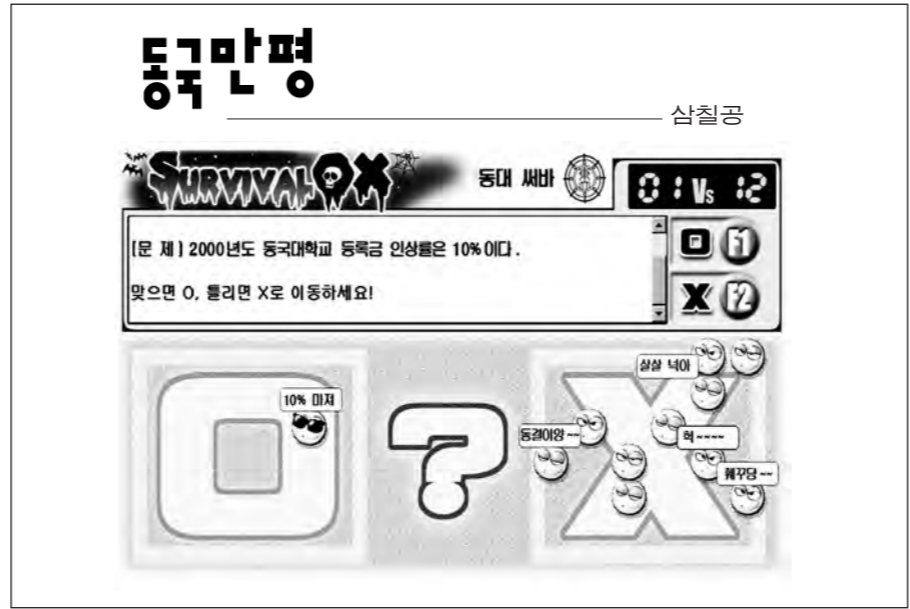
김대중 대통령의 '대학자율화' 정책으로 지난 학기에는 수업료와 기성회비 통합문제가 논란이 되더니, 신입생을 유치하는 요즈음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이 신입생들에게 인상된 금액으로 책정된 등록금 고지서를 발송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이는 2000학년도 등록금인상에 대해 기정사실화 한 것이며, 이 일과 관련해 각 대학 학생회는 '등록금 인상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2000년도 총학생회 선거과정에서 각 대학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은 '등록금 문제'였다. 기성회비와 수업료 통합에 대해 각 대학 총학생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성회의 회비를 수업료와 함께 통합 고지하고자 하는 것은 수업료 인상의 전주폭"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교육재정 6%확보'는 지켜지지 않은 채

사립대학의 재정난을 학생들에게만 떠맡기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현재 각 대학 등록금 인상현황을 보면 연세대와 고려대는 각각 14.5%와 15%의 등록금 인상을 발표했으며, 본교 역시 13%정도의 인상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대학측은 등록금 인상의 근거로 국공립대학 위주로 채택된 BK21이 야기할 사립대의 재정문제, 등록금이 동결된 지난 2년 동안의 물가상승, 교육환경개선 등을 들고 있다. 본교 기획인사팀의 김준호 팀장은 "BK21의 몇 개 분야에 선정되기는 했으나 타 대학에 비하면 적은 액수이고, 도서관 건립과 2년동안 동결한 교직원들의 임금인상 부문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본교 역시 등록금 인상여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생들은 "매년 다음해 등록금 인상의 지포가 됐던 물가 상승률이 올해는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IMF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매체의 호들갑스런 경제 회복소식은 최근 빈민층이



전국민의 1천만을 웃돈다는 통계를 통해 그 허망함을 드러내고 있어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승복(반도체과학3) 본교 서울캠 총학생회장은 "경제가 현실적으로 풀릴지 의문이 가는 상태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대학자율화' 방침은 BK21 사업으로 특정 대학에 교육재정을 몰아 주고 나머지는 '자력갱생' 하라는 식의 공교육 포기 선언으로 들린다"며 "전국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대정부투쟁으로 나아갈 것"을 시사했다.

본교 역시 2000학년도 신입생들에게 이

미 수업료와 기성회비가 통합고지돼, 등록금 인상과 함께 수업료와 기성회비의 통합은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환경 개선과 강의의 질, 그리고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모있는 여러 가지 사업추진을 고려할 때 사립대학의 자금사정이 비록 넉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월적립금이 남겨진다는 사실이 공공연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에 대해 수긍할 수 있는 이유는 얼마나 될까?

김진아 기자  
ring@cakra.dongguk.ac.kr

동국발전기금 조성총액 1999년 12월 27일 현재

421억 5,869만 5,775원

“여러분의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동국발전기금 기부(약정)자 명단

(기간 : 1999. 10 - 12. 27)

발전기금

3백만원 조규, 2백만원 김덕분, 1백23만원 김봉균, 1백만원 이하 고재길 문영희 김영호, 50만원 임주석, 20만원 김진하 성광호, 5만원 이하 김광수 한상현 정해련

불교종합병원건립기금

1억원 서정임 익명, 5천만원 유광욱, 2천60만원 한국 R. F., 1천만원 권철현 김광진 김수성, 3백50만원 경영대학원, 3백만원 김경숙 정현철 최광순, 2백50만원 이송월, 2백만원 김경연 김규현 김병진, 1백50만원 이하 강용태 김광탁, 1백만원 강영숙 고경부 고영일, 1백만원 이하 김호신 정경수, 10만원 김광자 고창원 권오구, 10만원 김삼섭 김순집 김용배 김용석, 10만원 김진식 김천수 박성수 박현동, 10만원 배보영 백우현 봉은사봉은친목회 송동선

송정규 안성호 안재수 약천사, 양입분 오순분 왕광욱 유현의, 유혜순 윤산화 윤중구 윤호석, 이순연 이운석 이광명지, 이운자 이인길 이입노 익명5, 익명991214 장인석 최병대, 최복수 최인기 통화사신도일동, 한영취 한주용 현해룡 홍순영, 황성호 황효석, 9만원 이하 박관호 윤용대, 이미지 이종철 정효연 최효영, 황종근 이승민 차상환 최영태, 김범수 서옥순 이원식 차성부, 황성문 박환오, 5만원 경희순 공갑수 김동민, 김봉순 김순임 김옥희 김응태, 김재호 김지곤 김진위 김형철, 나동찬 민경문 박시중 배봉애, 신종식 박자애심 신호 안병구, 안영순 여분구 우종식 원영자, 이상규 이종태 임한선 정순영, 조대홍 지은혜 최재혁 최찬선, 조대홍 지은혜 최재혁 최찬선, 4만원 이하 고경순 김경애 김진, 서경애 이종훈 이효순 이희자, 박준영, 3만원 강오순 강형철 공배선, 권용호 김경남 김계현 김금열, 김덕련 김보란 김옥순 김인규, 김정옥 김정훈 김학수 김한도, 문성환 박기순 박모인 박옥주, 박용무 박운봉 성용철 송태현, 신덕해 안수연 안순신 유보향, 유종관 유대화염 이정자, 이남인 이두선 이원식 이태욱, 인종환 정용식 정현영 조선희, 조중희 지혜심 최대회 최숙희, 최인자 최충호 최필규 한금희, 한승우 한학수 허복수 홍순애, 2만원 이하 강문구 강유진, 권혁제 김경래 고반야행, 김남용 김상천 김선중 김순매, 김윤곤 김창희 김형석 나호준, 남정래 문기수 문양일 문정순, 박경호 박성욱 박수현 박순자, 박영매 박영자 박종표 박춘희, 백영철 서명자 성관 성춘복, 송춘식 신동식 신승갑 안순남, 양기욱 어동규 유연숙 유인희, 유정호 윤삼례 이경애 이봉원, 이순욱 이정숙 이정화 이진성, 이혜진 익명3 익명991213, 장봉규 전만택 정계훈 정해성, 정해련 조경익 주재수 진병무

최영애 최유혜 황주환 홍순이, 1만원 강경숙 강숙영 강영희, 강인희 강화순 고경운 고광수, 고재환 공달빈 권경순 권길선, 김광정 김기열 김덕순 김동길, 김명숙 김삼귀 김상봉 김상에, 김성모 김성중 김성호 김숙희, 김순덕 김순식 김순희 김영덕, 김영미 김영순 김영일 김옥영, 김용겸 김용기 김원정 김경숙, 김정혜 김중규 김정태행, 김종심 김중철 김창오 김태현, 김평중 나두리 남기준 노미숙, 류재기 맹재춘 문명희 문석만, 문옥숙 문문화 문재성 문정순, 민애순 박경희 박상관 박상진, 박성현 박순희 박영국 박은숙, 박은아 박일권 박정숙 박진현, 박춘도 박한춘 배상욱 배성익, 설명자 성기태 서극락화, 성지원 신경호 신기훈 신부덕, 신숙조 신하균 심형주 안준욱, 양준모 오광진 오세웅 오영애, 오창환 우재원 유민상 유석남, 유승택 유용식 유용태 유용재, 유정자 유택근 이경화 이계홍, 이광자 이규엽 이규철 이극우, 이덕환 이동건 이동항 이명숙, 이병주 이상찬 이상항 이석현, 이상희 이수익 이순욱 이순자, 이순희 이양규 이영희 이옥주, 이용임 이운배 이은자 이익수, 이재걸 이재복 이정숙 이정옥, 이정탁 이정호 이주용 이창수, 이창용 이춘화 익명6, 익명991214 일선사 임삼매시, 임종문 장명훈 장연순 전광원, 정경배 정구영 정미령 정영순, 정옥선 정원석 정재숙 정재완, 정현수 조경진 조공순 조기숙, 조병희 조연상 주용기 주철홍, 차광수 채재승 최명자 최병남, 최성호 최순이 최은은 최양남, 최영숙 최희순 하순녀 한길수, 한만식 한상락 한영섭 한창국, 함정실 해탈화 허을순 현성규, 현진봉 흥기표 흥문자 흥연순, 흥용금 흥우근 황금남 황영조, 김학순 조남오 조남욱

동국사랑저금통기금

129,210원 남병국

48,020원 김정대 45,680원 김진환, 39,850원 조재호 39,820원 박종린, 28,230원 익명 18,160원 최광제, 16,140원 신관호, 9,890원 제일은행

장학기금

2천만원 김성택, 6백40만원 에스원, 2백만원 경찰행정학과동창회, 1백50만원 이하 임규영 한국경호경비시스템, 1백만원 김영신 박병욱, 전산방법시스템POCOM, 진현섭유 최연표, 50만원 대영측량설계공사, 송정건설 원을상

특정목적기금

5백50만원 김일식, 5백만원 국민은행 이원철, 정지천 조흥은행, 3백50만원 이지관, 3백만원 최규철, 2백만원 김영종 서병수 신종문, 오영진 이대원 이석장 이시영, 이임수 이정일 장해룡 정내원, 조영석 한영환 제일은행, 흥광표 황운식, 1백만원 권오섭 김경효 김상윤, 김일영 박동연 박소혜 박정우, 방장애 백경림 서동부 신태용, 오세찬 이재환 이정묵 이태아, 전정수 조복현 최윤도, 80만원 장명근, 70만원 총동창회, 50만원 이하 구병수 김갑성, 이명중 임성우 임혁우 정희철, 한성근 외국어교육원, 30만원 권동철 김병길 김성호, 노동식 이두원 이재익 이흥구, 20만원 김명철 김창구 박유진, 문봉근 이종우 한영도 허남운, 10만원 김무홍 김용현 김중택, 박대은 박재현 서귀곤 신영순, 이임순 이재환 이태용 임용득, 장수철 장영배 정사균 최대권, 흥광금 황기석 황용득, 5만원 이하 한성를 황주환, 황영란 김의정

동국을 생각하는 작은 정성이 동국발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우리 동국대학교는 동국을 아끼시는 모든 분들의 성원과 적극적인 관심으로 새천년을 가장 발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대학교육의 질적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원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동국인들이 동국발전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동참금은 첨단기술의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에 밑거름이 될 것이며, 2천만 불자들의 숙원사업인 수도권 불교종합병원 건립과 교육시설확충등에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 동국대학교가 2006년 개교 100주년에는 '한국을 움직이는 최고의 명문사학', '세계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더욱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기금 조성 캠페인

- 만불불안운동 : 부처님을 조성하여 모시는 공덕은 수미산과 같습니다. \* 1백만원 이상 기부자께 원불법당인 '대각전'에 개인 또는 가족전체 명의로 불상을 봉안해 드립니다. \* 자비의 벽돌쌓기 운동 : 2천만 불자가 '자비의 벽돌'을 쌓으면 약사여래의 대원을 이룹니다. \* 동참방법 : 자비의 벽돌 한 장(1만원) 이상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 동국사랑저금통기금운동 : 저금통이 필요하신 분이나 저금통을 가득채운 분께서는 대외협력처 발전기금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기금용도 : 불교종합병원 건립 / 교육시설확충 / 연구 및 실습 기자재 구입 / 도서관 장서 구입 / 국가 고시 육성 후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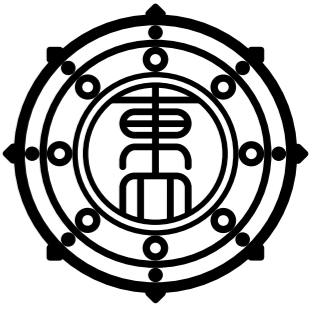
기금접수 ARS 안내

7000-119 (서울, 경기를 제외한 지역은 (02)7000-119로 하시면 됩니다) 금 액 : 전화 1통화에 5,000원(1일 중복통화는 1회만 인정) 문의처 : 대외협력처 발전기금팀 ☎ (02) 2260-3300, 2260-3792 ~ 5

기 타 납 부 방 법

- 무통장 입금(예금주 : 동국대학교) 조흥은행 313-03-002943 국민은행 068-01-0373-353 외환은행 065-13-19061-0 제일은행 107-10-119210 주택은행 491001-93-200472 한빛은행 064-032276-01-004 신한은행 216-05-005036 우체국 012328-0075465 \* 지로용지 : 지로번호 7606386, 학교로 지로용지를 요청하거나 은행에 비치된 용지 이용 \* 방문접수 : 대외협력처 발전기금팀(본관 4층) 직접 방문

# 동대문학상



## 제14회 동대문학상 입상작 발표

### ◆ 시부문

본상 **신의 열매**  
한아진(문과대 인문학부2)

가작 **냉장고**  
박수미(문과대 문창3)

### ◆ 소설부문

본상 **사슴과 나무꾼**  
강봉수(사회과학대 신빙4)

### ◆ 문학평론 부문

당선작 없음

### ◆ 심사위원

시부문 **홍신선**(문과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시인)

소설·평론 부문 **장영우**(문과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문학평론가)

## 시부문 본상 수상작

### 신의 열매

한 아 진(인문학부2)

어머니의 염주알은 자두만하다  
 밭갈게 셔문 자두만큼 탱탱하다  
 열매처럼 팔뚝에 매다신 채  
 방을 닦고 가게부를 쓰고 팔다리를 두드리시고  
 자청이면 허리굽혀 기도를 하신다  
 나는 잠든 어머니 곁에 앉아본다  
 염주알 마디마다 흰 세월이 차례로 넘어가고  
 마른 가지가 휘어서게 커버린 열매들은  
 한창 젖살 소른 아기처럼  
 어머니의 팔뚝에서 자란다  
 폐경의 나이  
 병으로 자궁을 잃은 어머니는  
 몸 속에 염주알 하나 기를 곳이 없는데  
 꿈꾸면서 웃으시는 어머니,  
 맑은 양수 가득찬 데서  
 싱싱한 자듯빛 아이를  
 건져 올리고 계신지도 모를 일이다

## 시부문 심사평

### 체험의 극화와 아이디어 시

시의 힘은 작품에 질게 묻은 체험에서 나온다. 절실한 체험이 밑그림을 이루면서 그 위에 상상이 활달하게 작동된 작품일수록 시적 울림이 큰 것이다. 당선작으로 올린 '신의 열매'(한아진)는 이 점을 본보기처럼 보여준다. 이 작품은 불모의 나이에 든 어머니와 그녀의 생산에의 꿈이 염주알을 매개로 썩 잘 형상화되어 있는 것이 앞으로의 가일층 분발을 기대한다. 한 수 밑이지만, 가작인 '냉장고'(박수미)도 짜임새만으로는 나무랄 데 없는 작품이다. 좀 산만한 앞부분이 흠이다. 그러나 폐기된 냉장고를 통해서 자신을 문득 새롭게 발견한다는 작품 뒷부분이 시적 울림을 일정정도 받쳐주고 있다. 그 밖에도 선자의 손에 끝까지 남았던 작품은 '처녀의 미끈한 다리를 보면 부러워진다'(한창호), '미용실에서'(양신애), '가을편지'(임상선) 등이었다. '처녀의 ...'는 이른바 아이디어 시지만, 다른 응모작 수준이 고르지 않았고, '미용실에서'는 아직 덜 된 글감의 육화 탓에, 그리고 '가을편지'는 생각이 어려서 아쉽지만 다음기회를 보기로 하였다. 이번 응모작의 전반적 수준은 많이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선자의 이같은 실망이 앞으로의 우리 시 발전에 큰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홍 신 선  
(문과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시인)

## 수상소감

### “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동료들이 이 상의 주인입니다”



한 아 진(문과대 인문학부2)

‘제가 문학상의 당선소감을 쓰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당선소감들을 보며 왜 당선소감은 저렇게 평범하고 똑같은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당선 소감을 쓰러니 문학한다는 것은 당선과 낙선에 달려있는 것은 아닐뿐더러 당선소감이란 것이 어깨에 힘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라, 결국 진리는 평범한 곳에 있다는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동대문학상에 응모하기 위해 그 동안의 습작품들을 정리하면서 내내 마음이 산란하고 분주했습니다. 그러다가 펼치 돌아보니 좋고 나쁨을 가려 인정을 받는 자리에 고개를 틀어밀기에는 아직은 제가 너무 작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소식에 좀 잘난 체를 해보자는 심산으로 당선소감을

을 쓰기 시작했는데 자꾸만 말문이 막히는 이유는 이 '상'이란 녀석이 뒷덜미를 붙잡고 더 많이 배우라는 조언이라고 따끔하게 귀 뜰해 주기 때문입니다.

시요? 아직 어려서인지, 밥처럼 자주 먹고 싶고 먹으면 배부르고 든든하고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게 제겐 시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을 말하면 시보다는 밥이 급하지요.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시들은, 그리고 이 순간의 기쁨은 제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시를 배우고(지금도 배우고 있고) 시 쓰는 마음가짐을 배운 곳, 동국문화회의 뒤편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술 가득 밥을 지어 그 속에서 시도 퍼내고 사랑도 퍼내고 눈물도 퍼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 시심을 삼고 물을 주고 나무를 기른 후에도 오래 열매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 제 시의 초고부터 마지막 퇴고까지 지켜보고 도와주었던 동국문화회 식구들이 당연히 이 상의 주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묵묵히 지켜보아 주신, 아직은 제 안의 많은 곳을 채우고 계신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줄을 쓰면서 까지도 부엌에 일어난 마음 가라앉을 줄 모릅니다. 더 맑은 물로 태어나기 위해 부족하지만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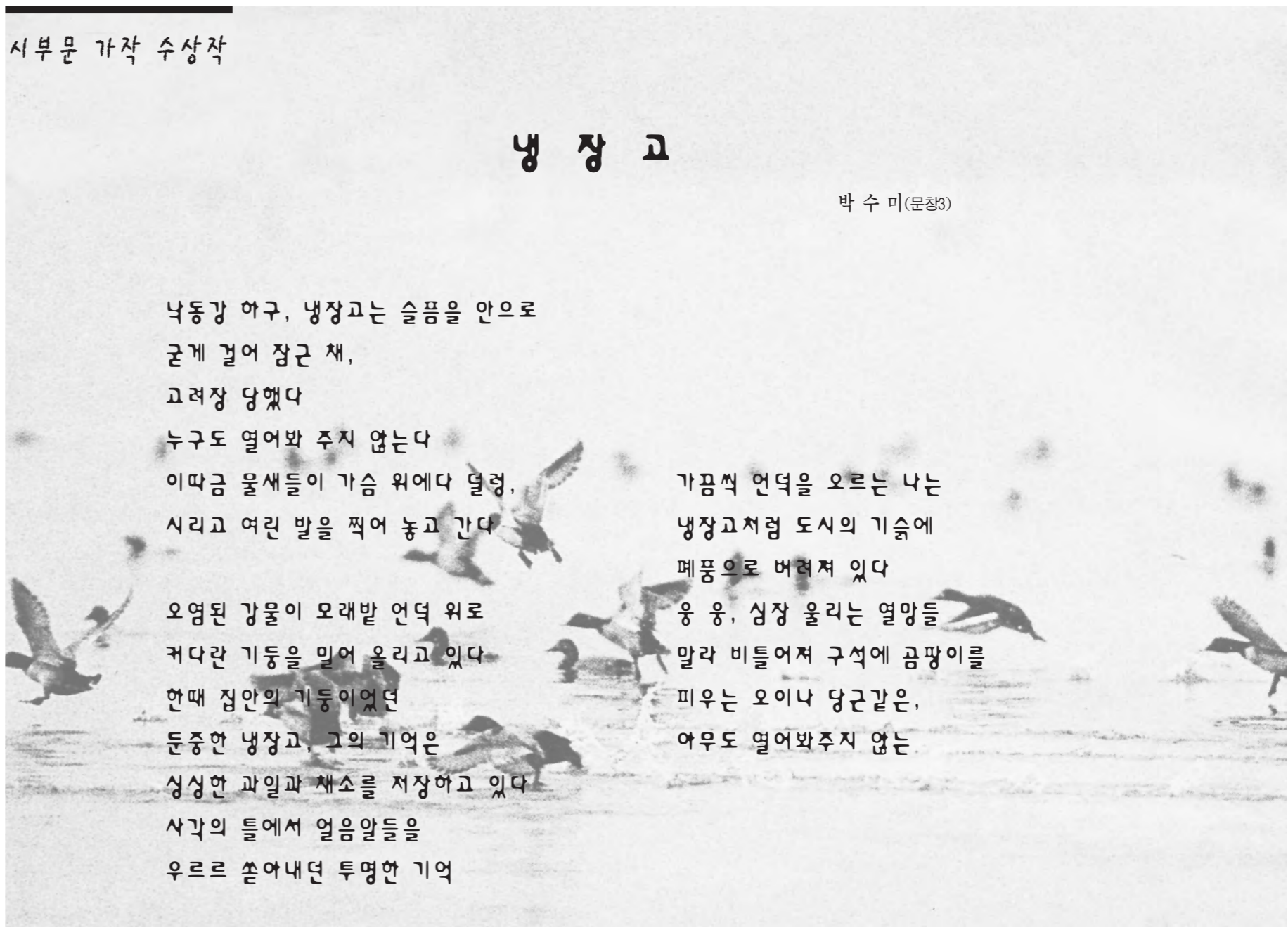
## 시부문 가작 수상작

### 냉장고

박 수 미(문창3)

낙동강 야구, 냉장고는 슬픔을 안으로  
 굳게 걸어 잠근 채,  
 고려장 당했다  
 누구도 열어봐 주지 않는다  
 이따금 물새들이 가슴 위에도 덜렁,  
 시리고 여린 발을 짝어 놓고 간다  
 오염된 강물이 오래발 언덕 위로  
 커다란 기둥을 밀어 올리고 있다  
 한때 집안의 기둥이었던  
 든중한 냉장고, 그의 기억은  
 싱싱한 과일과 채소를 저장하고 있다  
 사각의 틀에서 얼음알들을  
 우르르 쏟아내던 투명한 기억

가끔씩 언덕을 오르는 나는  
 냉장고처럼 도시의 기슭에  
 폐품으로 버려져 있다  
 웅 웅, 심장 울리는 열망들  
 말라 비틀어져 구석에 곰팡이를  
 피우는 오이니 당근같은,  
 아무도 열어봐주지 않는





# 제14회 동대문학상 수상작

소설 부문  
본상 수상작

# 사슴과 나무꾼

심사평

## 주제의식 부족 아쉬워

모두 8편의 작품을 읽었다. 예년에 비해 양과 질에 있어 흉작이라는 느낌이 앞선다. 8편 가운데 소설이라 할 만한 것은 서너 편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소설 문법의 기초가 부실한 것들이다. '동기(同期)'는 대학 동기의 처정 문제를 다룬 작품으로 사건 구성이나 대화 처리가 안정되어 있으나 지나칠 정도로 안이하고 통속적인 구석이 많다. '짜장, 짬뽕 그리고 볶음밥'은 언어를 다루는 솜씨가 비상하지만 주제의식이 희박하다. 이만한 입담으로 문장을 구사하는 재능도 예상외로 없지 않으니 좀더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사슴과 나무꾼'은 성(性)에 대한 관심을 통해 사회적

에 몰들어 가는 어린 화자의 하루일과를 재미있게 그려내고 있다. 구성도 별로 나무랄 데 없고 문장도 안정되어 있으나, 소설의 배경이 되는 80년대 정치 상황이 정작 작품의 주제와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애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슴과 나무꾼'을 당선작으로 선정한 까닭은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솜씨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당선을 축하하며, 내 상(賞)을 예정 어린 꾸지람으로 받아들여 더욱 정진하기 바란다.

장영우

(문과대 국어국문학부 교수·문학평론가)

수상소감



강봉수(사대대 신병4)

내 소설 때문에 소설이라는 것 자체가 우스워지지 않기를 바란다. 내 소설은 이름만 소설일 뿐 정

## '피를 찍어 쓰는 소설 쓰고파'

말 소설은 아니다. 소설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다. 재미로, 폼으로, 자기연민으로 쓰는 건 소설이 아니다. 소설가의 운명이란 스스로를 불행하게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삶의 기쁨이나 행복을 노래한 시인은 있지만 아직까지 소설가는 없다. 소설가는 아무리 짧은 소설 한편이라도 목숨을 걸고 피를 찍어 쓰는 것을 기본으로 삼는다. 그런데 나는 그 기본조차 못 갖겠다. 내 소설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 펜티엄급 컴퓨터로 썼다는 걸 빼면 자랑할 게 없다. 다만, 내가 태어난 날 옆집에서 개가 죽었을 뿐이다. 그날부터 나를 따라 다니는 바닥모를 불안감이 내 소설

발명의 전부다. 그러나 내 소설 같지 않은 소설을 읽고 소설 자체를 우습게 아는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된다. 오직 비난은 나의 것이다. 무모하게 소설이란 세계에 뛰어들어 나에게 돌을 던져라.

이렇게 치기를 부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심사위원 선생님과 언제나 과분한 칭찬과 격려로 용기를 북돋아 주셨던 한용환 선생님, 그리고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장영우 선생님께 깊은 감사사를 드린다. 또, 홍기삼 선생님, 윤재우 선생님, 유임하 선생님, 황종연 선생님, 정재봉 선생님, 최순열 선생님, 김기주 선생님과의 즐거웠던 문학 수업도 잊지 못한다.

어제 벌어진 Y대의 대규모 시위는 오늘 아침까지 우리 동네를 최후탄 냄새로 뒤덮어 놓았다. 아침 일찍 Y대 뒷산 약수터에 다녀온 아버지는, 무척이나 배가 고파던 밥상이 다 차려지기도 전에 먼저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는, 군경의 합동작전이 다행히 성공해서 시위대가 뿔뿔이 흩어졌지만, 빨갱이의 사주를 받는 지독한 녀석들이라 언제 다시 시국을 어지럽힐지 모른다고. 밥알이 튀는 줄도 모르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옆에서 국을 뜨던 엄마도 뼈뺀지 자식새끼 공부 시켜놔야 다 소용없다며, 대학생이면 공부를 해야지 왜 데모 질이냐고 아버지의 말을 거들고는, 나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짓는 것이었다.

작년부터, 그러니까 대통령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부터 우리 동네는 부쩍 시끄러운 곳이 되었다. 뭐가 불만인지 대학생 형들은 시시때때로 거리로 나와 경찰들과 몸싸움을 했고, 거기에 맞춰 아버지는 씩씩 씩씩하게 새끼들이라고 욕을 해대었다. 그럴 때면 엄마는 꼭, 하루빨리 이사를 가던가 해야지 도저히 못할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대학생 형들은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부르며 기차놀이를 하듯이 우루루 돌러다니곤 했다. 그게 대학생 형들의 시위라는 거였다. 그런데 그 시위라는 것이, 일년 사이에, 난 단지, 가끔씩 벌어지는 행사처럼 일상적으로 느꼈던 것인데, 아이들 싸움이 부모를 싸움으로 커지는 것처럼, 어느새 기차놀이에서 난투극으로 변해 있었다.

우리 집은 Y대 건너편 언덕바지에 자리잡고 있어서, 이 동네의 웬만한 구석까지 볼 수 있을 만큼 전망이 좋은 곳이었다. 특히 Y대는 우리 집 앞마당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환하게 보였다. 방문을 열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Y대였고, 그곳에 꽃이 피거나 단풍이 들면, 꽃놀이, 단풍놀이는 발뒤꿈치만 조금 들면 할 수 있을 정도였다. 오늘 아침도 뉴스에서나 전해들을 법한 Y대 사태를, 우리 집에서는 맨눈으로도 또렷하게 볼 수 있었으니가 말이다.

내가 기차였다면, 오늘 아침의 Y대는 난장판이 었습니다. 라고 전했을 것이다. 아니면 개판이라는 표현도 괜찮을 듯 싶다. 우리 동네의 극성맞은 아이들이 죄다 Y대에 틀어 박혀 일년을 어질러도 저렇게 될 수는 없었을 거였다.

분명, 예전의 Y대는 개판 아니었다. 적어도 내가 느껴왔던 Y대는 교장 선생님의 굵이빨처럼 번쩍이는 곳이었다. 이따금씩,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칫솔을 물고, 잠이 덜 깬 눈으로 따끔따끔한 햇살을 받으러치면, 헛구역질이 나서 속이 뒹집힐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눈물이 빠져 나와서, Y대는 눈부신 황금빛으로 굴절되곤 했던 것이다. 그런 날은 나도 모르게 학교에 갈 의욕을 지위버리고 배아픈 시늉을 하며 엄마에게 괜한 투정을 부리고야 말았다. 그런데 그렇게 매혹적이던 Y대가, 오늘 아침에는 어쩐지 잘못 꾸워진 쥐포 마냥 얼룩덜룩하게 그늘진 모양을 하고 있었다.

Y대는 적막했다. 바람이 불자, 학생회관 위로 검댕이 같은 것이 까마귀 떼처럼 한차례 날아올랐을 뿐, Y대 풍경은 내 눈 안에서 움직일 줄을 몰랐다. 어젯밤, 깨쳐처럼 울부짖으며 뛰어 다니던 대학생 형들은 코베기도 보이지 않았다. 단지 한 무리의 군인이 개미처럼 소리도, 흔적도 없이 움직일 뿐이었다. 밤새 내 귓볼을 달궜던 끈적한 끈음들도 더 이상은 들을 기쁨이 없어 보였다. 오늘 아침의 Y대 풍경은, 마치 그것이 하나의 소리인 것처럼 내 귀로 들어와 웅, 소리를 내며 울리고 있었다. 귓속을 살살 후비면 어젯밤의 함성들이

귀지가 되어 나를 것처럼, 귓속이 가려왔다. 그것은 풍경이 필름에 담겨져 빛이 바래는 것처럼, 어제의 혼란스럽던 것들은 어디론가 다 날아가 버리고, 풍경만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탱크로 눌러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도무지 Y대가 공부하는 곳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 내가 보기에 그곳은 형들이 데모를 하는 곳이거나 아니면 내가 아이들과 놀러 다니는 놀이터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 말로는 나중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집에서 가까운 Y대를 가던가, 아니면 아주 멀리 있는 S대를 들어가야 한다고 하겠지만, 나에게는 너무도 터무니없는 소리여서 대담 대신 쿡구멍이나 수시곤 했다.

내게 있어서 Y대는 최소한 공부와 관계가 있는 곳은 아니었다. 솔직히 나는 공부를 못했고 하기 싫었고 때문에 학교라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Y대에 들러가게 된 것은 순전히 놀거리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축구장이나 야구장 같은 널찍한 운동장은 말할 것도 없고, 학교 뒷산의 목장에서는 주전지만 가져가면 우유를 하나 가득 담아 주었기 때문에 음료수까지 해결되는 곳이였다. 또 건물들은 얼마나 많은지 아직도 다 들어가 보지 못했을 만큼, Y대는 나의 모험을 기다리는 원시림과도 같았다. 그러나 나를 가장 매료시켰던 건 무탈할 것도 없이 학교 밑을 전부 관통하고 있는 하수관이었다. 나를 비롯한 우리 동네의 몇몇 용감한 아이들은 그곳을 땅굴이라고 불렀는데, 시시한 아이들이 모르는 은밀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공부 못하는 걸 만회하고도 남을 만한 자부심을 안겨 주었던 터라, 그곳에 대한 애정은 남다른 것이었다.

그곳에는 우리의 기대가 어그러지지 않게 늘 새롭고 신기한 물건들이 먼지 속에 가득 파묻혀 있었다. 그것은 연필에서부터 시계에 이르기까지 종류는 헤아릴 수 없이 다양했다. 그러나 나는 그곳에 자주 들어가는 편은 아니었다. 누가 입구를 가로막는 것은 아니었지만 땅굴 속을 험세없이 질주하고 다니는 쥐새끼들도 끔찍했고, 다리를 수습개씩 가지고 기어다니는 벌레들도 싫었기 때문에 혼자서 만만히 들어갈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내가 그곳에 들어가는 경우는 더 이상 딱지치기나 구슬치기 같은 것으로 하루를 보낼 자신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뽑아 드는 최후의 선택 끝이었다.

땅굴에 들어가는 가장 쉬운 방법은 축구장 귀퉁이에 있는 맨홀 뚜껑을 들어내는 것이었다. 뚜껑이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어서 조금 무겁기는 했지만, 다른 곳보다는 깊이가 얕았고 물도 바닥을 간신히 적실 정도여서, 그곳이 제일 만만한 통로였다. 여름에는 뚜껑을 열 때 썩은 공기가 쏙, 하고 올라올 정도로 냄새가 고약했지만, 그 냄새조차 나를 설레게 하곤 했다. 그러나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인 봉기녀석은 냄새뿐만 아니라 땅굴 속의 분위기에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런데도 봉기녀석은 순전히 여자 애 하나 때문에 땅굴로 향했다. 거기서 슬만한 물건을 주우면 그 애에게 자랑하거나 선물로 주려는 것이었다.

봉기녀석이 좋아하는 그 계집애가 바로 미숙이었다. 공교롭게도 우리 집 어랫방에 세 들어 살기 때문에 누구보다 내가 잘 아는 애였다. 학교에서 거의 유일하게 나보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였고, 생긴 건 딱다 만 속떡처럼 생겨서 누구도 거들떠 보려 하지 않는 스타일이었다. 그런데도 봉기녀석은 어디에 흘렸는지, 그 애의 귀여움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터라면 자기도 대학생 형들처럼 쇠파이프

를 들겠다고 목올대에 힘을 주곤 했다. 며칠 전에도 봉기녀석의 결연한 의지가 변함없음을 알 수 있었는데, 그것은 땅굴에서 발견한 미국잡지를 보고, 봉기녀석이 한 말을 통해서였다.

그 잡지는 무지하게 예쁜 여자들이 발가벗고 나오는 사진들이 잔뜩 실려 있었다. 그렇게 예쁜 여자들이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것보다 나는 그녀들이 모두 가랑이 사이에 원숭이 털 같은 것을 한 움큼씩 달고도 그렇게 예쁠 수 있다는 게 더 신기했다. 그것은 그녀들의 동글고 기름진 배와 묘한 조화를 이루며 나를 이상한 기분으로 빠지게 했다. 그런데도 봉기녀석은 노랑머리도 맘에 안 들고, 가슴도 너무 커서 징그럽다는 것이었다. 거기에 비하면 미숙이는 너무 깔끔하게 생긴 거라고 되려 자랑까지 하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봉기녀석의 꽤딱지 않은 소리를 한쪽 귀로 흘려 버렸었다. 가슴이 자기 머리통 만했던 미국여자의 그것으로 머리를 한방 맞은 것처럼 멍해져서, 여자란 무엇인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할 기회를 가졌던 것이다. 그때 나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생각했던 내 짝궁 보연이를 떠올렸었다. 캔디처럼 귀엽게 웃던 그 얼굴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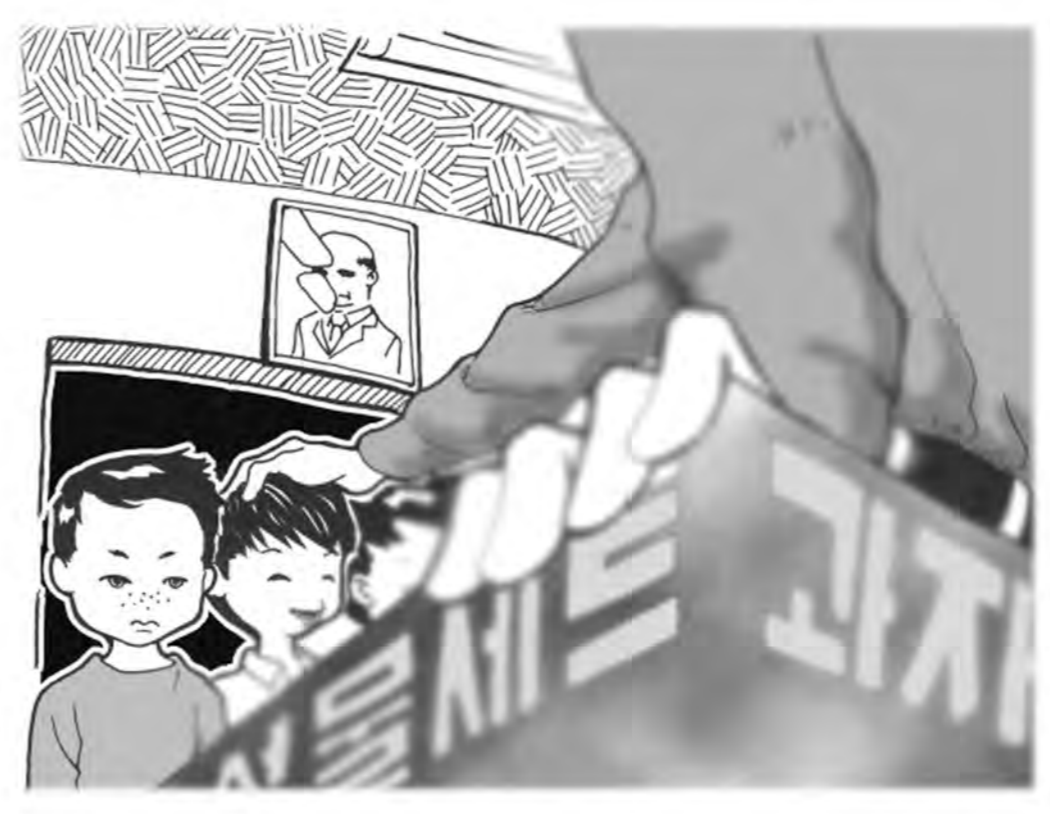
지금 생각해 보면 보연이와 친해진 건 순전히 내가 공부를 못한 탓이었다. 하루는 보연이가 도덕과목 시간에 책을 안 가지고 와서, 내 책을 책상 가운데 놓고 같이 보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우리에게 오더니 내게 꿀밤을 먹이는 것이었다. 그때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은 공부 잘하는 아이와 공부 못하는 아이가 짝을 이뤄 앉게 함으로써, 잘하는 쪽이 못하는 쪽의 공부를 도와주도록 하는 자신만의 특별한 교육방침을 시행하고 있었다. 물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쪽은 나였다. 그래서 선생님은 당연히 공부 못하는 내가 책을 안 가져 온 거라 생각한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여느 때와는 달리 선생님의 목직함 꿀밤을 달게 받을 수 있었다.

그때부터 보연이는 나를 가장 믿을 만한 친구로 생각했고, 우리의 달콤한 만남은 시작되었다. 보연이와 처음으로 밤과 후 어울리게 된 날,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었던 곳은 당연히 Y대 땅굴이었지만, 그곳은 너무 깔끔하고 지저분한 곳이라 마음을 바꿨다. 본부도 향했던 기억이 난다. 본부는 Y대 뒷산 중에서도 바위가 유난히 많은, Y대 목장 근처에 있었다. 그곳은 언젠가 목욕탕에 따라갔다가 보았던 막내 이모의 배품처럼 바위 한 가운데가 깊고 은밀하게 파여 있어서, 웬만한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비밀스런 공간이었다.

내가 보연이를 본부에 앉혀 놓고 가랑이가 얼얼 하도록 목장까지 뛰어가서 우유를 받아 왔을 때, 그 애는 내가 우유를 받아 온 양은 주전저 색깔보다 조금 옅은 노란 바나나를 내 놓으며 먹여 봐, 라고 말했는데, 지금도 장담할 수 있지만 그때 바위가 울리도록 가슴이 쿵쿵거렸던 건 생전 처음 맛보게 될 바나나에 대한 설렘이 결코 아니었다. 그건 먹여 봐, 라고 말했을 때의 일 모양이 마치 사랑해, 라고 말하는 듯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보연이의 그 동그랗고 빨갛던 입술을 볼 수가 없다. 할아버지가 유명한 정치인이란 건 그 애는 무엇 때문인지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사를 가버렸다. 보연이가 학교에 마지막으로 왔던 날에도 나는 그 애가 왜 연필 한 타스를 내게 주는 건지 알지 못했다.

다만 그 연필의 의미를 사랑해와 비슷함만으로 이해했던 것인데, 지금 내 책상 서랍 속에서 우리 동네의 가을처럼 쓸쓸한 갈빛으로 퇴색해 가고 있



었다.

보연이와 미국여자 중에 어느 쪽이 더 예쁜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다. 분명 보연이가 예쁜 게 확실한데 뭔가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이 다른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봉기녀석은 그걸 징그러운 잡지를 버리고 가지고 갔지만, 그때 나는 버리기엔 뭔가 아쉬운 뒷맛을 느꼈던 것이다.

꽤 오래 전부터 Y대 주변은 하루종일 검문검색을 하는 경찰들로 뿔뿔이 찢어져 있었다. 하루 이틀이면 끝날 줄 알았던 대학생 형들과 경찰의 싸움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을 때, 나는 지난여름 Y대에 두고 온 잡지를 떠올렸었다. 그런데, 마치 보연이를 거기에 두고 온 것처럼 느꼈던 건 왜였을까. 언제나 나는 마루에 서면 Y대를 환하게 들여다 볼 수 있었지만, 오늘 아침엔 뭔가 시원찮게 그려진 풍경화를 보는 듯 답답한 심정이 되고 말았다.

요즘 우리 동네는 병든 노인의 얼굴처럼 바짝 아위어가고 있었다. 거리의 은행나무들은 마른 바람에 속아지고 있었고, 어제의 아귀 같은 함성소리, 최후탄 터지는 소리조차 시간이 가속된 것처럼 기억 속에서 삭아 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 사이를 일으키는 알리는 성당의 종소리가 아득하게 번져 가는 것이어서, 나는 그때서야 가을이 이 동네를 행하니 지나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아침밥을 먹고 성당에 갈 체비를 하고 있을 때, 아랫방에서 미숙이 우는소리와 미숙이 엄마의 재치는 목소리가 함께 들려 왔다. 미숙이가 간밤에 오줌을 싸서 매를 맞는 눈치였다.

미숙이 엄마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사나운 여자였다. 더구나 오줌을 싸다면 미숙이는 반죽음은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다. 일단 매질이 시작되면 미숙이네의 가족내력은 하나씩 들쭉날쭉 터졌다. 그녀에 의하면, 남편은 "평생 돈이란놈 쪼들 만큼도 못 벌고 똥똥버린 우리들 인간"이었고, 그 형제들은 "인정머리라고는 개똥 만큼도 찾아 볼 수 없는 더러운 족속들"이었다.

이런 식의 욕지거리는 시어머니에서 시아버지로 이어지며 매질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기 마련이었

고, 매질도 무식한 편이라서 한번 패기 시작하면 피멍을 보고야 마는 성미였다. 패다가 빗자루가 부러지면 손과 발로 연타를 먹고 그래도 성이 안 풀리면 그릇들을 던지기도 했다. 그 때 놓고 선 언저 그렸느나는 듯이 깔깔 웃는 것이, 그녀의 징글맞은 특징이었다.

나는 패고, 울고 하는 아랫방 모녀의 괴성을 들으며, 머리를 빗고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미숙이 엄마의 악다구니가 잠잠해졌을 때쯤, 나는 미숙이가 죽지는 않았을까, 걱정을 하며 대문을 나섰다.

우울한 아침이었지만, 성당을 생각하니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다. 성당에 가면 어찌 벌어졌던 Y대 사태의 대대적인 진압을 두고 아이들은 각기 들은 얘기를 쏟아 낼 것이었다. 그러나 나만큼 Y대 사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할 수 있는 애는 없을 게 분명했다. 왜냐하면 우리 집 만큼 Y대를 환하게 볼 수 있는 곳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조금이라도 틀리게 얘기하는 녀석이 있으면 엄정하게 지적할 작정이었다. 나는 자신감에 부풀어서 성경책과 찬송가를 한꺼번에 움켜쥐고 한달음에 언덕길을 뛰어 내려갔다.

성당으로 통하는 은행나무 길로 들어서자 발바닥이 사뿐해졌다. 이제 가지에 달린 잎은 몇 개 되지 않았다. 은행나무의 부피가 고스란히 길바닥에서 느껴졌다. 나는 그 위를 천천히 걸었다. 그러다가, 저만치에서 소슬바람이 낙엽들을 흔들어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을 때, 그 사이를 다시 전속력으로 달렸다. 그렇게 얼마간을 달리다가, 힘이 빠져서 이젠 더 이상 속도를 내지 못하고 걸는 거나 다름없었을 때, 건너편에서 오고 있던 윤마리아 선생님을 만났다.

"어제 매워서 혼났지?"  
선생님은 얼굴을 약간 찌푸리며 정말 매워서 혼났다는 표정으로 아는 체 했다. 그러나 나는 속도 차고 해서 어색하게 웃어 주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사실 떨리기도 했다.

자녀뿐인가 체육대회가 끝나고 아이들을 찾아



## 제14회 동대문학상 수상작

10면에서 계속

성당의 이 방 저 방을 뒤지다. 선생님이 옷 갈아입는 줄도 모르고, 불췌 문을 열었다가 브래지어 차림의 모습을 본척 있었다. 그때만 해도 선생님만 당황했는지 나는 별다른 생각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미국잡지를 본 이후부터 선생님만 보면 그때의 브래지어 차림이 자주 눈앞에 어른거려서 나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이었다.

“너, 며칠간은 쓸데없이 돌아다니면 안 된다.” 내가 잠시 아찔한 생각에 빠져있는 사이, 선생님은 어제 집앞 때 용케도 빠져 나온 시위대의 핵심 간부들이 우리 동네 어디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겁을 주는 것이었다.

“정말 우리 동네에 숨어 있을까요?” 나는 순간 긴장해서 흰 목소리로 물었다. “글쎄, 뉴스에선 지난봄 광주에서도 폭동을 일으키고 감쪽같이 사라진 아주 용의주도한 인물들이라고 하던데... 벌써 도망갔을지도 모르지요...” 선생님이 Y대 사태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는 듯했다. 그리고는 미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얘기의 방향을 바꿔 버렸다.

성당 안은 아이들의 종알거리는 소리로 생동감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복사를 서러고 준비하고 있는 1학년 반 아이 둘을 빼고는 모두 무언가에 잔뜩 흥분해 있었다. 예상했던 대로 어제의 Y대 사태가 화제였다. 내가 5학년 반 아이들이 있는 자리에 앉았을 때 어떤 아이는 진짜 총을 보았다고 자랑하고 있었고, 어떤 아이는 총소리를 가까이서 들었는데 지금까지 귀가 잘 안 들린다고 엄살을 피우는 애도 있었다. 또, Y대 후문 앞에 사는 애 하나는 탱크를 가까이서 보고 경찰과 시위대를 뚫고 Y대 정문 앞까지 갔었는데, 마침 탱크가 시위대 진압을 하느라 그 자리가 갔을 때는 보이지 않더라고 무언가 석연치 않은 얘기를 늘어놓는 것이었다. 그런데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봉기녀석이 갑자기 나에게 어젯밤 탱크가 포 쏘는 걸 봤냐고 묻는 것이었다. 녀석이 던진 뜻밖의 질문에 잠시 주춤했지만, 나는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턱을 치켜들고 똑똑히 보았다고 거짓말을 해주었다. 하느님이 뻔히 보는 곳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마음이 걸리기는 했지만, 조금 있다 기도해서 빌면 별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었다.

나는 내진건에 하느님도 아랑곳하지 않고 포탄이 날아가던 광경과 그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를 갖가지 표현을 동원해서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아이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확인해졌을 때, 나만의 엄청난 정보를 한 가지 더 터뜨렸다. “니들 우리 동네에 빨갱이 숨어 있는 거 알아요?”

이 말에 아이들의 시선은 모두 나에게로 쏠렸다. 나는 아이들의 궁금증에 잠시 땀을 들인 후, 그들은 만년필로 위장한 독점을 가지고 소리소문 없이 사람들을 죽인다고 탄압 공포를 가미해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아이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게 변했을 때쯤, 윤미리아 선생님이 들어와서 나는 조용히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벌수 없이 나는 조그마한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미사가 끝나면 얘기를 해주겠다고 말했다.

미사가 끝난 후 5학년 반 아이들은 윤선생님과 성경 공부해 하기 위해 모였다. 선생님은 빵과 우유를 내어 주고, 우리들은 빵 한 입 베어 물고 성경 한 줄 읽고 그리고 우유 한 입 먹는 식으로 하는, 즐거운 공부를 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주기도문을 외우고 성경 공부를 끝냈을 때, 선생님은 며칠 동안은 집 근처에서만 놀라고 당부하시며 우리들을 한 명씩 안아 주셨다. 내 차례가 왔을 때 나는 서슴지 않고 가슴에 얼굴을 묻고 힘껏 비벼 보았다.

잘못하면 가슴이 터질지 모르다는 생각을 했지만, 선생님의 가슴은 엄청난 탄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선생님이 나를 살짝 밀치며 눈꼬리를 치켜 떴기 때문에, 나는 그쯤에서 고개를 빼야 했다. 화장실에서 오줌을 누고 나왔을 때 아이들은 성당 뒷마당에 웅기종기 꼬르륵 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주의를 인해 내 말을 더욱 믿는 눈치였다. 그래서 나는 한번 더 힘주어 말했다.

“거봐 내 말이 맞지? 선생님도 집 근처에서 놀라고 그러시잖아!” 아이들은 내가 나머지 얘기도 해주기를 바라는 듯 입을 꼭 다물고 있었다.

“어제 보니까 총알이랑 포탄이랑 막 날아가는데, 그 사이를 빨간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귀신같이 피하면서 뒷산으로 도망치더라구. 내가 망원경으로 똑똑히 봤어. 천주님께 맹세하단디가.” 그런데 이상하게 아이들의 표정이 한결 더 일그러졌을 때, 불현듯 Y대 땅굴이 궁금해지는 것이었다. 내 말대로 포탄이 퍼붓고 총알이 난사됐다면 땅굴도 온전할 것 같지가 않아서였다. 그리고 생각이 그곳에 두고 온 잡지에게까지 미치자, 은근한 갑갑증이 엄습해 오는 것이었다.

“우리 땅굴에 가볼까?” 내가 목소리를 깔고 자신감 없이 말하자, 아이들 역시 무모한 짓이라는 표정들이었다. 분명 나도 무모한 짓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웬지 아이들이 짜증스럽게 보였다. 녀석들을 보고 있자니 괜한 안달이 나서 더욱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땅바닥에 거칠게 침을 한번 뱉고는 성당에서 나와 버렸다. 갑자기 기운이 쪽 빠졌다. 기운을 차려 보려고 성당 담벼락에 기대어 햇볕을 쬐고 있었더니, 곧 봉기녀석과 성구녀석이 따라 나왔다.

“같이 가!” 성구녀석은 집에 같이 가자는 것인지 Y대 땅굴을 같이 가자는 것인지 아리송한 소리를 했다. “어달!” 나는 귀찮은 듯이 물었다. “집에 가서 밥 먹고 오후에 땅굴 가 보자.” 성구녀석은 오랫동안 땅굴에 안가 봐서 신기한 물건이 많이 들어왔을 거 같으며, 한탕 털 집을 보아 둔 도둑처럼 군침을 흘렸다. 그러나 옆에 있던 봉기녀석은 땅굴의 재물보다는 Y대에 집결할 가공할 무기들을 가까운 곳에서 분다는데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았다. 이유야 어쨌든 의견일치를 본 우리는 횡단보도 앞에서, 오후에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헤어졌다.

대문을 열자, 마당 빨랫줄에 이불이 걸려 있는 게 보였다. 아침에 미숙이가 매 값을 치른 이불임에 틀림없었다. 아버지하고 엄마는 어딜 가신 모양이었다. 미숙이네 식구도 없는 집안이 조용했다. 나는 배가 고파지만 엄마가 올 때까지 참기로 하고, 방바닥에 벌렁 누웠다. 천장은 꽃무늬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한참을 보고 있으려니, 천장 속에서 윤선생님의 앙증맞은 가슴과 미국여자들의 거대한 가슴이 번갈아 떠올랐다. 나는 표현하기 어려운 애비한 기분에서 사로잡혔다. 생각할수록 끝까지 아찔했다. 나는 콧소리가 나도록 눈을 감았다. 그러면서도 잡지를 어디에 숨기면 좋을까. 장판 밑이나 옷장 위가 좋으리라. 그런 생각을 연이어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마당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누구세요?” 나는 방바닥에 누운 채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밖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누구세요?” 나는 여전히 몸 일으키기가 귀찮아서 목소리만 높였다. 그래도 대답이 없었다. 나는 몸을 일으켜 마당을 쪽제비처럼 내다보았다. 그랬더니 미숙이가 이불을 지고 자기 방으로 급히 가고 있는 게 보였다.

“아이 기지배야! 난 다 봤어!” 나는 냇다 소리부터 질렀다. 그리고는 맨 발로 미숙이네 방 앞까지 뛰어갔다. “너 잠깐 나와 봐!” 나는 은근한 협박조로 미숙이가 나올 것을 강요했다. 그러나 미련 품듯이 미숙이는 대답이 없었다. “너 정말 안 나올거야! 너 지금 안 나오면 학교에 소문 다 낸다!” 나는 한층 목적을 높여 욱박질렀다. 미숙이는 그때서야 질질 찌며 문틈 사이로 얼굴을 빼꼼히 내미는 것이었다.

“울기는 등신 같은 게, 너 내가 소문 안 낼 테니까, 부닥 하나만 들어줘.” 나는 아주 점잖고 인정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원래!” 미숙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뭐 어려운 건 아니고, 너 잠깐 한번만 보여주면 돼.” 나는 별거 아니라는 듯 태연하게 말했다. 그러자 미숙이는 후후 소리를 내어가며 청순맞게 우는 것이었다.

“싫어!” 나는 싫으면 관두라는 식의 강짜를 부렸다. “지금?” “지금 말고 해떨어지기 전까지 본부로 와! 너 본부 알지?” “응.” 미숙이는 짧게 대답하고 방문을 닫았다. 나는 속으로 절대 미숙이가 오줌싼걸 소문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나도 그 정도 위라는 갖춘 화끈한 놀이였다. 다만 미숙이를 통해서라도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을 따름이었다.

언제 잡이 들었는지, 엄마는 점심을 차려 놓고 나를 깨웠다. 엄마는 시장에 갔다 오셨는지 밥상엔 언뜻 보기에 내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몇 가지 보였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수저를 생각이 안 나는 것이었다. 무언가가 이미 내 몸 속에 미처미처 들어와 있는 느낌이어서, 그것들을 거부하지 않으면 탈이 날 것처럼 입맛이 없었다. 엄마는 별일도 다 있다는 표정이었지만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줄여 가고 있었다. 나는 운이 좋으면 저녁에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며 집에서 나왔다.

“그래!” 봉기녀석이 바로 찬성했다. 성구녀석이야 어딜 가든 주위 갈 물건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라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키가 작아 땅굴 속에서 움직이기 제일 편한 나는 거미줄을 걸어 내며 앞장섰다. 몇 미터 간격으로 벌어진 틈으로 벌이 들어와 땅굴 안은 그런 대로 환했다. 우리는 바짝 마른 콘크리트 벽을 뜻으로 사악삭 긁으며 걸었다.

학생회관 근처에 이르러 밖을 내다보니, 군인 두 명이 꽃꽂한 자세로 보초를 서고 있는 게 보였다. 시위대가 최후까지 남아 있었다는 학생회관은 커다란 쓰레기통이나 다름없었지만 보초병의 눈빛은 보물이라도 지키는 듯 삼엄했다. 우리는 그 눈길을 피해 두더지처럼 맨홀 뚜껑을 들었다 놔다 했다. 그러나 별다른 구경거리가 없었다. 봉기녀석이 잠깐동안 보초병의 소총에 관심을 가졌지만 그것도 잠깐이었다.

“정문에 나 보자!” 봉기녀석의 관심은 처음부터 탱크 구경에 있었던 터라 지체 없이 주장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잠깐 숨어서 살펴보자!” 물레 잡지를 찾아보려는 속셈으로 내가 다시 제안했다. 녀석들도 각기 속셈이 있었던 터라 내 말에 쉽게 동의해 주었다.

나는 목소리만 쪽으로 방향을 잡고 걸었다. 혼자서 땅굴 속을 돌아다니는 게 조금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지 않고는 잡지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는 자연스럽게 악물어졌다. 땅굴 속에는 발에 걸리는 것이 많았다. 음료수 캔 같은 것이 가장 많았고, 여자 팬티나 옷 같은 것도 간혹 눈에 띄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의 가끔씩 나에게 이상한 착각을 일으키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아무리 용기를 내어도 뭐가 나올지 모르는 땅굴 속을 혼자 돌아다니는 건 내 나이엔 너무 으스스한 일이었다. 그래서 조금 크다 싶은 별래라도 맞닥뜨리려나도 모르게 신음 비슷한 소리가 목구멍을 비집고 나왔다.

독수리담 근처에 다다랐을 때 전에 내가 잡지를 덮어놓았던 돌무더기가 보였다. 나는 언젠가 보았던 첩보영화에서 그랬던 것처럼, 은밀한 일을 꾸미기에 앞서, 주위를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돌덩이를 파헤쳤다. 잡지는 그대로 있었다. 돌을 잘 덮어놓아서 보관 상태도 좋았다. 나는 세로로 반을 딱 접어서 허리띠에 잘 걸리도록 몇 속으로 찢어 냈었다. 허리춤이 뻗뻗하게 굳었다.

아찔했다. 너무 흥분해서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아무런 땅굴 속이 감잡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물 속에 머리가 처박힌 것처럼 숨이 막히고, 조바심이 나는 것이었다. 무언가 내 몸 속에서 터져 나와야 숨통이 트일 것 같았다. 등 언저리에 식은땀이 나는지 잡지가 들려붙었다. 나는 서둘러 축구장 쪽으로 걸기 시작했다. 녀석들이 분명 나를 찾아 헤맬 게 뻔했다.

지만 그런걸 생각할 만큼 마음에 여유가 없었다. 그냥 빨리 나가야 한다는 생각만 머리 속에 맴돌 뿐이었다. 그러나 몇 미터 못 가서 내 몸은 땀뻘뻘하게 할 수가 없었다. 웅크린 남녀였다. 내가 소스라쳤지만, 남녀는 한 술 더 떠서 발작적으로 놀라는 것이었다.

“너 누구야?” 녀석의 목소리는 크진 않았지만 다급했다. “.....” “너 뭐 하는 놀이냐구?” 급기야 남자는 언성을 높였다. “.....” “여기 뭐 러워 왔어?” “.....”

Y대 뒷산 개구멍에 도착했을 때 봉기녀석과 성구녀석은 일찌감치 나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들어가도 괜찮을까?” 성구녀석은 나를 보자마자 Y대 주변의 군인들의 의식한 듯 불안한 소리를 했다. “땅굴로만 다니면 문제없어!” 나는 녀석들의 마음이 약해진 것을 눈치채고, 먼저 개구멍으로 기며 말했다. “빨리 와!”

나는 풍성한 성구녀석이 빠져 나오기 좋도록 철조망을 치켜들고 재촉했다. 녀석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싶더니만 재빠르게 철조망을 통과했다. 그리고는 축구장이 있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다행히도 축구장 근처에는 군인들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우리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소리가 나지 않도록 맨홀 뚜껑을 조심스럽게 들었다. 힘 좋은 성구녀석 덕분에 우리는 쉽게 땅굴로 들어갈 수 있었다. 가을의 뒷자락이어서 그런지 땅굴 속엔 나뭇잎이 수북했다.

“학생회관부터 가보자!” 내가 녀석들에게 말했다. 새까맣게 타 버린 학생회관을 봐야 Y대 사태의 진상을 보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래!” 내가 녀석들에게 말했다. 새까맣게 타 버린 학생회관을 봐야 Y대 사태의 진상을 보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래!” 봉기녀석이 바로 찬성했다. 성구녀석이야 어딜 가든 주위 갈 물건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라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키가 작아 땅굴 속에서 움직이기 제일 편한 나는 거미줄을 걸어 내며 앞장섰다. 몇 미터 간격으로 벌어진 틈으로 벌이 들어와 땅굴 안은 그런 대로 환했다. 우리는 바짝 마른 콘크리트 벽을 뜻으로 사악삭 긁으며 걸었다.

학생회관 근처에 이르러 밖을 내다보니, 군인 두 명이 꽃꽂한 자세로 보초를 서고 있는 게 보였다. 시위대가 최후까지 남아 있었다는 학생회관은 커다란 쓰레기통이나 다름없었지만 보초병의 눈빛은 보물이라도 지키는 듯 삼엄했다. 우리는 그 눈길을 피해 두더지처럼 맨홀 뚜껑을 들었다 놔다 했다. 그러나 별다른 구경거리가 없었다. 봉기녀석이 잠깐동안 보초병의 소총에 관심을 가졌지만 그것도 잠깐이었다.

“정문에 나 보자!” 봉기녀석의 관심은 처음부터 탱크 구경에 있었던 터라 지체 없이 주장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잠깐 숨어서 살펴보자!” 물레 잡지를 찾아보려는 속셈으로 내가 다시 제안했다. 녀석들도 각기 속셈이 있었던 터라 내 말에 쉽게 동의해 주었다.

나는 목소리만 쪽으로 방향을 잡고 걸었다. 혼자서 땅굴 속을 돌아다니는 게 조금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지 않고는 잡지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는 자연스럽게 악물어졌다. 땅굴 속에는 발에 걸리는 것이 많았다. 음료수 캔 같은 것이 가장 많았고, 여자 팬티나 옷 같은 것도 간혹 눈에 띄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의 가끔씩 나에게 이상한 착각을 일으키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아무리 용기를 내어도 뭐가 나올지 모르는 땅굴 속을 혼자 돌아다니는 건 내 나이엔 너무 으스스한 일이었다. 그래서 조금 크다 싶은 별래라도 맞닥뜨리려나도 모르게 신음 비슷한 소리가 목구멍을 비집고 나왔다.

독수리담 근처에 다다랐을 때 전에 내가 잡지를 덮어놓았던 돌무더기가 보였다. 나는 언젠가 보았던 첩보영화에서 그랬던 것처럼, 은밀한 일을 꾸미기에 앞서, 주위를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돌덩이를 파헤쳤다. 잡지는 그대로 있었다. 돌을 잘 덮어놓아서 보관 상태도 좋았다. 나는 세로로 반을 딱 접어서 허리띠에 잘 걸리도록 몇 속으로 찢어 냈었다. 허리춤이 뻗뻗하게 굳었다.

아찔했다. 너무 흥분해서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아무런 땅굴 속이 감잡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물 속에 머리가 처박힌 것처럼 숨이 막히고, 조바심이 나는 것이었다. 무언가 내 몸 속에서 터져 나와야 숨통이 트일 것 같았다. 등 언저리에 식은땀이 나는지 잡지가 들려붙었다. 나는 서둘러 축구장 쪽으로 걸기 시작했다. 녀석들이 분명 나를 찾아 헤맬 게 뻔했다.

지만 그런걸 생각할 만큼 마음에 여유가 없었다. 그냥 빨리 나가야 한다는 생각만 머리 속에 맴돌 뿐이었다. 그러나 몇 미터 못 가서 내 몸은 땀뻘뻘하게 할 수가 없었다. 웅크린 남녀였다. 내가 소스라쳤지만, 남녀는 한 술 더 떠서 발작적으로 놀라는 것이었다.

“너 누구야?” 녀석의 목소리는 크진 않았지만 다급했다. “.....” “너 뭐 하는 놀이냐구?” 급기야 남자는 언성을 높였다. “.....” “여기 뭐 러워 왔어?” “.....”

나는 남자의 계속되는 질문에 신동하게 대답해 줄 말이 생각나질 않았다. 그저 눈물이 쏟아질 뿐이었다.

“울지마. 형이 그냥 궁금해서 물어 본 거야.” 내 눈물을 보자 남자는 한풀 누그러지는 기색이었다.

남자는 다소 과장된 톤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말했다. 옆에 있던 여자는 다리를 다쳤는지 바닥에 누워서, 자기도 남자와 다름 아니라는 호의적인, 그러나 역력히 불안한 미소를 내게 보내는 것이었다. 여자는 잠시 지켜 보았다. 한 이틀쯤 쪽 지야 좋아질 얼굴이었다.

“아저씨는 여기서 뭐 하세요?” 나는 알 수 없는 적의감에 휩싸여 물었다. “응음....” 남자는 입 언저리 한구석을 비틀며 미소를 흐렸다.

“저 그만 갈래요.” 나는 남자의 옆에 흔들리는 눈동자를 쬐려보면서 말했다. 그러자 남자는 사람 좋은 웃음을 만들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나는 남자가 여기에 왜 들어 왔는지는 관심이 없었다. 일초라도 빨리 나가서 허리춤의 여자가 보고 싶었는데, 단지 남자의 태도가 이상해서 잠깐 궁금하다고 생각한 것뿐이었다. 내가 남자의 거북스러운 미소를 외면하고 돌아서려 할 때, 여자가 나를 불러 세웠다.

“잠깐만 꼬마야!” “왜 그러세요?” “응, 다른 게 아니고 누나가 선물 하나 줄려고요?” “왜요?” “왜 주긴 귀엽고 착하게 생겨서 주는 거지.” 여자는 별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내겐 어울리지 않는, 꽤나 비싸 보이는 만년필 하나를 내미는 것이었다.

“누나가 그냥 노파실에서 하는 소리네 말이야. 너, 우리 봤다는 얘기 절대 단 데 가서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말이야. 누나하고 형은 나쁜 사람들한테 쫓기고 있거든. 너, 사슴과 나무꾼 얘기 알지?” “네.” “거기 보면 사슴이 나쁜 사냥꾼한테 쫓기잖아. 그런데 착한 나무꾼이 사슴을 숨겨 주지 않나? 지금이 딱 그 상황이야. 그러니까 널같이 착한 어린이는 우리 같이 어려운 사람들 도

와줘야 하는 거야. 그래야 바른 어린이야. 알겠나?” “네.” 나는 여자의 보물보물한 손에 내 뺨을 맡기고 고분고분하게 대답해 주었다. 여자는 그제야 되었다 싶었는지 손가락으로 내 머리를 천천히 쓸어주었다. 그렇게 하고는 다시 한번 진지한 표정이 되어 입맞춤을 하듯이 자기 눈을 내 눈에 갖다댔다. 거기에 나도 착한 어린이의 눈빛을 만들어 뻔히 바라보아 주고는 서둘러 바깥으로 향했다.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내 눈을 파멸 듯이 찔렀다. 나는 눈이 멍해진 상태로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내 보았다. 내일 학교에 가면 분명 아이들이 서로 보려고 난리를 칠 것이었다. 나는 벌써부터 아이들의 만년필 소동을 보는 것 같아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봉기녀석과 성구녀석한테도 오늘은 만년필을 보여주지 않을 작정이었다. 아이들이 전부 모인 곳에서 녀석들도 같이 놀라게 해주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녀석들이 미리 김을 빼 놓을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기분이 좋아진 나는 개구멍이 있는 철조망을 향해 언덕을 힘껏 뛰어 올라갔다. 철조망 부근의 색 바랜 잔디가 햇빛을 받아 웅단처럼 포근한 빛깔을 내고 있었다. 나는 포만감에 젖어 그 위에 팔베개를 하고 누웠다. 내일을 생각하니 슬며시 웃음이 나왔다. 하늘은 영락없는 가을이었다.

깜박 잠이 들었나 보았다. 한기가 느껴져서 눈을 떠보니, 해가 서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었다. 축구장을 내려다보니 새삼스레 텅 비어 보였다. 보연이가 보고 싶었다. 분명 다시 볼 수 없을 거였다. 어디선가 불어 온 바람이 축구장을 쓸고 내 마음까지 살살 후비며 지나갔다.

가을바람치고는 차가웠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멀리서 보기에라도 화가 난 것이 분명한, 녀석들의 식식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녀석들도 나를 봤는지 뛰어들기 시작했다.

“야 이 씨팔 놀아. 말도 없이 여기 와 있으면 어떡해! 군인들한테 잡혀 간 줄 알았잖아.” 봉기녀석은 나를 잡아먹을 것처럼 으르렁거렸지만 나는 딱히 변명할 말이 없어서 가만있었다.

“이거 봐라!” 성구녀석은 땅굴에서 주웠다며 핸드백을 보여주었다. 성구녀석이 뛰어 온건 봉기녀석과는 다른

이유 때문인 것 같았다. 핸드백 안에는 통장, 귀걸이, 수표 등, 우리가 팔려하기에는 너무나 박찬 것들이 들어 있었다.

“너 감옥 갈려면 집으로 가져가!” 봉기녀석은 진작부터 성구녀석과 입씨름을 했는지 사납게 엄포를 놓았다.

“정말 감옥 갈까?” “당연하지. 새끼야. 이런 건 걸리게 돼 있다구.” 봉기녀석은 꽤나 어른스러운 투로 얘기했다.

“그럼 파출소에 갖다 주자.” 성구녀석은 겁을 먹었는지 의외로 쉽게 응했다. 파출소 안을 살짝 들여다보니 새로운 대통령 각하의 사진이 반듯하게 걸려있었다. 지난번 돌아간 대통령 할아버지와는 전혀 판판으로 생긴 얼굴이었다. 김일처럼 박치기를 잘하는지 머리카락이 거의 없었고, 우리 동네의 새마을슈퍼 주인처럼 술주정뱅이일 수도 있는 약간 딸기코였다. 우리는 그 인상에 주눅이 들어 잠깐동안 문 앞에서 눈치를 살폈다. 웬지 혼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파출소에 들어서자, 역시나 순경들은 뭐야? 하는 눈초리로, 일제히 우리를 쏘아봤다.

“아저씨 이거요.” 성구녀석은 문 앞의 순경에게 쥘쥘하게 다가와 핸드백을 내밀었다.

“이거 어디서 났어?” 문 앞의 순경이 추궁했다.

“Y대 뒷산 근처에서 주웠어요. 통장도 있고요. 수표도 있어요.” 성구녀석은 대단한 물건이라는 것을 순경들에게 재빨리 알렸다.

“정말이네!” 핸드백을 받아 든 순경은 성구녀석의 말을 확인하고는 우리에게 소파에 앉을 것을 권했다.

“그거 누가 주웠어요?” 성구녀석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이봐 김순경! 과자 좀 사 오지 그래. 이렇게 착한 녀석이 있나.” 소장은 수줍을 꺼내 성구녀석의 이름이며 학교 반은 물론이고 번호까지 적었다. 나중에 선행상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장은 봉기녀석하고 나에게도 관심이 있는 듯했다. 이름이라도 땅굴로 불러 가지고 꼬신 건 나였는데, 그런 공로는 전혀 인정될 분위기가 아니었다. 분명 월요 조회 시간에 전교생이 다 모인 가운데 교장 선생님의 시상

이 있을 거였다. 거기서 온갖 형형색색 칭찬을 다 받을 성구녀석, 상상만으로도 분한 일이었다. 이런 만년필 가지고 아이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려 던 계획은 물 건너간 셈이었다. 괜히 먼저 나와 가지도 남 좋은 일만 시킨 거였다. 나는 주머니 속의 만년필을 만지작거리며 보연이를 생각했다. 보연이가 보는 가운데 내가 선행상을 받았다면 어떨을까. 보연이가 있을 때 땅굴을 살살이 뒤지지 못한 것이 안타까웠다.

“조금만 기다려다 과자 먹고 가라.” 내 귀에는 소장의 말이 성구녀석만 먹고 가라는 소리로 들렸다. 그런데도 봉기녀석은 별로 서운한 표정이 아니었다. 녀석의 관심은 오직 한 쪽에 정렬해 있는 장총들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Y대에 주둔한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총보다는 구식처럼 보였지만 나름대로 노련미가 엿보이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나는 억울한 마음뿐이었다.

“소장님 비상태세가 언제쯤 풀릴까요?” 소장 옆에 앉아 있던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땅딸이 이기둥처럼 동글 납작하게 생긴 순경이 말했다.

“글쎄. 그 빨갱이 새끼들이 다 잡혀야 집에 가볼 텐데... 주동자 새끼를 놓쳤으니 원...” “그 새끼들 어디 숨었을까요? 포위망 때문에 이 동네 어디에 있긴 있을 텐데요.” “모르지. 그 쥐새끼 같은 놈들 어디서 빨간물이 들어 가지고 그 지랄들이지... 광주새끼들로 모아라서 대학생 새끼들까지 덩달아 미쳐 날뛰니 원...”

소장과 땅딸보 순경이 시국에 관한 뉘드리를 열마간 다 풀어놓았을 때, 김순경이 종합과자세트를 사 가지고 들어왔다.

“맛있는 걸로 산 거야?” 소장이 잔뜩 생색을 냈다. 성구녀석은 예상 밖의 큼직한 과자세트를 보자 연신 실실거렸다. 그러더니 과자세트를 납죽 받아들고는 집에 가서 먹겠다고 말했다.

“니들 혹시 동네에서 이상한 사람 보면 오늘처럼 파출소에 신고해야 한다. 알겠지?” “네.”

우리는 소장의 당부에 꼭 소리나게 대답하고 파출소에서 나왔다. 그나마 다행이었다. 과자라도 마



# 제14회 동대학술상 수상작

## 11면에서 계속

을 편히 나눠 먹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파출소 안에서 과자를 먹었다면 소장 눈치가 보여서 몇 개 집어먹지도 못했을 거였다.

그러나 뜻밖에 성구녀석이 배신했다. 시간이 늦어서 엄마에게 혼날지도 모른다는 종합과자세트에서 껌 두 개를 꺼내, 봉기녀석과 나에게 껌 하나씩을 나눠주고는 서둘러 집으로 가버린 것이었다. 봉기녀석도 어이가 없었던지 시무룩해서 먼저 집으로 가버렸다. 나는 아까부터 배에서 나는 꼬르

륵 소리를 들어온 터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정말 믿을 놈이 없는 세상이었다. 이렇게 살다가는 평생 나만 손해볼 게 뻔했다. 나는 동화 속의 나무꾼을 경멸하기로 결심했다. 사슴이 준 선물은 내겐 필요 없는 것이었다. 내겐 만년필 보다는 과자나 장난감이 더 필요했다. 지금부터라도 나 자신을 위해 배신하고자 한다. 그게 현명한 것 같았다.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가릴 것은 없었다. 나는 다시 파출소로 들어갔다.

“아저씨 있잖아요. 빨강이 신고하면 뭐 줘요?” 나는 빨강이에 힘을 주어 말했다.

“좋은 거 주지. 상도 주고 선물도 주고.” 팽팔보 순경이 대답했다.

“사실 있잖아요. 저 Y대 뒷산에서 수상한 사람 봤어요.”

“정말?”  
“그럼요. 아까 Y대 뒷산에 갔었거든요. 거기 철조망 부근에서 보니까요. 어떤 사람 둘이서 Y대 축구장 구석에 있는 맨홀 뚜껑을 열고 거기로 들어가더라고요.”

내 말을 들은 순경들이 갑자기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소장은 나한테 집에 가 있으라는 말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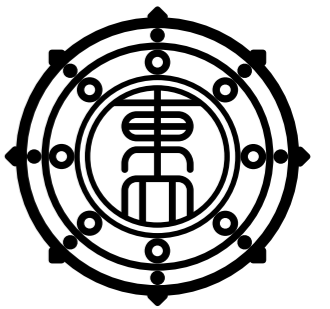
마디만 던지고는 여기저기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나는 또다시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 난 아무런 수확 없이 파출소를 나올 수밖에 없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나는 성당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성당 지하에 있는 화장실이라면 아무한테도 들리지 않고 허리춤의 잡지를 꺼내 볼 수 있을 거 같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살금살금 성당으로 들어갔다. 마침 눈에 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화장실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허리춤에 있던 잡지를 꺼내 보았다. 잡지 속의 여자들은 전과 변함없이 아름다웠다. 풍만한 가슴이나 긴 다

리 그리고 윤기 나는 살빛이, 나를 어지럽게 했다. 내 가슴은 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미숙이 똥구멍은 빨개’. 전에 내가 아무도 모르게 화장실 문에 써놓은 낙서가 눈에 들어왔다. 문득 미숙이와 본부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이 생각났다. 그렇게 욕박질러 왔으니 벌써 와 있을 거였다. 나는 잡지 속의 여자를 다시 한번 노려봤다. 그리고는 성당 밖으로 나갔다.

해가 저물기 시작한 우리 동네로 빨간색의 공기가 스들스들 몰려들고 있었다. 나는 걸음을 서둘렀다.

# 동대학술상



## 제37회 학술상 입상작 발표

### ◆ 인문과학부문

본상 입상작 없음

가작 '인과율에 대한 믿음의 근거' -D. Hume과 I.

Kant의 인과 이론을 중심으로-

장수성(문과대 국민윤리4)

### ◆ 사회과학부문

본상 입상작 없음

가작 한국 실정에 적합한 선거제도의 모색

박복(사과대 정의4)

### ◆ 자연과학부문

본상 N-4-(4-Chlorophenyl)butyl-N,N-diethyl-7-(p-toluenesulfonyloxy)heptylammonium cation의 합성 및 Fluorination에 관한 연구

박정훈(이과대 화학4), 안효춘(이과대 화학4)

가작 '야생근연종과 재배종의 교배, 융합잡종을 이용한 감자의 세균성 무름병 저항성 품종 선발에 관한 연구'

구윤모(생자대 응생4), 문제선(생자대 응생4)

박성진(생자대 응생4), 이영목(생자대 응생4)

### ◆ 심사위원

인문과학부문 양문흠(문과대 철학과 교수)

사회과학부문 양영진(사과대 사회학과 교수)

자연과학부문 박인국(생자대 응용생물학과 교수)

# N-4-(4-Chlorophenyl)butyl-N,N-diethyl-7-(p-toluenesulfonyloxy)heptylammonium cation의 합성 및 Fluorination에 관한 연구

## 제1 장. 서론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난치병일 수록 그 원인은 불분명하며, 따라서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여 정확한 치료를 행하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다. 의사의 육안으로 관찰할 수 없는 내부 장기에 질병이 의심될 경우 수술 등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지만 이 경우 환자가 받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너무 크므로, 간접적인 방법을 이용하게 된다.

인체 내부를 간접적으로 환자의 고통 없이 3차원 영상으로 관찰하는 방법으로는 CT(X-ray Computed Tomography, X선 컴퓨터 단층촬영),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핵자기공명 촬영), SPECT (Single Photon Emission CT, 단일 광자 방출 컴퓨터 촬영), 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등이 있다.

PET은 주로 질병 진단과 대사 물질의 영상에 사용되며, 아주 적은 혈류 전하에 의한 기능 변화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 특히 뇌질환 및 뇌활동 등의 연구에 가장 유용하다. PET는 방사선 동위원소를 핵종으로 이용하는데, 이유는 이들 동위원소 모두 반감기가 짧고 인체대사에 필수적인 원소이기 때문이다. 그중 Fluoride의 반감기가 110분으로 가장 긴 점을 이용해 이 실험에서는 PET에 이용할 수 있는 Fluoride가 치환된 화합물을 합성하였다. Fluoride가 치환되어 있는 물질은 의약품으로 이용될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Fluoride은 수소와 비슷한 steric hindrance를 가진다. 둘째, Fluoride이 치환된 물질의 대사는 강한 C-F 결합에 의해 억제되게 된다. 셋째, 수소와 비교했을 때 Fluoride의 큰 전기음성도는 receptor 친화도를 증가시킨다. 최근의 생화학적으로 활성을 가진 유기 Fluoride 함유 화합물의 합성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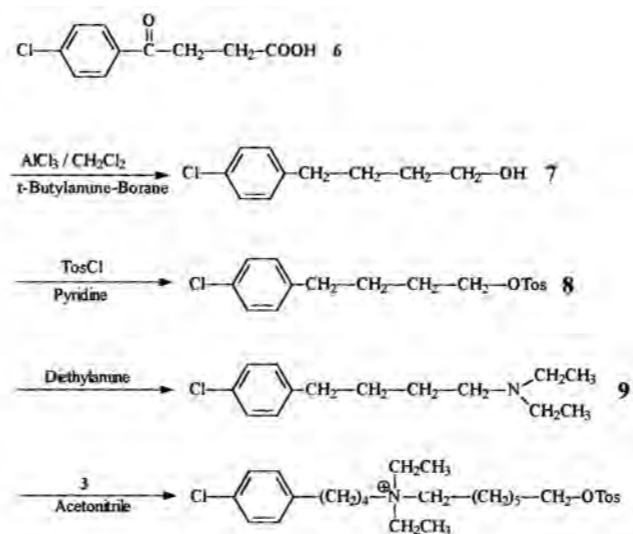
불소치환 과정에서 C-F 결합은 매우 높은 해리 에너지( >50 kJ·mol<sup>-1</sup>)를 가지며 중간물질로써 잘 작용하지 않으며, 다른 alkyl halide와 달리 C-F 결합의 형성시 보다 까다로운 조건을 필요로 한다.

불소치환 과정 중 알코올 -OH기를 halide ion으로 치환하기 위해서 반응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p-toluenesulfonate, methanesulfonate 또는 trifluoromethanesulfonate를 반응시킨다. 이것들은 쉽게 생성되고 분리, 정제하기에 높은 안정성을 가진다. 특히, Allylic 이나 benzylic alcohol의 경우에는 intermediate sulfonate를 거쳐 생성물로 alkyl chloride를 얻기가 더 쉽다. 반응 중간 생성물이 1·2차 알코올의 sulfonate ester에 Alkali metal halide 나 tetrabutylammonium halide를 반응시키면 높은 수득률의 alkyl halide를 얻게 되는데, 그 생성물은 configuration 변화를 보인다. 1·2차 알코올의 sulfonate ester를 alkyl fluoride로 치환시키는 불소치환 과정의 경우에 KF, tetra-n-butylammonium fluoride(TBAF), Et<sub>3</sub>N·2HF, CsF와 tris(diethylamino)-sulfonium(trimethylsilyl)difluoride(TAS-F)를 반응시키면 효과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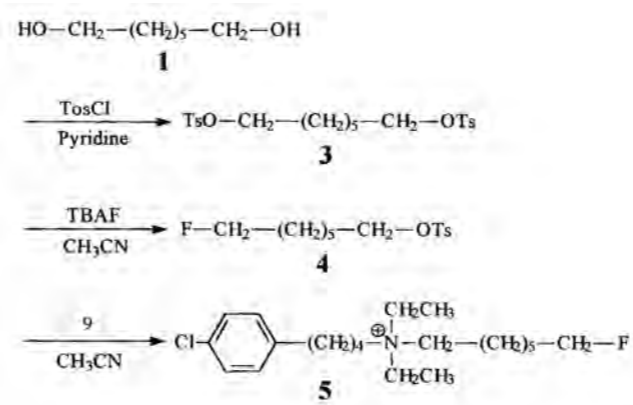
N,N-Diethyl-N-(7-fluoroheptyl)-4-(4-chlorophenyl)butylammonium p-toluenesulfonate(5)를 합성하는 과정에서 시작물질은 1,7-Heptanediol과 p-Toluenesulfonyl chloride를 사용하고 용매는 Pyridine을 사용하여 생성물을 얻는데, 그 생성물은 두 말단 hydroxy기 대신에 반응성이 큰 tosyl기로 치환시킨다. 그 치환물에 Tetrabutylammonium fluoride·3H<sub>2</sub>O와 용매 Toluene을 반응시켜 말단 tosyl기 하나는 fluoride로 치환시킨다. 그 fluoride 치환물질인N-4-(4-Chlorophenyl)butyl-N,N-diethylamine(9)와 용매 Acetonitrile을 반응시켜 최종 생성 물질인 N,N-Diethyl-N-(7-fluoroheptyl)-4-(4-chlorophenyl)butyl-ammonium p-toluenesulfonate(5)를 얻는다.

N-4-(4-Chlorophenyl)butyl-N,N-diethyl-7-(p-toluenesulfonyloxy)heptylammonium p-Toluenesulfonate(10)를 합성하는 과정에서는 3-(4-

Chlorobenzoyl)propanoic acid, Boran-tert-butylamine-complex, Aluminium chloride와 용매Dichloromethane을 반응시켜 benzoyl기의 C=O을 CH<sub>2</sub>로 환원시키고, propanoic acid의 C=O을 CH<sub>2</sub>로 환원시킨다. 그 환원 물질에 p-Toluenesulfonyl chloride와 용매 Pyridine을 반응시켜 말단의 -OH기를 -OTos로 치환한다. 치환된 물질에 Diethylamine과 반응시켜 말단의 -OTos기를 치환시켜 tertiary amine을 합성한다. 그 물질에 7-Di-4-Toluenesulfonyloxyheptane(3)와 용매 Acetonitrile을 반응시켜 N-4-(4-Chlorophenyl)butyl-N,N-diethyl-7-(p-toluenesulfonyloxy)heptylammonium p-Toluenesulfonate(10)를 <sup>1</sup>H-NMR로 확인한 결과 말단에 tosyl기를 가진 ammonium cation을 얻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Scheme 1 N-4-(4-chlorophenyl)butyl-N,N-diethyl-7-(p-toluenesulfonyloxy)heptylammonium p-toluenesulfonate



[scheme2] N,N-Diethyl-N-(7-fluoroheptyl)-4-(4-chlorophenyl)butylammonium cation synthesis.

## 제2 장. 실험

### 2.1 시약 및 기기

#### 2.1.1 시약

Acetonitrile은 순도 99.8%의 Merek chemika의 제품을 사용하였고, Aluminium chloride는 순도 98%이며, p-Toluenesulfonyl chloride는 monohydrate는 순도 98%인 Jusnei chemika의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Boran-tert-butylamine은 Acros chemika제품을 사용하였다. 3-(4-

Chlorobenzoyl)propanoic acid와 1,7-Heptanediol은 순도 95%의 제품을 Janssen chemika 제품을 사용하였고, Diethylamine은 순도 98%인 Yakuri chemika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Diethylether는 순도 95%이며, Pyridine은 순도 99.8%이고, Tetrabutylammonium fluoride는 순도 97%, Toluene은 순도 99%, Hydrochloric acid는 모두 Fluka chemika 제품을 사용하였다.

Dichloromethane과 Acetone은 덕산 chemika 제품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TLC 사용용매로 Dichloromethane은 A, n-Hexane은 B, 그리고 Acetone은 C로 표기하였다.

### 2.1.2 기기

<sup>1</sup>H-NMR Spectrum은 Varian Gemini-200 NMR Spectrum를 사용하여 얻었으며, IR-Spectrum은 Bomem MB 100 Serise FT-IR Spectrometerserise를 이용하여 얻었다.

### 2.2 실험방법

#### 2.2.1 7-Di-4-Toluenesulfonyloxyheptane (3)

Argon gas 하에서 two-neck 100 ml 둥근 플라스크에 25 ml의 absolutd pyridine을 넣고 4.45 g ( 33.66 mmol ) 1,7-Heptanediol을 녹인 후, 15 ml의 absolutd pyridine에 14.12g (74.05 mmol) p-Toluenesulfonyl chloride를 녹여 아주 소량씩 넣었다. Ice-bath에서 15분간 stirring 하고 실온에서 1시간 stirring 했을 때 투명한 노랑색에서 투명한 분홍색으로 색을 띠었다. TLC( A : B : C = 9 : 10 : 1 )로 반응을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ice water를 넣고 0 °C 상태에서 15분간 stirring하고 실온에서 1시간 stirring 하였다. 다음에 separate funnel 에 반응물을 넣고, ice water, 0.1N Hydrochloric acid 와 Dichloromethane을 넣고 흔들고 나서 유기층을 받고, 두 번 더 Dichloromethane을 물층에 넣어 흔들 후, 유기층을 분리해 받은 후, 무수 sodium sulfate를 넣어 수분을 제거했다. TLC( A : B : C = 9 : 10 : 1 )로 다시 확인한 후, spot이 두 개였으므로, column을 해서 분리한 후, evaporation하여 product를 얻었다.

Rf = 0.62

Column 용매	Dichloromethane
product 양	9.53g ( 21.63 mmol )
Yield	64.43 %
product의 특성	하얀색 고체

<sup>1</sup>H-NMR Spectrum (200 MHz) : = 7.73 (d, 4H, Ar-H), 7.30 (d, 4H, Ar-H), 3.96 (t, 4H, O-CH<sub>2</sub>), 2.44 (s, 6H, CH<sub>3</sub>), 1.7-1.1(m, 10H)

#### 2.2.2 7-Fluoroheptyl-p-toluenesulfonate (4)

Argon gas 하에서 two-neck 100 ml 둥근 플라스크에 7.0g ( 15.89 mmol ) Ditosyl compound( 3) product )를 20 ml 무수 Acetonile에 녹인다. one-neck 100 ml 둥근 플라스크에 15 ml 무수 Acetonile을 넣고 5.36g ( 17.00 mmol ) tetrabutylammonium fluoride를 녹인 후 evaporation을 하였다. 이것을 위의 용액에 넣은 후, 85 °C에서 8시간



# 제14회 동대학술상 수상작

## 본상 당선소감

## 배움을 확인한 좋은 기회



박정훈 · 안효준 (이과대 화학4)

“지금 도전하십시오!”

한달 전 학교신문을 보던 중 제 눈에 확 띠 광고 문구입니다.

4학년 2학기, 대학생활을 접을 이 귀중한 시간을 아무런 의미 없이 흘리고 있음을 느끼던 시기였기에 그 문구는 저에게 충분히 관심을 끌게 했고, 작년 이맘때부터 사계절이 바뀌도록 후배 효준이와 같이 한 실험이 마지막 단계에 이른 것도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입상과는 상관없이 4년 동안 화학을 배운 제가 화학을 전공했음을 스스로 확인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논문을 제출하고 동대신문사를 갔다왔다는 것만으로도 무언가를 마무리했다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동대학술상에 투고를 하는 과정은 저에게 전공에 대한 애착을 높여주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제 실력에 과분한 실험주제를 주신 유국현 교수님과 도움이 되어주셨던 대학원 조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자연과학부 심사평

## 정확한 분석과 기초적인 정보제공

본상으로 당선된 'N-4-(4-Chlorophenyl) butyl-N,N-diethyl-7-(p-toluenesulfonyloxy)heptylammoniumcation의 합성 및 fluorination에 관한 연구'(박정훈, 안효준·화학4)는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장치(PET)에 이용되는 심장혈류 측정 추적자를 개발하는 데 관련된 임상화학논문이다.

이 추적자는 혈류저하도 기능 변화를 영상화하므로써 심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데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화합물이다. 실험 방법에 있어 합성과정은 물론 합성된 유기화합물을 NMR 분석을 통해 정확하게 분석 확인 한 것은 매우 우수한 실험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PET에 fluoride를 치환시킨 화합물을 합성하였는데, 이 화합물은 질병 진단과 대사물질의 영상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학술적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논문을 제 3회 동대학술상 자연과학 부문에 본상으로 추천하였다.

또한 가작으로 추천한 '야생근연종과 재배종의 교배, 융합잡종을 이용한 감자의 세균성 무름병 저항성 품종 선발에 관한 연구'(응용생물학과 4년·구운모, 문제선, 박성진, 이영묵)는 '야생근연종과 재배종의 교배, 융합잡종을 이용한 감자의 세균성 무름병 저항성 품종 선발에 관한 연구'로서 세균성 무름병에 저항성이 있는 개체를 선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저항성으로 선발된 개체의 유전 인자를 RAPD방법을 이용하여 찾은 다음, 그 유전인자를 재배종 감자에 형질전환 시켜 무름병에 대한 저항성 개체를 선별하는데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본 실험에서 재배종, 융합체 및 융합체 자손, 야생종, 반수체와 야생종의 교배종, 반수체 등 39종 73개체에 대한 저항성 검정에서 재배종 Dejima, Katahdin, 야생종 S. cardiophyllum이 강한 저항성을 나타내었고, 융합체 자손 CL-31, C75-5, C75-5-297이 저항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완전 저항성을 나타내는 품종을 선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들 방법을 종합하여 작물위생을 철저히 관리하며 발병초기에 화학적 방법과 생물적 방법을 혼용한 종합적 방제방법을 사용할 경우 높은 방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본문을 가작으로 추천한다.

박인국  
(생지대 응용생물학과 교수)

12면에서 계속  
가열하였다.  
TLC(A : B : C = 9 : 10 : 1)로 반응이 완결되었음을 확인한 후, evaporation을 하고, 3 ml Toluene을 넣어 evaporation을 하였다. TLC 확인 후, spot이 2개였으므로, column을 해서 분리한 후, evaporation하여 product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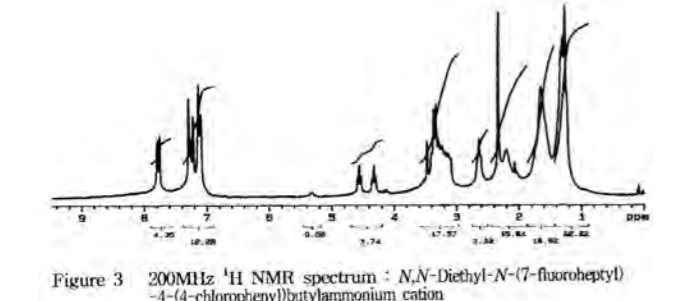
Rf = 0.58  
Column 용매 Dichloromethane  
product 양 1.31g ( 4.54 mmol )  
Yield 21.5 %  
product의 특성 투명한 열은 노란색의 점성 있는 액체

2.2.3 N,N-Diethyl-N-(7-fluoroheptyl)-4-(4-chlorophenyl) butylammonium p-toluenesulfonate (5)

Argon gas 하에서 two-neck 50 ml 둥근 플라스크에 5 ml 정제한 무수 Acetonitrile을 넣고 400 mg ( 1.39 mmol ) Fluorotolylate compound ( ( 4 ) product )와 330 mg ( 1.38 mmol ) Tertiary amine ( ( 9 ) product )을 녹인 후, 80°C ~ 85°C에서 20시간을 reflux한 후 TLC(Ethyl Acetate : Dichloromethane : Methanol = 5 : 5 : 2)로 반응이 완결되었음을 확인한 후, n-Hexane을 한 방울씩 가한 후, 약간 노란층이 형성되었다. 노란층을 separate funnel로 분리한 후 Dichloromethane과 water를 넣어 흔든 후, 유기층을 받아 무수 sodium sulfate를 이용해 수분을 제거하여 evaporation하여 product을 얻었다.

product 양 0.484 g ( 1.36 mmol )  
Yield 98.6 %  
product의 특성 점성이 있는 투명한 액체

<sup>1</sup>H-NMR Spectrum (200 MHz) : = 7.76 (d, 2H, CH<sub>2</sub>Ar-H), 7.24 (d, 2H, ClAr-H), 7.13 (d, 2H, CH<sub>2</sub>Ar-H), 7.09 (d, 2H, ClAr-H), 4.42 (dt, 2H, CH<sub>2</sub>-F), 3.31 (q, 4H, NCH<sub>2</sub>CH<sub>2</sub>), 3.20 (m, 2H, N-CH<sub>2</sub>), 3.1 (m, 2H, N-CH<sub>2</sub>), 2.60 (t, 2H, ArCH<sub>2</sub>), 2.29 (s, 3H, ArCH<sub>3</sub>), 1.60 (m, 8H, CH<sub>2</sub>CH<sub>2</sub>CH<sub>2</sub>).



2.2.4 4-(4-chlorophenyl)butanol (7)  
Argon gas 하에서 two-neck 250 ml 둥근 플라스크에 100 ml Dichloromethane을 넣고 11.28g ( 84.65 mmol ) Aluminium chloride를 녹였다. 그 용액에 13.91g ( 160 mmol ) Boran-tert-butylamine-complex를 넣어 15분간 stirring하였다. Ice-bath로 차갑게하여 투명한 색깔이 되면 6.0g ( 28.2mmol ) 3-(4-Chlorobenzoyl)propanoic acid를 아주 소량씩 조심스럽게 Argon gas를 열어둔 상태에서 넣었다. 48°C ~ 52 °C 상태로 자주 TLC(A : B : C = 9 : 10 : 1)로 확인하고 약 72시간 동안 가열한 후 반응이 완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separate funnel에

반응물과 0.1N Hydrochloric acid를 넣고 흔들고 나서 유기층을 분리한 후 Dichloromethane을 물층에 넣어 흔든 후 유기층을 분리해 받은 후 무수 sodium sulfate를 넣어 수분을 제거했다. TLC ( A : C = 9 : 1 )로 다시 확인한 후 spot이 2개였으므로, Column을 해서 분리한 후 evaporation하여 product을 얻었다.

Rf = 0.66  
Column 용매 Dichloromethane : Acetone = 9 : 1  
product 양 4.32g ( 23.4 mmol )  
Yield 68.8 %  
product의 특성 맑은 노란색 액체

<sup>1</sup>H-NMR Spectrum (200 MHz) : = 7.24 (d, 2H, Ar-H), 7.07 (d, 2H, Ar-H), 3.62 (t, 2H, HOCH<sub>2</sub>), 2.57 (m, 3H, Ar-CH<sub>2</sub> and OH), 1.7-1.4 (m, 4H, CH<sub>2</sub>-CH<sub>2</sub>)

2.2.5 4-(4-chlorophenyl) butanyl tosylate (8)

Argon gas 기체하에서 100ml two-neck round flask에 3.82g (20.7mmol) (7) product와 7.91g(41.40mmol) p-Toluenesulfonyl chloride를 넣고, 50ml의 Pyridine을 ice-bath 장치하에서 30분간 혼합하여 stirring했다. 실온으로 3시간 방치한 후, TLC(A : B : C = 24 : 25 : 1)로 반응이 완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0°C에서 15분간 stirring한 후 separate funnel에 반응물을 넣고 ice water, 0.1N Hydrochloric acid와 Dichloromethane을 이용해 층분리를 하였다. 무수 sodium sulfate를 이용해 수분제거후, evaporation한 후 TLC(A : B : C = 24 : 25 : 1)로 확인을 하여 spot이 2개였으므로 column을 해서 분리하고 evaporation하여 product을 얻었다.

Rf = 0.49  
column 전개용매 Dichloromethane : n-Hexane = 3 : 1  
product양 3.25g ( 9.59 mmol )  
Yield 46.3%  
product의 특성 점성있는 투명한 고체

<sup>1</sup>H-NMR (200MHz) : = 7.70 (d, 2H, CH<sub>2</sub>Ar-H), 7.33 (d, 2H, CH<sub>2</sub>Ar-H), 7.20(d, 2H, ClAr-H), 7.05(d, 2H, ClAr-H), 4.01(m, 2H, OCH<sub>2</sub>), 2.55(m, 2H, ClAr-CH<sub>2</sub>), 2.44(s, 3H, CH<sub>3</sub>), 1.80~1.50(m, 4H, CH<sub>2</sub>-CH<sub>2</sub>-CH<sub>2</sub>)

2.2.6 N-4-(4-chlorophenyl)butyl-N,N-diethyl amine (9)

Argon gas 기체하에서 200ml two-neck round flask에 3.20g (9.45mmol) (8) product와 90.0ml 정제한 Diethyl amine를 넣고 50°C ~ 56°C를 유지하면서 10시간동안 반응을 진행시켰다. TLC(A : B : C = 9 : 10 : 1)로 반응이 완결되었음을 확인한 후, Diethyl amine을 evaporation을 하여 하얀색 고체를 얻었다. separate funnel에 얻은 고체를 넣고 2N sodium hydroxide를 넣고 흔든 후 Dichloromethane을 3회 가해 유기층을 받아 무수 sodium sulfate를 이용해 수분을 제거하여 evaporation하였다. TLC ( Dichloromethane : n-Hexane : Methanol = 9 : 10 : 3)로 다시 확인 후, spot이 2개였으므로 column을 해서 분리하고 evaporation하여 product을 얻었다.

column 전개용매 Dichloromethane & Methanol  
product양 1.07g(4.46mmol)  
Yield 47.2%  
product의 특성 진한 노란색 고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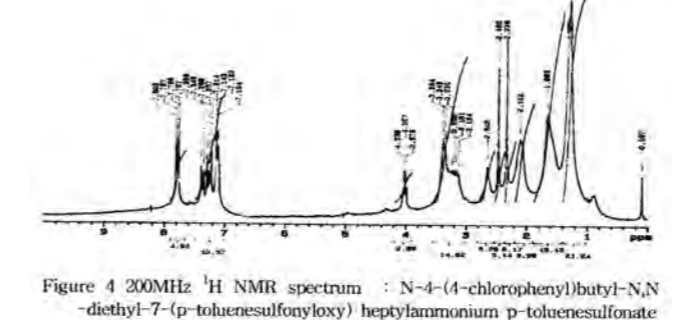
<sup>1</sup>H-NMR (200MHz) : = 7.20(d,2H,Ar-H), 7.05(d,2H,Ar-H) 2.50(q,4H,-CH<sub>2</sub>CH<sub>3</sub>), 2.50(m,4H,CH<sub>2</sub>(CH<sub>2</sub>)<sub>2</sub>-CH<sub>2</sub>), 1.7~1.4 (m,4H,CH<sub>2</sub>-CH<sub>2</sub>-CH<sub>2</sub>), 1.00(t,6H,CH<sub>3</sub>),

2.2.7 N-4-(4-chlorophenyl)butyl-N,N-diethyl-7-(p-toluenesulfonyloxy) heptylammonium p-toluenesulfonate (10)

Argon gas 기체하에서 100ml two-neck round flask에 2.02g (4.59mmol) (3) product를 먼저 넣은 후 5.00ml 정제한 무수 Acetonitrile을 넣고 서서히 가열하여 녹였다. 1.06g(4.42mmol) (9) product에 5.00ml 정제한 무수 Acetonitrile을 넣어 녹인 후, 용액에 천천히 넣었다. 그리고 80°C ~ 85°C에서 20시간을 reflux한 후 TLC(Ethyl Acetate : Dichloromethane : Methanol = 5 : 5 : 2)로 반응이 완결되었음을 확인한 후, Diethylether에 위 용액을 천천히 넣으면 불투명한 노란색에서 뿌연 흐린 흰색으로 변한 후 노란 색이 생겼다. 20분간 stirring한 후 separate funnel로 분리한 후 Dichloromethane과 water를 넣어 흔든 후 유기층을 받아 무수 sodium sulfate를 이용해 수분을 제거하여 evaporation하여 product을 얻었다.

product양 0.060g(0.47mmol)  
Yield 10.74%  
product의 특성 점성이 있는 투명한 고체

<sup>1</sup>H-NMR (200MHz) : = 7.79(d, 2H), 7.75(d, 2H), 7.35(d, 2H), 7.23(t, 2H), 7.10(d, 4H), 3.99(t, 2H, CH<sub>2</sub>O), 3.38(d, 4H, NCH<sub>2</sub>CH<sub>2</sub>), 3.32(m, 2H, NCH<sub>2</sub>), 2.65(t, 2H, ClArCH<sub>2</sub>), 2.45(s, 3H, CH<sub>3</sub>Ar, Tosylatester), 2.31(s, CH<sub>3</sub>Ar, Tosylatanion), 1.64(m, 8H, 4 CH<sub>2</sub>), 1.31(m, 6H, 3 CH<sub>2</sub>), 1.26(t, 6H, CH<sub>2</sub>CH<sub>2</sub>N)



## 제3장. 결과 및 토의

N,N-Diethyl-N-(7-fluoroheptyl)-4-(4-chlorophenyl)butylammonium p-toluenesulfonate (5)를 합성하는 과정에서 시작물질은 1,7-Heptanediol과 p-Toluenesulfonyl chloride를 사용하고 용매는 Pyridine을 사용하여 생성물을 얻었는데, 그 생성물은 두 말단 hydroxy기 대신에 반응성이 큰 tosyl기로 치환시킨다. 그 치환물에 Tetrabutylammonium fluoride · 3H<sub>2</sub>O와 용매 CH<sub>3</sub>CN을 반응시켜 말단 tosyl기 하나는 fluoride로 치환시켰다. 그 floride 치환물질에 N-4-(4-Chlorophenyl)-butyl-N,N-diethylamine (9)와 용매 Acetonitrile을 반응시켜 최종 생성 물질인 N,N-Diethyl-N-(7-fluoroheptyl)-4-(4-chlorophenyl)butylammonium p-toluene-sulfonate (5)를 <sup>1</sup>H-NMR로 확인한 결과 hydroxy기가 floride로 치환된 ammoniumcation으로 치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N-4-(4-Chlorophenyl)butyl-N,N-diethyl-7-(p-toluenesulfonyloxy)heptylammonium p-Toluenesulfonate(10)를 합성하는 과정에서는 3-(4-Chlorobenzoyl)propanoic acid, Boran-tert-butylamine-complex, Aluminium chloride와 용매 Dichloromethane을 반응시켜 benzoyl기의 C=O를 CH<sub>2</sub>로 환원시키고, propanoic acid의 C=O를 CH<sub>2</sub>로 환원시켰다. 그 환원 물질에 p-Toluenesulfonyl chloride와 용매 Pyridine을 반응시켜 말단의 -OH기를 -OTos로 치환하였다. 치환된 물질에 Diethylamine과 반응시켜 말단의 -OTos기를 치환시켜 tetra amine을 합성하였다.

그 물질에 7-Di-4-Toluenesulfonyloxyheptane(3)와 용매 Acetonitrile을 반응시켜 N-4-(4-Chlorophenyl)butyl-N,N-diethyl-7-(p-toluenesulfonyloxy) heptylammonium (10)을 <sup>1</sup>H-NMR로 확인한 결과 말단에 tosyl기를 가진 ammoniumcation을 얻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인문과학부 심사평

## 주제선정 · 치밀한 주장 능력 떨어져

심사 대상으로 주어진 논문 세 편을 읽었으나, 입상작을 낼 수는 없었다. 우선, “국어 교육에서 ‘보기’ 영역의 설정 가능성 고찰”(국어교육과, 강현구 군)은, 제목 그대로, ‘보기’를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의 네 영역처럼 국어 교육의 한 영역으로 삼아야 할 필요성을 주제로 삼고 있다.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의도되거나 조작되는 이미지를 보고 거기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고 숨겨진 의도를 분석할 필요성은 논평자도 필자와 함께 절실히 느낀다. 그러나 이것을 국어 교육의 새 영역 설정의 사실상 거의 유일한 이론적 근거로 내세우는데는 적지 않은 약점들이 있다. 흥미롭고 대단한 착상이며, 또 나름대로 많은 성찰을 한 논문임에 틀림없으나, 앞으로 더 설득력 있는 논거의 제시를 기다리기로 한다.

“현대 역사학의 동향과 전망-역사학의 위기 극복을 위한 한 견해”(사학 전공, 김연옥 양)는 랑케, 카, 및 포스트모더니즘 역사학을 중심으로 한 글이다. 논평자는 필자가 많은 독서를 통해 주제를

무난히 소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연구 동향을 요약적으로 소개하는 데 치중하고 있어, 자신의 논변 능력을 보이는 데는 미흡하다고 판단되었다.

“인과율에 대한 믿음의 근거”(국민윤리학 전공, 장수성 군)도 여러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예컨대, 흠과 칸트의 견해를 비교 분석하면서 칸트의 것을 이론적으로 변호하지 않고 처음부터 타당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점, 흠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constant conjunction’을 제대로 다루고 있지 못한 점, 여러 곳에서 개념 및 번역의 부정확 (따라서 이해의 부족) 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논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비교적 치밀하게 논변을 전개하려고 한 점을 평가해서 가작으로 추천한다. 앞으로 인문 분야 응모자들은 자신의 능력에 맞는 주제를 선택하고, 논리적으로 치밀한 자기 주장을 전개하는 일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길 바란다.

양문흠  
(문과대 철학과 교수)

## 사회과학부 심사평

## 실험 가능성 없는 공허한 논의 태반

사회과학은 현실과학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세계에 발을 딛고 자료수집을 통하여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설명하거나 앞으로 생겨날 일들을 예측하려 노력한다.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되어 모든 사람이 동의하기 어려운, 필자 혼자 생각하는, 도달해야 할 이상형이라는 ‘담위’를 설정해 놓고 별다른 논거 없이 “정부는, 학교당국은, 또는 국민모두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는 식의 논의는 설득력도 없거나 공허하기만 하고 따라서 제대로 된 사회과학 논문이라 부르기조차 어렵다.

우리가 ‘담위’를 나쁘다고 생각하거나 몰라서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바로 그 당연한 것들이 왜 현실세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하는 원인을 직시하고 작은 사항이라도 실천 가능한 타개책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제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혼돈이 7편의 출품작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보다

는 상대적으로 작은 문제점이라 하겠으나 여전히 치명적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자기가 섭렵한 자료를 모두 열거하려는지, 주제와 관련없는 불필요한 논의를 장황하게 하다가 막상 핵심적인 논의는 피상적 서술에 그치고 마는 것, 어느 특정 관점에 매몰되어 그것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 읽어 보지도 않은 외국문헌을 나열하거나 외국어를 남용하는 것 등이 문단 나누기도 제대로 못하여 주어·술어가 일치되지도 않는 긴 문장서술과 어우러 질때 심사자는 거의 포기할 수 밖에 없다.

박복(점치외교 4학년)의 글 역시 앞서 논의한 모든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나 다만 그 정도가 다른 응모자들 보다 덜 심하다는 점에서, 더 나은 글로 고쳐질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며 가작으로 밀어 보았다.

양영진  
(사과대 사회학과 교수)

디지털 카드

# 한번 클릭으로 새로운 카드를...

## 독특하고 색다른 카드, 디지털 카드 활성화에 기여

크리스마스, 연말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카드이다. 입체영상 카드, 멜로디 카드, 조립식 카드 등 색다른 카드를 구입하기 위해 문구점 속 많은 사람들을 제치는 것도 이만 저만 힘든 일이 아니다. 이제 일일이 필체를 남겨서 주고받던 카드는 옛 기억 속으로 묻어버리고 단 한번의 클릭으로 몇 초안에 카드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 인터넷 전자우편카드의 등장으로 생일, 졸업, 입학 등 특별한 의미가 담긴 낱을 인터넷 상의 수없이 많은 카드, 직접 만들고 색, 명암, 글자를 배치하는 카드 등 짧은 층의 기호에 부합하는 색다른 카드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절차 또한 E-mail 형식과 유사해 누구나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통신 수단이 일반

화되어 가고 있는 요즘 단순한 문자교환에 만족할 수 없는 신세대들은 보다 색다른 카드를 원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여기에 부응하듯 영화, 애니메이션 등을 동영상으로 보내는 카드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는 전자우편카드가 점차 일상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새 천년을 맞이하는 지금 날로 발달되어 가는 통신망덕분에 전통적인 서신교환이 줄어들고 있다. 가상현실로만 가능하리라 믿었던 통신수단의 보편화로 편리함에 대한 사람들의 욕망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차가운 기계문명 앞에 너나 할 것 없이 주저앉아 버린다면 따뜻한 필체에 대한 희미한 옛 추억만 떠오르지 않을까?

이소라 기자  
choya@mail.dongguk.ac.kr

# 고래산 졸참나무가 주는 새천년의 다짐

세월 어느날, 일상의 번거러움을 속아낼 요량으로 여주 근처에 있는 고래산을 찾았다. 높지는 않지만 긴 품으로 여주 이천을 잇는 산세가 여간 아늑한 게 아니었고 졸참나무 숲이 잘 형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팔부 능선을 올라 길게 늘어선 능선 허리를 걷고 있을 때 보게된 기막힌 광경! 그것은 바로, 백여미터 간격으로 건설된 고압 송전탑이 우리가 올라 온 반대편 사면을 모조리 깎아내고 있는 모습이었다. 어지러이 잘려 신음하는 졸참나무 사이로 꽂혀 있는 기세등등한 송전탑은 혁명정부의 피에 젖은 깃발처럼 사나웠고 나무가 잘릴 때 떨어진 듯한 새 동지는 주살된 충신 같았다.

활기차게 새로운 천년을 계획하고 설계해야 할 이 시점에서 바라본 인류 문명의 상황은 대단히 위태롭다. 이윤 추구를 위

해 부단히 확대되는 생산, 그에 따른 무절제한 소비 그리고 그 결과로 초래되는 자연의 파괴와 오염, 거기에 핵이나 전쟁의 위협, 인간성의 상실과 소외의 심화 등 여러 문제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인간 사회가 안고 있는 생태위기의 문제이다. 이런 현실이 왜 초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이 가능할 터이지만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자연을 오직 수단과 방법으로 삼은 '성장 제일주의'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인간 중심주의'가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다. 생태계의 구조는 흔히 유기적인 질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개체와 개체간의 상호 존중과 협력만이 생태계를 유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중심주의에 전혀 한계를 설정하지 않는 이 사회에서 이러한 유기적 질서는 철저히 파괴될 수밖에

# 달하나 천강에

에 없다. 만물은 마치 한 가족을 이어주는 피와도 같이 맺어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인간은 생명의 그물을 짜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그물의 한가닥에 불과하다는 인디언 추장 시애틀의 지혜를 이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산을 내려오는 시간, 내 마음은 무거웠다. 이론과 실천이 분리된 삶,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이란 결국 고래산의 졸참나무처럼 다른 인간에 의해 주살되겠지.

또 한 해가 시작되고 있다. 무엇이 달라질까보냐고 하면서도 너도 나도 삶을 새로이 다지게 된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진정한 다짐과 실천은 다른 개체와의 동등한 결속력을 인지하여 자연을 겸허히 끌어안고 두루 살피는 개인을 갖는 일일 것이다.



김혜숙  
사범대  
국어교육과 교수

# 탈수습기

## 강하고 당당한 정기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3만 독자 앞에 다짐한다



박현호(인문대 국어국문학부)

'누군가에게 무엇이 되라' 힘이 들 때마다 용기와 정신적 강인함을 심어주었던 이 한마디가 나를 대학까지 인도해 주었다.

하지만 이 강인함과 용기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대학의 무절제한 자유로움 속에서 나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었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무의미한 나날을 보냈다.

그렇게 내 자신을 위해 뛰어다니기에 바빴을 때 신문사라는 존재는 아무런

예고 없이 다가왔고, 나의 신념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신문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기자 이전의 모습보다 더욱 성숙해져 가는 자신을 발견해나갔다. 하지만 얼마 후 새로운 환경 속에서 적응해야

만 한다는 강박관념, 취재원과의 의견 대립, 아이템 찾기에 바빴던 회전무대, 밥을 지새우며 참여했던 조판,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내가 과연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라며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런 내 자신이 두려워 연신 거울 속에 모습을 비춰 보곤 했었고, 신문사에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신문사는 나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으며 오히려 나를 더욱 어둠 속으로 떠밀었다.

어둠 속에서 앞을 보지 못해 부딪치고 넘어지며 많은 상처를 남겼다. 그 상처들은 6개월 동안 실새없이 뛰어 다녔던 취재와 밤샘 작업으로 이전 보다 더욱 단단하고 부드러운 새 살로 돌아났다.

그제서야 스스로 살아남는 방법만을 가르친 후 어느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어 살려주지 않는 곳이 바로 신문사라는 걸 깨달았다.

신문사는 스스로 살아남는 자만을 필요로 했고, 때론 그런 용기를 담보로 잡은 사람을 배려해주는 곳이라는 사실도. 수습이라는 6개월간의 짧고도 긴 어둠을 지나 맞이한 '정기자'. 많은 역경과 시련이 닥쳐와 지난 6개월보다 더 험하고 어두운 곳으로 내몰릴 지도 모른다. 하지만 두렵지 않다.

진수성찬이 차려진 식탁 위의 작은 간장, 바로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간장과 같은 존재가 삶의 목표이다.

동약이라는 식탁 위에 모든 동약인이 필요로 하는 간장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을 3만독자 앞에 다짐한다.

박현호 기자  
terry@mail.dongguk.ac.kr

21세기 문화산업

# '캐릭터 태풍'이 불어온다

## 우리나라 캐릭터 산업 아직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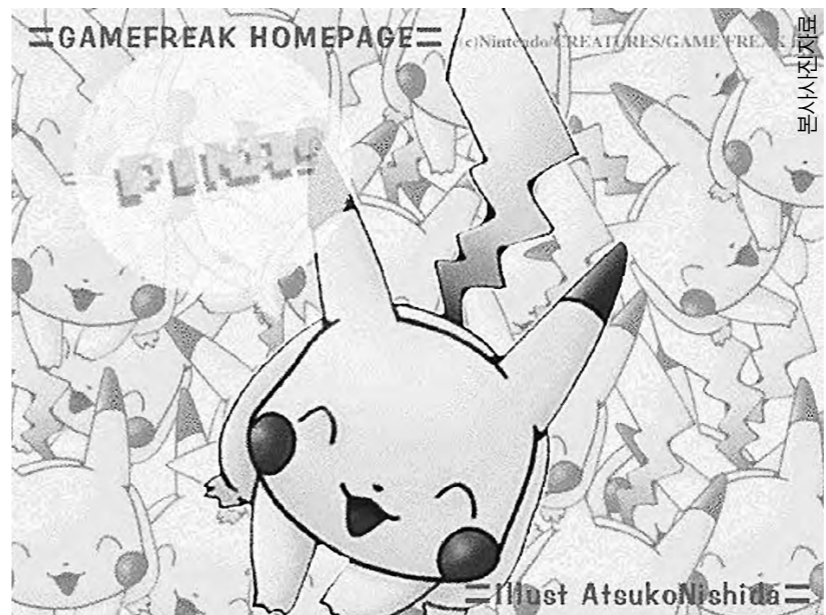
연극, 영화, 만화 등의 매체뿐 아니라 다양한 행사에서 빛을 받고 있는 개성적인 무엇, 혹은 누구. 간단하게 캐릭터를 풀이하자면 이렇다. 언제부터인가 캐릭터는 우리 생활속에 한발짝씩 가까이 들어오고 있다. 소소한 목욕용품에서부터 문구, 심지어 햄버거 하나를 먹더라도 캐릭터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선택하기 어렵다. 디자인이 세상을 바꾼다면 그 디자인을 이끌어 가는 힘은 캐릭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최근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일본 만화영화 캐릭터 포켓몬은 캐릭터가 경제·문화 전반에 끼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식품 산업, 영화 산업, 팬시 산업 등등 포켓몬이 차지할 수 없는 산업이란 존재하지 않아 보인다. 포켓몬을 제작한 일본의 닌텐도 사는 캐릭터의 자국화를 슬로건으로 내걸며 문화에까지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캐릭터를 수출할 때 각 나라의 정서에 맞는 이름을 부여하여 친근한 이미지로 문화적 거부감

을 없애는 것이다. 포켓몬 뿐 아니라 텔레토비 역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쉽게 세계화에 성공했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냈다.

이처럼 캐릭터가 산업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캐릭터 산업은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99년 한 해동안 캐릭터의 춘추전국 시대라 불릴 만큼 자체적인 캐릭터 제작이 많았으나 지속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아 기공룡 들리의 선전, 용가리의 해의 배급 등 긍정적인 발전상을 모색해가고 있으나 아직도 대중들은 마키 마우스와 루니툰 곰돌이 푸우, 포켓몬, 에반게리온에 열광한다. 한때 불었다 곧 잠잠해 지는 캐릭터 제작으로 해외 캐릭터들을 누를 수 없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지자체로 산발적인 캐릭터 제작이 이루어 지고 있고 연예인들이나 저명인사들의 캐릭터 제작이 간간히 상품화되고 있다. 캐릭터는 유행처럼 스쳐가는 단발적인 현상이 아니다. 1928년부터 70여년간 우리는 마키 마우스를 보고 자랐고 지금도 마키 마우스 칫솔, 치약을 쓴다.

21세기 새로운 문화 산업의 태풍 한가운데 캐릭터가 그 힘을 발휘하고 있다. 우리만의 독특한 캐릭터 제작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새 천년 문화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이다. 문화부



### 매체비평

#### -광고편

#### '인터랙티브 광고'



ARS집계결과 N세대는 사랑을 택했다.

“우정과 사랑, 당신은 무엇을 택할 것인가”

을 압도적으로 누른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15일 까지 접수된 1백 50여만통의 전화 및 인터넷 투표 결과, 한 여자의 68%가 사랑을 선택했다. 특히 10대에서 20대 초반의 N세대는 80% 이상이 사랑을 선택했다. 이 결과에 따라 지금 방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잘못된 만남' 편이다. 바야흐로 시청자의 의견으로 광고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광고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지금 한술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광고가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다. 효진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원빈이 민희의 손바닥에 전화번호를 써주는 순간 자리로 돌아온 효진, 아슬아슬한 한편의 드라마를 연상케 하는 이 광고는 지난날 1일부터 시청자들의 의견을 묻은 결과 사랑이 우정

이라는 겉데기 속에 이 시대의 사랑에 대한 가치관을 담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로부터 존경 받아오던 사회적 가치관은 개인적 가치관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 시대의 화두 N세대는 짜릿한 사랑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시대가 성과 사랑의 세기로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이런 시대적 가치관의 변화가 광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문제를 내보자. 답을 맞추는 사람에게는 필자가 원고료로 술 한잔을 살 것이다. 단 보증인 2명, 재산세 과세증명,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골치 아픈 서류가 필요하다. 각설하고 문제는 이러하다.

- 원빈과 효진이 연애한 지는 얼마나 됐을까?
- 1) 1년 전후
  - 2) 3년 정도
  - 3) 3년 이상
  - 4) 모름

그 정답을 알기 위해선 사랑의 생물학적 고찰이 필요하다. 인간이 사랑을 느끼는 것은 페로몬의 작용이다. 페로몬은 겨드랑이나 생식기 등에서 분비되는 체외호르몬으로서 내가 어떤이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꼈다는 것은 상대방의 페로몬이 나의 뇌에 동화작용을 일으킨 것이다.

그리고는 종족 보존의 본능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이 섹스이다. 요즘 유행하는 페로몬 향수가 바로 그것이다.

그럼 바람은 왜 피는 것일까? 그것도 페로몬의 작용이라는 것이다. 놀랍게도 실험에 의하면 페로몬에 동화된 뇌가 종족 보존 본능의 호르몬이 왕성하게 흐르는 기간이 3년이라는 것이다!! 평균 3년이 지나면 아무리 상대가 클레오파트라나 디카 프리오라도 그때부터는 종족 보존의 상대가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다. 페로몬이 작용할 때는 상대방이 거룩하고 고결했는데 페로몬의 약발이 떨어지면 거머리처럼 귀찮기만 한 것이다. 바야흐로 권태기인 것이다. 원빈도 효진과의 페로몬 약발이 떨어진 건 아닐까?

어쨌든 이 광고는 시청자의 의견을 물어 광고의 향방을 결정할 국내 첫 사례가 될 것이다.

10년전 대안에서 이와 비슷한 CF가 등장에 큰 화제를 불러 일으킨 적이 있다.

“여자 친구의 생일 파티에 자동차 고장으로 늦게 도착한 남자. 그러나 여자친구는 케이크를 으깨버린다. 상심한 남자는 불리장에서 이해심 많고 상냥한 여자를 만난다. 남자는 음식받이 옛 여자친구와 친절한 새 여자 친구 중 누구를 선택했을까?” 대안 CF에서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 아마 이번 광고 또한 명쾌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지 않을까 필자는 짐작해 본다.

우리의 많은 광고가 외국의 크리에이티브를 베껴 문제가 되고 있고 국내 골지의 대행사에서는 외국 것을 베끼면 자체 정제까지 주는 요즘의 추세로 볼 때 이번 광고는 아무래도 뒷맛이 개운칠 않다. 그러나 이 같은 외국의 사례를 모방하지 않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첫 칼럼이 아닌가 필자는 자부해 본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정답을 보내주시기 바란다.

김태홍  
서울광고기획 국장 taehoong@hanmail.net

# 암울한 세기말의 옷을 벗어라!

## 세기말의 종말론

## 예언통한 미래조망 주체적 수용 필요

99년은 그 어느 해 보다도 지구 종말에 대한 관심과 불안이 증폭된 한해였다. 세기의 예언가들이 1999년을 종말의 전조기 혹은 종말의 실행시기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1999년 종말론의 대표적인 예언가는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할 수 있는데 4백 여년간 그의 예언이 거의 맞아 떨어졌다는 사실이 더욱더 종말론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레 샹튀리'라는 예언시에서 1999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1900, 90의 9년, 7의 달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암골모아의 대왕을 소생시키기 위해 그 전후의 기간, 마르스는 행복의 이름으로 지배하려 하리라.' 고대 베냐민 같은 노스트라다무스 연구자들은 이 구절의 첫 줄을 보고 1999년 음력 7월을 대변혁의 첫 시기로 잡고 있다. 그의 예언이 1999년에 그치지 않고 3797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1999년이 완전한 지구 종말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의 예언을 통해서 지구 최후의 날을 그리고자 애쓰고 있다. 음력 7월에 혜성이 지구에 떨어질 것

이다. 우주인이 공격해 올지도 모른다. 세계 3차 대전이 발발할지도 모른다. 생태 파괴와 환경오염으로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게 되고 인간마저도 종족을 보존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등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상의 시나리오들은 점차 영화로, 소설로 혹은 음악으로 만들어져 1999년의 세기말을 더욱 암울하게 만들었다. 2000년을 지구 종말로 보는 예언은 노스트라다무스 이전의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의 헤라클레이데스는 지구가 '불과 홍수'에 의하여 주기적인 파괴를 계속 받는다는 플라톤의 아틀란티스 침몰설의 연장에서 대대멸의 시기를 '제 2000년기의 끝 무렵'으로 잡고 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나 헤라클레이데스 외에도 신약성서의 요한계시록 역시 종말론의 촉매 역할을 담당했다. 이는 성서에서 한 시대를 2000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 단지 종말론자들의 추론에 불과할 뿐 성경의 기록에서는 뚜렷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서양의 예언가들이 구체적 인 시기를 거론하며 종말을 내다본 반면

동양의 예언가, 철학자들은 세상의 무한함과 지상낙원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한 예로 원효대사의 미륵 하생경에는 '그 때에는 기후가 고르고 4시가 조화되며 사람의 몸에 여러 가지 병환이 없으며 욕심, 성냄, 어리석음이 없어지고 사나운 마음이 없으며... 그때에는 이 세상의 인민이 다 고루 잘 살아서 차별이 없으며 사람의 수명이 극히 길고 모든 병환이 없어져...'라며 지속되는 세상을 낙관하고 있다. 세상의 미래와 종말에 대한 의식이 동·서양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뿌리깊은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하다. 직선적인 가치관의 서양에서 '언젠가 세상의 끝이 오리라' 믿는 것과 원형적인 가치관의 동양에서 '살아가다 보면 낙원이 올지도 모른다'고 믿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생각일 것이다. 이제 99년 한 해를 종말의 불안 속에 휩싸이게 했던 노스트

라다무스의 예언은 한숨을 내쉬고 가슴을 쓸어 내리며 말할 수 있는 가슴이 되었다. 그러나 노스트라다무스의 추종자, 연구자들은 고개를 숙이면서도 '그럴 리 없다. 우리가 그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예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우리가 미래를 알고자 하는 한, 세상의 끝이 오리라는 사실을 믿는 한 예언은 계속될 것이며 두려움도 지속될 것이다. 현재에 바탕을 두지 않은 미래는 존재할 수 없다. 간단하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진리는 현실에 충실하는 것이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맞아떨어지면서 사람들이 동요하자 누군가 그에게 항의를 하였다. 그러자 그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이 자살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고 응수했다고 한다. 예언이 단지 미래의 일을 예견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 현실을 바탕으로 미래를 조망하고 발전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예언일 것이다.

문학부



## 세기말 징후

## 새천년 희망을 부르는 세기말

## 세기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긍정적 사고 필요

세기말, 그 단어만큼이나 암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대홍수, 지진, 항공기 추락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등이 바로 그것이다. 20세기를 마감하는 현재, 속속 고개를 들고 있는 이런 징후들은 90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우선 가장 두드러지게 느낄 수 있는 세기말적 징후는 각종 사건과 사고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발생한 사건과 사고는 베네수엘라의 홍수와 필리핀의 강진 그리고 12월 23일 영국의 런던 스탠스테드 공항에서 발생한 KAL기의 추락사고이

다. 뿐만 아니라 95년의 움진리교의 독가스 유포사건이라든지 종말론에 빠진 종교집단의 집단자살사건 또한 이런 세기말의 혼돈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세기말적 징후는 우리 나라에서도 볼 수 있다. 94년의 성수대교 붕괴사건을 시작으로 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95년 아현동 가스폭발사고 그리고 97년의 광 공황 KAL기 추락사건, 올해의 씨랜드 참사, 인천호프집 화재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런 세기말의 징후들은 문명

이 발전함에 따라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인터넷상에 진화한 종말론 사이트가 등장한다거나, 지구 종말을 그린 영화들이 제작된다거나 혹은 세기말의 암울한 시대 현실을 그린 영화가 제작된다거나 하는 형태가 바로 그것이다. 현재 사람들은 이런 세기말적인 어두움과 혼돈에 기려 희망을 보지 못하고 있다. AIDS백신 개발이나 유전자 공학의 놀라운 발전 등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말 그

대로 세기말은 '세기의 말미'일 뿐이다. 이런 세기말의 올바른 인식이 정립되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세기말을 종말로 받

아들이는 오류가 발생할 것이다. 세기말이 곧 종말이라는 인식은 이제 낡은 생각일 뿐이다. (표)

## 잡은소식

### 학교 밖에서

#### 남센스



수녀원에서 벌어지는 기상천외한 남자수녀들의 해프닝! 뮤지컬 「남센스」가 다섯명의 남자수녀를 내세워 우리를 찾아온다. 식종독으로 죽은 수녀들의 장례식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다섯명의 수녀들이 벌이는 요절복통 이야기가 새천년을 즐겁게 열거할 듯. 이번 뮤지컬은 공연 도중 관객에게 토크쇼를 내는 것 등으로 관객과 무대가 하나가 되는 것까지 세심하게 배려했다.

99년 12월 3일~2000년 2월 27일까지. 화,수,목 7시30분 금,토 4시 7시30분 일 3시 6시 (월,삼) 대학로 인간소극장에서. 문의 722-8805

#### 합합 뮤지컬 「백댄서」



세기가 바뀌어도 그들은 춤을 춘다. 합합 전사들이 하나가 되어 합합 뮤지컬 「백댄서」를 이끌어 나간다. 신세대 사이에 가장 선호하는 직업으로 나타난, 백댄서를 소재로 기획된 이 공연에서 백댄서가 되기까지의 좌절과 인내, 노력을 느낄 수 있는 무대가 될 듯하다.

99년 11월 25일~2000년 1월 23일까지. 오후 4시, 7시(수,금) 대학로 인켄아트홀에서. 문의 529-4769

#### 여행스케치 콘서트 「5th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서」



라이브 콘서트의 저력을 과시하는 여행스케치가 결성 10주년을 맞아 콘서트를 연다. 10년간 주로 라이브 무대에서 팬들을 만나왔던 여행스케치인만큼 결성 10주년 기념 공연은 더 뜻깊고 팬들과 어우러지는 공연이 될 듯.

99년 12월 22일~2000년 1월 2일까지. 평일 7시 30분 주말 4시 7시 대학로 라이브극장에서. 문의 766-5361

#### 호랑이 이야기

극단 사다리가 어린이들을 위한 연극을 한다. 전래동화의 단골 주인공인 호랑이에 관한 이야기를 재해석, 재구성하여 판소리 방식으로 꾸며나갈 예정. 공연 중간중간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조력을 키워주고, 참여도 할 수 있는 연극놀이까지 가미된 이번 공연은 어린이들에게는 좋은 새해 선물이 되고, 어른들에게는 동심으로 돌아가 추억을 거닐 수 있는 시간이 될 듯. 1월 4일~16일까지. 2시 4시(매일공연)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에서. 문의 743-1683

## 메아리

### 한민족 드림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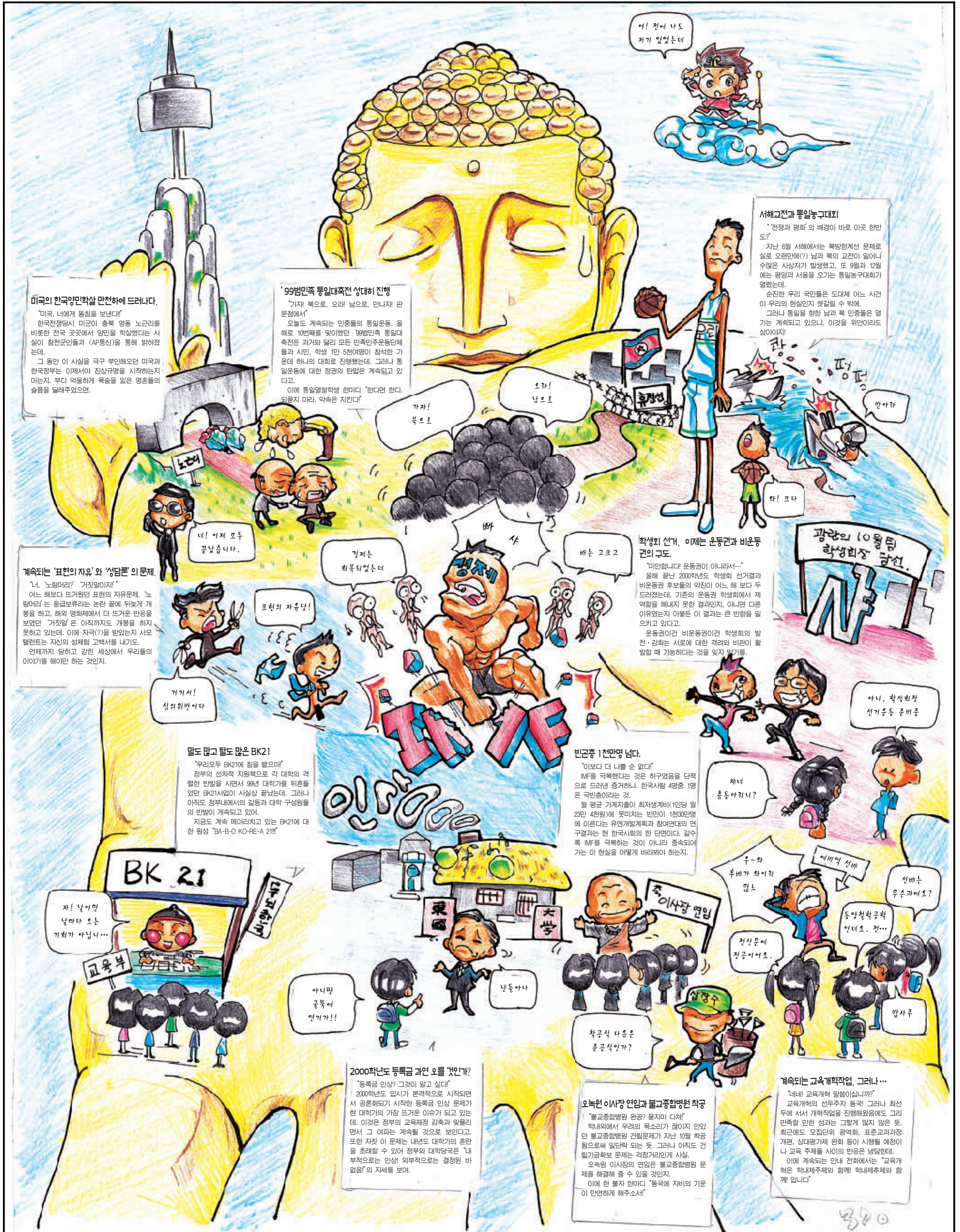
▲ '드림팀'이라는 말이 있다. 미국의 프로농구 선수들이 한 팀을 이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이후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이 단어는 말 그대로 '꿈속에 서나 볼 수 있고 가능한 최강의 팀'을 말한다. 요즘에는 모 오락 TV프로그램에서도 연예인들로 구성된 드림팀이 있을 정도이니 단어에는 무언가 모를 '신비감'이

있는 모양이다. ▲ 얼마 전, 서울에서는 남과 북이 한자리에 다시 모인 가운데 통일농구대회가 열렸다. 하얀 눈의 축복속에 진행된 이번 대회는 지난 9월에 열렸던 평양대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것이다. 평양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남과 북은 금방 서로가 하나의 팀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또 형

제라는 것을 몸소 느꼈다. 또한 저렇게 잘하는 남과 북의 농구선수들이 단일 팀을 구성한다면 아시아는 물론이고 세계대회에 나가서도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작은 기대도 들었다. ▲ 그런데 이러한 행사이후에는 항상 쓸쓸한 느낌뿐이다. 말 그대로 '행사'로만 끝나버리지 않을까하는 염려 때문이다.

"권력자들의 생색내기에 순진한 남과 북의 민중들이 이용만 당하는 것은 아닌지..." 자꾸 이런 불길한(?)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 그러나 이러한 의문이 들수록 그 해답은 명확해진다. 그 답은 바로 최대한 빨리 남과 북이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자주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이뤄내는 것뿐이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의 민중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다가오는 21세기 우리는 어느 누구도 무시 못하는 '한민족 드림팀'을 구성해 세계에 우리의 기개와 기상을 떨칠 수 있을 것이다. 유철주 대학부장 cowso@cakra.dongguk.ac.kr



어! 전에 나도 저기 있었는데

**서해교전과 통일농구대회**  
 "전쟁과 평화"의 배경이 바로 이곳 한반도?  
 지난 6월 서해에서는 북방한계선 문제로 실로 오랜만에(?) 남과 북의 교전이 일어나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또 9월과 12월에는 평양과 서울을 오가는 통일농구대회가 열렸는데,  
 순진한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어느 사건이 우리의 현실인지 헷갈릴 수 밖에. 그러나 통일을 향한 남과 북 민족들은 열기는 계속되고 있으니, 이것을 위안이라도 삼아주세요!

**미국의 한국양민학살 만천하에 드러나다.**  
 "미국, 너에게 똥침을 보낸다!"  
 한국전쟁당시 미군이 충북 영동 노근리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양민을 학살했다는 사실이 참전군인들과 (AP통신)을 통해 밝혀졌는데,  
 그 동안 이 사실을 극구 부인해오던 미국과 한국정부는 이제서야 진상규명을 시작하는지 마는지, 부디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영혼들의 슬픔을 덜어주세요.

**'99범민족 통일대축전 상대히 진행**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오늘도 계속되는 민족들의 통일운동. 올해로 10번째를 맞이했던 '99범민족 통일대축전'은 과거와 달리 모든 민족민주운동단체들과 시민, 학생 1만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나의 대회로 진행됐는데, 그러나 통일운동에 대한 정권의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통일열혈학생 한마디 "한다면 한다. 되묻지 마라. 약속은 지킨다"

**계속되는 '표현의 자유'와 '성담론'의 문제.**  
 "너, '노랑머리'? 거짓말이지!"  
 어느 해보다 뜨거웠던 표현의 자유문제. '노랑머리'는 등급보류라는 논란 끝에 뒤늦게 개봉을 하고, 해외 영화제에서 더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거짓말'은 아직까지도 개봉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자극(?)을 받았는지 서모 앨런트는 자신의 성체철 교백서를 내기도.  
 언제까지 달하고 같은 세상에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것인지.

**경쟁은 회복되었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BK21**  
 "우리모두 BK21에 침을 뱉으마!"  
 정부의 선처지 지원책으로 각 대학의 격렬한 반발을 사면서 99년 대학가를 뒤흔들었던 BK21사업이 사실상 끝났는데, 그러나 아직도 정부내에서의 갈등과 대학 구성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지금도 계속 메이리치고 있는 BK21에 대한 원성 "BA-B-O KO-RE-A 21!!"

**BK 21**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까...  
 교육부

**민중중 1천만명 넘다.**  
 "이보다 더 나쁠 순 없다"  
 IMF를 극복했다는 것은 허구였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증거 하나. 한국사람 4명중 1명은 극빈층이라는 것.  
 월 평균 기계지출이 최저생계비(1인당 월 23만 4천원)에 못미치는 빈민이 1천300만명에 이르는 유엔개발계획과 참여연대의 연구결과를 현 한국사회의 한 단면이다. 갈수록 IMF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종속되어 가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2000학년도 등록금 과연 오를 것인가?**  
 "등록금 인상? 그것이 알고 싶다"  
 2000학년도 입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한 등록금 인상 문제가 현 대학가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의 교육재정 감축과 맞물리면서 그 여파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칫 이 문제는 내년도 대학가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정부와 대학당국은 "내부적으로는 인상 외부적으로는 결정된 바 없음"의 자세를 보여.

**오복원 이사장 연임과 불교종합병원 착공**  
 "불교종합병원 원공? 묻지마 다쳐"  
 학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불교종합병원 건립문제가 지난 10월 착공됨으로써 일단락 되는 듯. 그러나 아직도 건립기금확보 문제는 걱정거리인게 사실.  
 오복원 이사장의 연임은 불교종합병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지.  
 이에 한 불자 한마디 "동국에 자비의 기운이 만연하게 해주소서"

**계속되는 교육개혁작업, 그러나...**  
 "네네 교육개혁 말씀이십니까?"  
 교육개혁의 선두주자 동국! 그러나 최선 만에 서서 개혁작업을 진행해왔음에도 그리 만족할 만한 성과는 그렇게 많지 않은 듯. 최근에도 모집단위 광역화, 표준교과과정 개편, 상대평가제 완화 등이 시행될 예정이나 교육 주체들 사이의 반응은 냉담한데.  
 이에 계속되는 안내 전화에서는 "교육개혁은 학내제주체와 함께 학내제주체와 함께 일니다"

370